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학위논문

한국인 학습자의 스페인어
완료/불완료 과거 습득 연구

2015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어서문학과 어학전공

황 지 희

한국인 학습자의 스페인어 완료/불완료 과거 습득 연구

지도교수 이 만 기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어서문학과 어학전공
황 지 희

황지희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8월

위 원 장 _____ 김 은 경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이 만 기 _____ (인)

위 원 _____ 이 재 학 _____ (인)

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스페인어의 완료/불완료 과거 습득에 있어서 작용하는 형태적 상과 어휘적 상의 상호 관계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인 학습자의 스페인어 과거 시제 문장에 대한 상적 이해 및 표현의 정도를 설문을 통해 파악하여 이들의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상의 습득과 관련하여 기존에 논의된 상 가설과 시제 가설 중 한국인 학습자들은 어느 가설에 부합하는 양상으로 상을 습득하는지 검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분석한 설문 결과를 교육학적으로 고찰해 본다.

우선, 이론적 측면에서는 스페인어의 완료/불완료 과거 대조에 관여하는 어휘적 상과 형태적 상, 그리고 이 두 상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다. 특히 어휘적인 측면과 형태적인 측면이 동사의 상 표현을 위해 상호 작용하며, 각각의 상적 자질의 부합 정도에 따라 원형 조합과 비원형 조합을 이루어 사용됨을 파악한다. 이와 더불어 상 습득에 관한 이론, 특히 스페인어 완료/불완료 과거의 습득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이론적 흐름과 연구 결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둘째, 실증조사 부분에서는 한국인 학습자들의 스페인어 완료/불완료 과거를 어떻게 인지하고 사용하는지를 직접 살펴보기 위하여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다. 설문에서는 총 4개 유형의 Task를 설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증한다. 학습자들의 과거 시제 사용 양상을 통해 상 가설과 시제 가설 중 더욱 부합하는 가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는 Task 1에서는 상 가설에 더 적합한 결과를 보였다. 어휘적 상과 형태적 상이 일치하지 않는 문장들로 구성된 Task 2를 통해서서는 완전접근가설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습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미 변화, 습관 해석, 비실제 상황, 총칭적 해석의 네 가지 특수 용법의 학습 여부를 검증한 Task 3를 통해서서는 중급 학습자들의 경우 각 용법에 대한 학습이 아직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Task 4를 통해서서는 구체적으로 ser/estar와 관련된 문항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스페인어의 두 계사 동사를 어떻게 인지하고 사용하는지를 검증했고, 현재 시제의 경우에는 초급 단계에서 이미 두 동사의 용법을 학습했기 때문에 모든 학습자 그룹에서 비교적 높은 정답률을 보였으나, 과거 시제로 변형할 경우 중급 학습자들은 어휘적

상에 근거하여 원형 조합만을 사용함으로써 아직 상태동사의 완료/불완료 과거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적 함의 부분에서는 스페인어 완료/불완료 과거가 한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에는 어떻게 소개 및 설명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총 5권의 교재를 분석하며, 분석 결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설계된 교재에는 원형 조합과 비원형 조합에 대한 고려가 거의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설명에 있어서는 완료/불완료 과거 용법의 단순한 나열에 그치는 아쉬움이 있었으며, 종결동사와 비종결동사에 따른 완료/불완료 과거 의미 해석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예문의 경우, 대부분의 교재에서 단문으로 구성된 예문만을 제시하여, 학습자나 교수자가 맥락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대화문이나 단락 차원의 예문이 제공되어 있지 않았다. 단문으로 제공되는 예문도 의의가 있지만, 완료/불완료 과거의 사용이 문맥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문 보다는 텍스트 중심의 예문이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화문과 텍스트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원형 조합과 비원형 조합 모두에 대한 노출이 풍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예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연습문제의 경우, 예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동사를 활용하는 단락 차원의 문제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원형 조합과 비원형 조합의 모든 경우에 대한 연습 문제를 제공하여 반복 학습 및 연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설명과 예문으로 학습한 완료/불완료 과거를 단락 차원의 연습 문제를 통해 스스로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해 보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스페인어의 완료/불완료 과거와 관련된 상을 습득할 때에는 어휘적 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밝혀 냈으며, 학습이 진행되면 어휘적 상의 영향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경향을 보임을 확인했고, 자연스러운 상적 습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과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스페인어의 상, 완료/불완료 과거 습득, 상 가설, 시제 가설, 교재분석, 교수법

학 번 : 2013-20029

목 차

1. 서론	1
1.1. 연구 배경	1
1.2. 연구 대상	2
1.3. 연구 목적 및 구성	7
2. 스페인어 완료/불완료 과거의 상적 특징	10
2.1. 어휘적 상	10
2.2. 형태적 상	14
2.3. 어휘적 상과 형태적 상의 상호 관계	16
2.4. 스페인어의 상과 관련된 완료/불완료 과거의 용법	19
3. 스페인어 완료/불완료 과거 습득 이론	23
3.1. 상 가설(AH: Aspect Hypothesis) vs. 시제 가설(TH: Tense Hypothesis)	23
3.1.1. 상 가설	23
3.1.2. 시제 가설	28
3.2. 완전접근가설(Full Access Hypothesis) vs. 부분접근가설(Partial Access Hypothesis)	30
3.2.1. Schwartz & Sprouse(1996)의 완전접근가설	32
3.2.2. Beck(1998)의 부분접근가설	33
3.2.3. Montrul & Slabakova(2002)의 입장	34
3.3. 완료/불완료 과거 관련 특수 용법에 대한 학습	35
3.3.1. 불완료 과거의 시제성	35
3.3.2. 불완료 과거의 총칭성	39
3.3.3. 불완료 과거의 시제성과 총칭성에 대한 학습 문제	41

4. 한국인 스페인어 학습자의 완료/불완료 과거 습득 및 사용	
양상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43
4.1. 설문 목적 및 구성.....	43
4.2. 설문 설계.....	45
4.2.1. Task 1: 형태적 상 사용 양상 및 상/시제 가설 검증	47
4.2.2. Task 2: 형태적 상과 어휘적 상의 상호 관계	50
4.2.3. Task 3: 완료/불완료 과거 특수 용법 이해도 측정	53
4.2.3.1. 의미 변화 용법	53
4.2.3.2. 습관 해석 용법	56
4.2.3.3. 비실제 상황 용법	57
4.2.3.4. 총칭적 해석 용법	58
4.2.4. Task 4: ser/estar의 어휘적 의미 이해 정도 및 과거	
시제에서의 사용 양상.....	59
4.3. 설문 결과 분석.....	63
4.3.1. Task 1 결과 분석	63
4.3.2. Task 2 결과 분석	67
4.3.3. Task 3 결과 분석	78
4.3.3.1. 의미 변화 용법의 검증.....	78
4.3.3.2. 습관 해석 용법의 검증.....	80
4.3.3.3. 비실제 상황 용법의 검증.....	81
4.3.3.4. 총칭적 해석 용법의 검증.....	82
4.3.4. Task 4 결과 분석	83
4.3.5. 설문 분석 결과 종합.....	87
5. 스페인어 완료/불완료 과거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교수법 ...90	
5.1. 교재 분석 대상 및 선정 기준.....	91
5.2. 교재 분석.....	91
5.2.1. 종합 기초 스페인어.....	91

5.2.2. 초급 스페인어 2.....	94
5.2.3. Dos mundos	98
5.2.4. Nuevo Prisma Fusión A1+A2	100
5.2.5. Gramática de uso del español.....	104
5.3. 한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스페인어 완료/불완료 과 거 교수법 제안.....	107
6. 결론	111
참고문헌	113
부록 [설문지 샘플]	121
RESUMEN	126

1. 서론

1.1. 연구 배경

스페인어의 과거 시제에는 완료 과거(Preterite)와 불완료 과거(Imperfect)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¹ 이 두 형태는 시제(tense)의 측면에서는 ‘과거’라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상(aspect)의 측면에서는 ‘완료’와 ‘불완료’라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 본 논문은 스페인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들의 완료/불완료 과거 사용 양상 분석을 통해 한국인 학습자들이 스페인어 완료/불완료 과거의 상적 특징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완료/불완료 과거의 대조에 대한 기술문법적 그리고 교육학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기존에 많이 이루어졌지만, 스페인어를 제2언어(L2) 혹은 외국어로서 학습할 때의 ‘상 습득’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고(cf. Andersen, 1986), 한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기존 영어권 화자들을 대상으로 한 스페인어 상 습득 양상 설문의를 틀을 차용하여(cf. Montrul & Slabakova, 2002),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스페인어 완료/불완료 과거 교재 구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인 스페인어 학습자의 스페인어 상 습득 양상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완료/불완료 과거의 대조에 관여하는 스페인어의 어휘적 상(lexical aspect)과 형태적 상(morphological aspect), 그리고 이 두 상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어휘적인 측면과 형태적인 측면이 동사의 상 표현을 위해 상호 작용하며, 이러한 점을 학습자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형태(form)와 의미(meaning) 관계의 학습 양상 분석에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기존의 상 습득에 관한 이론, 특히 스페인어 완료/불완료 과거의 습득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이론적 흐름과 연구 결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¹ RAE(2009)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스페인어에서 과거와 관련되어 있는 형태는 총 세 가지가 있다. canté 형의 단순 완료 과거(pretérito perfecto simple), he cantado 형의 복합 완료 과거(pretérito perfecto compuesto), cantaba 형의 불완료 과거(pretérito imperfecto)가 그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복합 형태를 제외한 두 가지 형태를 가리켜 canté 형을 ‘완료 과거’로, 그리고 cantaba 형을 ‘불완료 과거’라는 명칭으로 통일하겠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스페인어의 어휘적 상과 형태적 상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된 설문을 통해 한국인 스페인어 학습자들의 완료/불완료 과거 습득 및 사용 양상을 파악한다. 설문 결과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 후, 이에 교육학적으로 접근하여 기존 교재 분석을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어떠한 교수법이 필요할 것인지를 고려해보도록 하겠다. 특히 설문을 통해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스페인어 완료/불완료 과거와 관련한 바람직한 교수법 방안을 고안해보고자 한다.

1.2. 연구 대상

스페인어는 시제와 상이 모두 굴절 형태소를 통해 구체화되는 언어이다. 시제란 발화 순간과의 관계에서 동사에 의해 표현되는 상황의 시간적 위치를 정하는 것으로, 직시적(deictic)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상은 어떤 다른 시점에 관련되지 않고, 오히려 한 상황의 내적인 시간 구조를 바라보는 방법으로 간주된다 (cf. Comrie, 1985).

Gonda(1962)에 따르면, 상이라는 용어는 19세기 초의 슬라브어 문법 연구에서 사용된 vid(관점)라는 러시아어 어휘로부터 비롯되었다. 전통적으로 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었는데, Friedrich(1974)는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는 방식’으로, Taylor(1977)는 ‘시간의 연속적인 순서 속에서 “위치하는” 시간적인 “무엇”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능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정의하였다. 상을 시간과 관계되는 것으로 정의했던 이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Kruisinga(1931)는 ‘상은 화자가 한 상황을 전체로 보느냐 전체가 아닌 특정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Comrie(1985)는 ‘상은 한 상황의 내적인 시간 구조를 바라보는 다양한 방법’이라고 정의했다 (Brinton 1988). 본 논문에서는 후자의 정의를 따라 상을 시간보다는 화자의 관점에 따라 표현되는 것으로 상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겠다.

Comrie(1985)에 따르면, 상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 크게 완료상(perfective aspect)과 미완료상(imperfective aspect)으로 구분된다. 완료상은 [+완료]의 자질을 지니며 상황을 바깥 쪽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미완료상은 [-완료]의 자질을 지닌 것으로 상황을 안쪽에서 바라보아 그 내부구조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이다. 특히 스페인어는 완료 과거를 통해 완료상이, 그리고 불완료 과거를 통해 미완료상이 형태적으로

명시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1) a. Luis pintó la valla.
- b. Luis pintaba la valla.

(RAE, 2011: 145)

예문 (1a)의 완료 과거는 어떠한 동작의 완료상을 표현하기 때문에 상황을 바깥에서 바라보아서 ‘그리다’라는 동작이 시작되고 끝이 났음을 표현한다. 이에 반해, (1b)의 불완료 과거는 상황의 내적 구조를 고려하기 때문에 동작의 시작과 끝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리다’라는 동작이 진행되었음을 나타낸다. 즉, 스페인어에서는 하나의 과거 상황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화자가 상황의 외적 구조와 내적 구조 중 어디에 더욱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완료 과거와 불완료 과거로 각각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김제열(2003)에 따르면, 한국어의 상에 대한 해석은 단적으로 정리해서 말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한국어에서는 상의 종류에 대한 통일도 쉽지 않은 데다가 각각의 상들이 어떤 형태와 일 대 일로 대응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페인어에서 상적 대조를 [+완료]를 기준으로 삼아 구분하였듯이, 한국어의 상 역시 완결상과 미완결상으로 구분한다.

한국어에서 완결상은 문법 범주 ‘-었-’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인 형태이지만, ‘-었-’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완료]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문장들이 다수 존재한다. 미완결상의 경우, 의미적 관점에서 진행상, 반복상, 습관상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미완결상의 각 범주가 특정한 문법 형태로 일 대 일 대응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진행상에는 ‘-고 있-’과 같은 문법 형태가 주로 쓰인다는 점에서 명시적으로 [-완료]를 확인하기가 비교적 용이하지만, 그 밖의 반복상이나 습관상 따위는 특정한 문법 형태로 구분되지 않는다. 무표(∅)가 진행이나 반복, 습관을 모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한국어 미완결상은 부사어나 문맥의 도움을 받아 의미적으로만 구별되는 경우가 많다. (cf. 김제열, 2003)

이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스페인어로 작문을 할 때에 오류를 범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한국어에서 상적 대조를 드러내는 요소와 스페인어에서 상적 대조를 드러내는 항목이 일 대 일로 대응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은 각각의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여겨지는 동사 형태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놓이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한국어 예문이 여기에 해당된다.

- (2) - 너 주말에 뭐했(었)어?
 - 바다에 갔(었)어.

위의 예문에서, (2)의 한국어 표현에서는 비록 완결상을 표현하고 있지만, [+완료] 자질을 명시해주는 요소인 ‘-었-’을 생략하더라도 비문이 되지 않으며 여전히 [+완료]의 해석이 가능하다. 즉, 한국어에서는 상적 대조를 나타내는 요소가 생략되더라도 문장이 과거 시제로 쓰여지는 것 자체로 정문이 형성되기 때문에, 같은 문장을 스페인어로 작문하는 데 있어서도 시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완료 과거 혹은 불완료 과거 중 아무 것이나 선택하여 문장을 생성해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스페인어 한림원(Real Academia Española, 2009)의 『스페인어 신문법서(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에서는 스페인어의 상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3) 스페인어 상의 구분²

a. 형태적 상(aspecto morfológico o desinencial):

굴절형태소를 통해 완료성의 대조를 표현 - canté vs. cantaba

b. 어휘적 상(aspecto léxico o modo de acción):

동사 어휘 그 자체의 행동 방식을 표현

- 동작동사(ACTIVIDADES): correr por el parque, empujar un carro
- 성취동사(REALIZACIONES o EFECTUACIONES): comer un platillo, construir un dique
- 달성동사(CONSECUCIONES o LOGROS): alcanzar la cima, llegar, perder las llaves

² 스페인어에서 상적인 대조를 드러내는 또 다른 문법적인 사항은 스페인어 동사의 단순형(simple forms)과 복합형(composed forms)의 대조가 있다. 복합형이란 문법형태(grammatical forms)를 표시해주는 *haber* 조동사와 실제 동사의 의미적 자질(semantic value)를 전달해주는 과거분사의 결합형을 의미한다. 즉, 복합형은 *haber+participio*로 구성되어 통합적 상(syntagmatic aspect)을 드러내는 구문으로, 굴절형태소를 통해 시제, 상, 인칭, 수를 통합적으로 표현하는 단순형 동사와 대조된다. (cf. 이만기, 2007: 107)

- 상태동사(ESTADOS): creer en alguien, merecer un premio
- c. 통사적 상(aspecto sintáctico o perifrástico):
 - 숙어를 통해 상을 표현 - estar por+infinitivo, acabar de+infinitivo

(RAE, 2009: 1685-1692)

위의 구분을 통해 형태적 상 하나만으로 어떤 문장 또는 발화의 상적 특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어휘적 상과 문법적 상 모두 동사의 상적 해석에 관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세 가지 상 중에서 통사적 상은 동사의 범위를 벗어나서 ‘동사+전치사+동사원형’이라는 구조를 통해 상을 드러내는 방식이며, 완료/불완료 과거의 사용과는 크게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논문의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형태적 상과 어휘적 상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

(3)의 어휘적 상은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는 Vendler(1967)의 어휘적 상 분류 체계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어휘적 상에 대한 Vendler의 4 분류 체계의 각 동사들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상태동사는 일정한 시간 동안 지속되며 변화하지 않는 특징을 지니는 동사로 소유(possess; posesión), 욕구(desire; deseo), 지식(knowledge; conocimiento)과 관련된 동사들이 이에 속한다. 동작동사는 내적인 지속성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끝이 없는 동사로 달리기(run; correr), 수영하기(swim; nadar), 밀기(push; empujar) 등의 동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성취동사는 동작동사와 마찬가지로 내적인 지속성을 보이지만 종료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의자 만들기(making a chair; hacer una silla), 집 짓기(building a house; construir una casa), 소설 쓰기(writing a novel; escribir una novela) 등이 성취동사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달성동사는 종료점은 있지만 지속성이 없는 동사로 알아차리기(recognizing; reconocer), 물건 잃어버리기(losing an object; perder algo), 산 꼭대기에 오르기(reaching the summit; alcanzar la cima)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렇게 어휘적으로 드러나는 상의 쓰임은 언어의 종류를 막론하고 거의 비슷하다. 개개인이 겪게 되는 감정, 사고, 행동 등은 다른 사람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언어라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어휘적 상은 동사의 본질적 자질(inherent semantic feature)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외국어를 배울 때에 어휘적 상은 특별한 교육이 없이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지만 형태적

상은 언어마다 각각의 표현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학습해야만 하는 것이다.

스페인어의 상을 학습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스페인어의 어휘적 상과 형태적 상 간의 결합 제약은 없다. 아래에서 보듯이, 4 종류의 어휘적 상과 2 종류의 형태적 상이 모두 상응될 수 있기 때문에 총 8 가지의 조합 유형(combination pattern)이 가능하다.

(4)

상태동사	완료 과거: fue alto	성취동사	완료 과거: comió un platillo
	불완료 과거: era alto		불완료 과거: comía un platillo
동작동사	완료 과거: trabajó	달성동사	완료 과거: llegó
	불완료 과거: trabajaba		불완료 과거: llegaba

둘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합 제약은 없지만, 비교적 더욱 자연스러운 결합과 비교적 덜 자연스러운 결합의 차이는 있다. 비교적 덜 자연스러운 결합의 경우, 특정한 문맥이나 상황이 없으면 비문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문장들도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만기(2007: 115)에서 언급한 다음과 같은 예문을 보자.

- (5) a. Le dio un dolor tan fuerte que se murió ayer.
- b. Le dio un dolor tan fuerte que se moría ayer, pero ahora está bien.

(5)에 쓰인 morir(죽다) 동사는 달성동사로, 종료점이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완료상과 잘 어울려 (5a)와 같이 완료 과거와 함께 쓰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5b)와 같이 ‘어제는 죽을만큼 아팠지만 지금은 괜찮다’라는 맥락적 상황이 있는 경우, 즉 죽을 뻔 하였으나 실제로 죽지는 않았다는 전제 하에 불완료 과거와 상응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pero ahora está bien’의 부분이 생략되었더라면 (5b)는 동사의 어휘적 상과 형태적 상, 그리고 ayer라는 시간적 제약이 충돌되어 어색한 문장이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어휘적 상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형태적 상에 대한 개별적인 학습이 이루어졌더라도, 이 두 상 간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면 스페인어 문장의 상적 특징을 온전히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처럼 어휘적 상, 형태적 상과 관련한 학습자의 상 습득을 분석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상 습득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형태적 상의 습득은 어휘적 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이루어진다는 이른바 상 가설(AH: Aspect Hypothesis)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Andersen(1986, 1991)으로 대표되는 상가설에서는 완료 과거는 성취동사, 달성동사와 함께 그리고 불완료 과거는 상태동사, 동작동사와 함께 우선적으로 습득되며 학습의 진행에 따라 완료 과거와 행위동사, 상태동사의 상응 그리고 불완료 과거와 달성동사, 성취동사의 상응에 대한 습득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반대로 Salaberry(2000) 등은 시제 가설(TH: Tense Hypothesis)을 주장하며 학습의 초기에는 어휘적 상과는 관계 없이 모든 과거 시제 표현은 완료 과거로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중 상당수가 상 가설을 지지하고 있지만, 시제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들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둘 중 어느 가설이 더욱 적합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현실이다.

1.3. 연구 목적 및 구성

본 연구는 스페인어의 완료/불완료 과거 습득에 있어서 작용하는 형태적 상과 어휘적 상의 상호 관계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인 학습자의 스페인어 과거 시제 문장에 대한 상적 이해 및 표현의 정도를 설문을 통해 파악하여 이들의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법 모델을 고안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학습자들을 수준 별로 분류하여 스페인어의 과거 시제와 관련된 학습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문제로 제시된 문항들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활용했던 문항들을 본 연구의 설문 대상인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적합하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되었다. 설문을 구성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4가지의 Task를 설정하고, 각각의 Task마다 검증 목표를 설정하여 설문 문항을 고안하였다.³

Task 1: Montrul & Slabakova(2002)에서 빈칸 채우기 문제(Cloze Test)로 구성한 Morphology Test를 통해 한국인 학습자들의 스페인어 동사 과거 시제 사용 양상이 상 가설과 시제 가설 중 어떠한 입장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검증한다.⁴

³ 각 Task의 문항들과 이를 통해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항들은 4.2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⁴ Morphology Test란 동사의 어휘적 상과 형태적 상이 일치하는 경우에 대한 학

Task 2: Montrul & Slabakova(2002)에서 문장 간 연결 관계 판단 문제(Sentence Conjunction Judgment Test)로 구성된 Semantic Test를 통해 학습자들이 완료 과거와 불완료 과거의 형태적 상을 통해 나타나는 단순한 용법 차이를 넘어서 동사의 어휘적 상과 관계된 미묘한 의미적인 차이까지 습득하였는지를 검증한다.⁵

Task 3: Slabakova & Montrul(2003), Guijarro-Fuentes(2005), Cuza-Blanco(2008)에서 고안된 참/거짓 판단 문제(Truth-Value Judgment Test)를 통해 스페인어의 두 과거 시제, 특히 불완료 과거와 관련된 특수한 용법들까지도 학습자들이 학습할 수 있는지를 검증한다.

Task 4: 질문의 대상이 되는 동사를 ser와 estar로 한정한다. Sándor(2004)의 문제를 발췌하여 우선 현재 시제에서 두 동사의 어휘적 의미에 기반하여 ser/estar를 정확하게 구분해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이 두 동사를 과거 시제로 변형할 때 형태적 상과 어휘적 상 중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시키는지를 검증한다. 즉 이 Task는 화자의 관점에 따른 상 표시 습득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앞서 본 Task 2의 Semantic Test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설문을 통해 한국인 학습자들의 경우, 학습 단계가 낮을수록 스페인어의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휘적 상과 형태적 상의 전형적인 결합 관계, 즉 원형 조합(prototypical combination)에 한정되어 제한적인 사용 양상을 보이며, 학습 단계가 발달될수록 스페인어의 특징적인 완료 과거, 불완료 과거의 상적 양상과 동사 고유의 어휘적 상의 결합 관계가 가진 미묘한 의미적 차이를 인지하여 목표어의 원어민 화자와 유사한 언어 사용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 설문을 바탕으로, 한국인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항목들을 파악하여

습자들의 습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문제 유형을 의미한다. 이 유형에 대한 정답률이 높다는 것은 학습자들이 스페인어 완료/불완료 과거의 '의미와 관련된 형태'를 이해하고 있음을 뜻한다.

⁵ Semantic Test는 Morphology Test와는 달리 동사의 어휘적 상과 형태적 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학습자들의 습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문제 유형을 의미한다. 이 유형에 대한 정답률이 높다는 것은 학습자들이 문맥에 따라 스페인어 완료/불완료 상의 변형된 '의미' 역시 이해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학습을 도울 수 있는 바람직한 교수법을 제안하는 것이 본 논문의 궁극적 목표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제시하고 본 연구의 목적이 한국인 학습자들의 스페인어 완료/불완료 과거 습득 양상과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교육학적 고찰에 있음을 밝힌다. 또한 연구의 방법인 설문조사의 문제 유형과 각 유형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2장에서는 논의의 밑바탕이 되는 스페인어의 상에 관련된 기존 연구의 흐름을 파악할 것이다. 우선 어휘적 상을 Vendler(1967)의 동작류(Aktionsart) 구분을 통해 보고, Bosque & Gutiérrez-Rexach(2008)을 바탕으로 스페인어의 각 동작류는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를 살펴본다. 이후 형태적 상을 화자의 관점을 기준으로 완료/불완료 과거를 구분하는 입장을 중심으로 간단히 소개한다. 특히 두 상의 원형 조합(prototypical combination)과 비원형 조합(non-prototypical combination)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이 두 조합 관계가 학습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제2언어 습득(SLA, Second Language Acquisition) 이론에 입각하여 학습자들의 상 습득에 관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것이다. 우선 스페인어의 완료/불완료 과거 시제 굴절소 습득의 순서와 관련된 상 가설과 시제 가설의 논의를 살펴보고, AspP라는 기능 범주의 학습 가능성에 대한 완전접근가설(Full Access Hypothesis)와 부분접근가설(Partial Access Hypothesis)의 논의를 소개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논의된 불완료 과거 습득의 어려움에 입각하여 교육학적 측면에서 스페인어의 완료/불완료 과거의 특수한 용법들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계한 설문지의 각 유형 및 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 설문을 통해 파악된 중급, 고급 학습자들의 스페인어 완료/불완료 과거 사용 양상을 바탕으로 하여 설문 조사를 분석하여, 이러한 결과들이 교육적으로 어떠한 의의를 갖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5장에서는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스페인어의 완료/불완료 과거를 교수함에 있어서 형태적 상과 어휘적 상의 관계를 인지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밝히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교수법을 비원형 조합의 소개 및 연습에 중점을 두어 제안할 것이다.

2. 스페인어 완료/불완료 과거의 상적 특징

본 연구는 한국인 스페인어 학습자의 스페인어 완료/불완료 과거 습득 및 사용 양상에 대한 분석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어휘적 상은 한국어와 스페인어 모두에서 의미적으로 동사 어휘 내에 본질적으로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학습하지 않아도 스페인어 구사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형태적 상의 경우, 한국어의 상은 형태론적으로 명시되지 않지만 스페인어의 상은 과거 시제에서 두 가지 형태로 형태소의 굴절을 통해 드러난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주의를 요한다. 이 장에서는 각각의 상이 기존 연구에서는 어떠한 접근을 통해 파악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이 두 상의 상호작용이 스페인어 과거 시제 문장의 이해와 표현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2.1. 어휘적 상

어휘적 상은 ‘Aktionsart’라는 용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독일어에서 비롯된 이 용어는 동작을 의미하는 *aktion*과 종류를 의미하는 *sart*가 합쳐진 것으로, 우리말로 ‘동작류’라는 어휘로 번역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어휘적 상은 어떠한 사건(event)이 발생하거나 진행되는 양태(mode) 혹은 방식(way)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cf. Bosque & Gutiérrez-Rexach, 2008)

어휘적 상에 대한 연구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되었으며, 20세기에 들어서 Gilbert Ryle, Anthony Kenny 그리고 특히 Zeno Vendler와 같은 철학자들을 통해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 중 Vendler(1967)는 동사의 어휘적 상, 즉 동작류를 상태동사(State), 행위동사(Activity), 성취동사(Accomplishment), 달성동사(Achievement)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Vendler의 4분류 체계는 이후 많은 연구들에서 어휘적 상을 구분하는 기본적인 틀로 자리잡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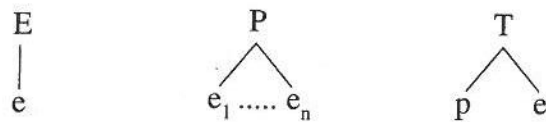
(6) Vendler(1967)의 동작류 구분

	상태동사 (States)	행위동사 (Activities)	성취동사 (Accomplishments)	달성동사 (Achievements)
역동성 (Dynamicity)	-	+	+	+
종결성 (Telicity)	-	-	+	+
순간성 (Punctuality)	-	-	-	+

그러나 모든 학자들이 이 구분법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다. 일례로 Pustejovsky(1988, 1991)는 아래와 같이 동작류를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 어휘적 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7)

상태(State) 과정(Process) 변화(Transition)



(Bosque & Gutiérrez-Rexach, 2008: 306)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Pustejovsky(1988, 1991)의 3분류 체계는 하나의 동사를 통해 표현되는 하위 사건(subevent)에 초점을 두고 구분된다. 우선 상태(State)의 경우 단 하나의 하위사건 e만을 표시함으로써 변화하지 않고 지속적인 속성을 갖는 상태동사의 의미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과정(Process)은 하나의 하위사건이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e_1...e_n$ 라는 기호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변화(Transition)는 p에서 e로 하위사건의 속성이 바뀐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를 Vendler(1967)의 동작류와 비교하면 상태는 상태동사로, 과정은 행위동사로, 변화는 성취동사와 달성동사로 대응시킬 수 있겠다.

이렇듯 학자에 따라 어휘적 상을 구분하는 기준과 각각의 동작류를 칭하는 용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분류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언어 습득 연구에 있어서 Andersen(1991)이 Vendler(1967)의 4분류 구분 체계를 이론적으로

재구성하여 적용한 이래로 이를 기준으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본 논문 역시 같은 기준을 택하도록 하겠다. 스페인어에 이 분류법을 적용하여 동작류를 구분한 예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8) 상태동사: Mi primo sabe francés; Luis es alto; El perro está muerto; Temía a los ratones; El libro consta de tres partes.
- (9) 행위동사: Pepe corre por el parque; El vecino está cantando; Luisa come cereales por las mañanas; El bebé dibuja círculos.
- (10) 성취동사: Pepe dibujó un círculo; Los obreros construyeron una casa; La abuela lavó los platos en diez minutos; Voy a pintar la silla.
- (11) 달성동사: Los piratas encontraron el tesoro; El corredor alemán ganó la carrera; El piloto cruzó la meta; Se tropezó con una piedra; El bebé nació a las tres; Pepe llegó tarde; Vislumbró el Castillo.

(Bosque & Gutiérrez-Rexach, 2008: 299-300)

Bosque & Gutiérrez-Rexach(2008)에서는 위와 같이 스페인어의 동작류를 구분하며 각 동작류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우선 상태동사는 아래와 같은 문법적인 특징을 지닌다.

(12) 상태동사의 특징

- a. estar 동사와 함께 진행형(progressive) 표현을 형성할 수 없다: *Juan está sabiendo francés.
- b. convencer, persuadir, forzar, obligar와 같이 설득·강요의 의미를 갖는 동사의 보충어로 사용될 수 없다: *Juan forzó a Pepe a saber francés.
- c. 명령형(imperative)을 구성할 수 없다: *¡Sabe francés!
- d. Lo que... fue... 구문을 구성할 수 없다: *Lo que hizo Juan fue saber francés.
- e. hacer 동사의 생략 표현(elliptical construction)이 불가능하다: *Pepe prefiere la cerveza y Luis lo hace también.
- f. ocurrir와 같이 발생의 의미를 갖는 동사와 함께 사용될 수 없다: *Ocurrió que Juan vivió allí varios años.

(Bosque & Gutiérrez-Rexach, 2008: 301-303)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상태동사는 다른 세 동사들과 구분이 가능하다. 나머지 동작류 중에서 달성동사는 행위자(Agent)

어휘적 상과 일대일 대응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떠한 동사를 특정 동작류로 구분할 때에는 문장 전체를 고려할 것이 요구된다.

2.2. 형태적 상

형태적 상이란 형태소의 굴절을 통해 동사의 상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Comrie(1976)는 형태적 상을 상적 의미 구분의 문법화(grammaticalization)로 정의하였다. 이에 반해, 어휘적 상은 상적 의미 구분의 어휘화(lexicalization)로 설명하여 두 상 간의 대조를 드러냈다.

스페인어의 경우, 완료 과거와 불완료 과거라는 동사의 과거 시제를 통해 형태적 상을 표현한다. 완료 과거는 *canté* 형을 가지는 반면에 불완료 과거는 *cantaba* 형태로 쓰이며, 이 두 과거 형태는 과거 시점에서 [±완료(perfective)]라는 상적인 차이에 의해 대조된다.

완료 과거를 통해 표현되는 완료상은 하나의 상황을 그 내적인 구조에는 관계 없이 바깥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따라서 초점은 그 상황의 시작과 끝에 있게 된다. 반면에 불완료 과거로 드러나는 미완료상은 하나의 상황을 안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그 시작과 끝을 구체화하지 않는다. 이는 다만 상황의 내적 구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Gili Gaya(1961)는 아래의 (15a)와 같이 사건동사(event verbs)를 완료 과거로 표현할 경우, 과거에서 이미 끝난 상황의 이전성(anteriority)을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⁶ 또한 (15b)처럼 상태동사(state verbs)를 완료 과거로 표현하면 그 상태를 이끌어 낸 행위의 끝(the termination of an action that leads to a state), 즉 그 상태의 시작을 드러낼 수 있다.

- | | |
|-----------------------------------|------|
| (15) a. La moza abrió la ventana. | 사건동사 |
| 소녀는 창문을 열었다. | |
| b. Ayer supe la noticia. | 상태동사 |
| 어제 소식을 알게 되었다. | |

⁶ 여기에서 사건동사란 상태동사를 제외한 행위동사, 성취동사, 달성동사를 의미한다.

반면에 불완료 과거는 오로지 사건의 지속에만 초점을 두어 아래의 (16a)와 같은 표현에서 사용이 되기도 하며, (16b)와 같이 시작이 되어 진행 중이었지만 결코 완료되지 않은 사건(event that was in progress but never be completed)을 나타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16) a. Llovía sin par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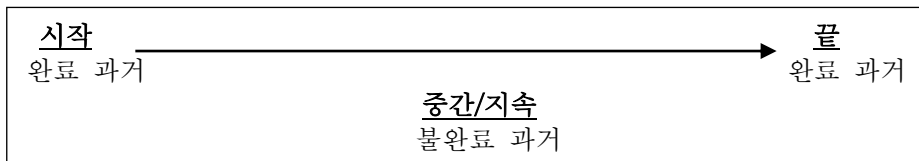
끊임 없이 비가 내렸다.

b. Salía cuando llegó una visita.

손님이 왔을 때 (그는) 나가려던 중이었다.

완료 과거와 불완료 과거의 [±완료]라는 자질과 관련하여 이만기(2007)에서는 완료 과거의 완료상이나 불완료 과거의 미완료상이 과거에서의 어떤 행위나 상황의 종료가 미종료를 언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이 두 형태의 동사는 모두 과거 시제에 속해 있는 것으로, 이 동사들이 언급하는 상황은 이미 과거에서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 시제에 나타나는 형태론적 상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화자의 주관성이 개입된 상적 대조라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시제의 두 형태는 화자가 가리키고 싶어하는 상황의 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만약 화자가 어떠한 상황의 지속적 상이나 중간적 상을 강조하고자 할 때에는 불완료 과거가 사용될 것이며, 어떠한 상황의 끝이나 시작을 나타내는 상을 두드러지게 하려면 완료 과거 형태가 사용될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17)



(이만기, 2007: 118)

이렇게 완료/불완료 과거를 구분함에 있어서 화자의 관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주목하여 Smith(1997)는 형태적 상을 관점 상(Viewpoint Aspect)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였다. Smith에 따르면 관점은 상황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각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는 주로 동사나

동사구의 일부인 형태소(morpheme)로 표현되므로 관점 상은 형태적 상과 부합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화자의 관점을 기준으로 완료/불완료 과거를 대조하는 설명은 ‘todoele(<http://www.todoele.net/>)’라는 L2로서의 스페인어 교육자들을 위한 웹사이트에 Salomé가 게시한 교육 자료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자료에서는 우선적으로 완료/불완료 과거의 용법을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한다.

(18)



위의 세 용법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마지막 세 번째 용법이다. 화자가 ‘현재’라는 발화 시점의 위치에서 과거의 행위를 서술할 때는 완료 과거를 사용하는 반면, 화자가 ‘과거로 이동’하여 그 행위가 일어났던 시점에서 서술을 할 때에는 불완료 과거를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즉, 화자가 불완료 과거를 사용할 때는 과거로 자신의 관점을 전환하여 과거 사실이 마치 현재인 것처럼 말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스페인어에서 완료/불완료 과거의 선택은 화자의 관점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2.3. 어휘적 상과 형태적 상의 상호 관계

우리는 앞서 스페인어에는 어휘적 상과 형태적 상이 모두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Montrul & Slabakova(2002)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며 상태동사, 행위동사, 성취동사, 달성동사의 모든 어휘적 상이 완료 과거와 불완료 과거로 각각 표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 | |
|------------------------------------|------|
| (19) a. El auto me costó \$20.000. | 상태동사 |
| b. El auto me costaba \$20.000. | |
| (20) a. Juan durmió en el sofá. | 행위동사 |
| b. Juan dormía en el sofá. | |
| (21) a. Juan corrió 5kms. | 성취동사 |
| b. Juan corría 5kms. | |
| (22) a. Juan alcanzó la cima. | 달성동사 |
| b. #Juan alcanzaba la cima. | |

그러나 동사의 내재적인 어휘적 상에 따라 두 가지의 과거 형태 중에서도 완료 과거와 잘 쓰이는 동사와 불완료 과거와 잘 쓰이는 동사가 구분된다. 위의 (22b)가 완전한 정문으로 받아들여지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는 것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 Giorgi & Pianesi(1997)에 따르면, 로망스어의 달성동사는 불완료 과거의 ‘과거에서의 현재(present-in-the-past)’ 해석과 잘 어울리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맥락이 설정되지 않고서는 달성동사를 불완료 과거로 사용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진다. 따라서 이 문장은 “Juan은 정상에 다다르고 있었지만 강풍이 불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Juan alcanzaba la cima cuando una ráfaga de viento se lo impidió.)”라는 부가적인 상황 설명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정문으로 받아들여 질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양성혜(2013) 역시 “Vendler(1967)의 상태동사, 행위동사, 완성동사, 달성동사의 4가지 동사 어휘상 유형(Aktionsart, Modo de Acción, 한국어 번역에서 ‘동작류’라 명명하는 학자들도 있음)에 따라 선호되는 동사 시제 즉 문법상이 달라진다”고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예시를 제시한다:⁷

예컨대 ‘amar, creer’ 같은 상태동사는 [-dinámico], [-télico], [-puntual]이므로 [-perfectivo]의 문법상을 가진 불완료 과거 시제로 주로 쓰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반면, [+télico]의 어휘상 자질을 보유하는 ‘acabar’ 완성동사나 ‘romper’ 달성동사의 경우 [+perfectivo]의 문법상을 나타내는 완료 과거와 더 어울림을 알 수 있다.

(양성혜, 2013: 67)

⁷ 양성혜(2013)에서는 성취동사(Accomplishment)를 ‘완성동사’로 번역하였다.

어휘적 상을 구분하는 기준인 ‘역동성, 종결성, 순간성’이 [±완료]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Bardovi-Harlig(1998)은 완료상과 미완료상의 의미적 자질을 대조하여 설명했다. 즉 완료상은 [+과거(past), +종결(telic), +순간(punctual), +결과(result)]의 의미 자질을 지니는 반면, 미완료상은 [-과거, -종결, -순간, -결과]의 자질을 갖는다. 이에 따라 완료상과 공유하는 자질의 개수가 많을수록 완료 과거와 쓰이는 것이 선호된다. 반대로 불완료 과거는 미완료상과 공유하는 자질의 개수가 많을수록 자주 쓰이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3) 완료 과거가 선호되는 어휘적 상

		과거	종결	순간	결과
형태적 상	완료 과거	+	+	+	+
어휘적 상	달성동사		+	+	
	성취동사		+	-	
	행위동사		-	-	
	상태동사		-	-	

(24) 불완료 과거가 선호되는 어휘적 상

		과거	종결	순간	결과
형태적 상	불완료 과거	-	-	-	-
어휘적 상	달성동사		+	+	
	성취동사		+	-	
	행위동사		-	-	
	상태동사		-	-	

위에서 보듯이 어휘적 상과 형태적 상 간에는 결합 제약은 없지만, 비교적 더욱 자연스러운 결합인 원형 조합(prototypical combination)과 비교적 덜 자연스러운 결합인 비원형 조합(non-prototypical combination)의 차이는 있다. (cf. Andersen, 1994; Tracy, 2007; Montrul, 2009) 이 때 형태적 상의 의미 자질(과거, 종결, 순간, 결과)과 어휘적 상의 의미 자질(종결, 순간, 역동)이 서로 완전히 대응되지 않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종결성’을 기준으로 달성동사와 성취동사를 ‘종결동사’ 그리고 행위동사와 상태동사를 ‘비종결동사’로 구분하도록 하겠다. 이에 따라 ‘종결동사-완료 과거, 비종결동사-불완료 과거’를 원형 조합으로 설정하고, 반대의 결합 관계를 이루는 ‘종결동사-불완료 과거, 비종결동사-완료 과거’를

비원형 조합으로 설정하기로 한다.

정리하면, 스페인어의 완료/불완료 과거 사용에는 어휘적 상과 형태적 상 모두의 영향이 작용한다. 이 때 각각의 상이 지니는 의미 자질이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원형적인 조합과 비원형적인 조합이 구분될 수 있다. 학습자들의 입장에서는 비원형적인 조합에 비해 원형적인 조합을 더욱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이를 먼저 학습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어지는 장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2.4. 스페인어의 상과 관련된 완료/불완료 과거의 용법

우리는 앞서 스페인어 완료/불완료 과거의 사용에 어휘적 상과 형태적 상의 상호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번 절에서는 이러한 상적 특징이 각 과거 형태의 용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만기(2007)에 따르면, 완료 과거는 아래와 같이 어떠한 동작의 완료상을 표현하여 순간적 행위나 정해진 기간 안에서의 완료된 상황을 표현한다.

- (25) a. Nació el 19 de abril de 1931.
- b. Aquel año nos pasó todo lo imaginable.
- c. Entró, dio un beso a su hijo, se quitó el abrigo y los zapatos y se dejó caer en el sofá.

(이만기, 2007: 116)

이에 반해, 불완료 과거는 과거에서의 습관적이거나 반복된 행위, 묘사, 정중한 표현, 조건절의 귀결문, 감정표현 등에서 사용된다. 그리고 주절에 완료 과거가 나타나는 경우, 종속절에서 불완료 과거가 사용되어 과거와 관련된 미래 상황이나 과거와의 동시성을 보여주기도 하며 꿈이나 소꿉놀이와 같이 비실제적인 상황을 나타낼 때 역시 불완료 과거를 사용한다.

- (26) a. Cada vez que la veía, se me alegraba la vida.
- b. La casa tenía un aspecto extraño y era vieja.
- c. ¿Podría hablar un momento con usted?
- d. Yo, en tu lugar, no lo hacía.
- e. Era muy feliz. Creía que nada malo podía ocurrirle.
- f. Me dijo que al día siguiente salía para Madrid.

- g. Yo era el rey y tú eras la reina.
 h. Soñó que de repente se despertaba y llegaba al lado suyo un monstruo.

(이만기, 2007: 116)

García Santos(1993)에서는 이러한 완료/불완료 과거 용법의 차이를 아래와 같이 간단한 기호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27)

	기호	용법	예문
완료 과거	↓	순간적 행위	Un día el profesor se retrasó y comenzamos a las diez.
		정해진 기간 안에서의 완료된 상황	Estuve trabajando allí durante 10 años.
		서술(narration)	Abrí la puerta y v allí un hombre.
불완료 과거	↓↓↓	과거에서의 습관적이거나 반복된 행위	Las clases comenzaban a las nueve.
	○	묘사	Era un hombre alto y delgado; llevaba un traje oscuro y tenía barba.
		정중한 표현	Quería que lo viera usted cuanto antes.
		조건절의 귀결문	Si pudiera, me iba ahora mismo.
		감정표현	Era muy feliz.
두 시제가 함께 쓰이는 경우	—	지속되는 시간 속에서의 과거 행위	Mientras desayunaba me contó una cosas extrañas.
	→	과거와 관련된 미래 상황	Me preguntó si por la tarde podía pasar por mi despacho a comentar unos asuntos.
	↔	과거와의 동시성	Me preguntó qué sucedía.

(cf. 이만기, 2007; García Santos, 1993 재인용)

한편 이재학(2004)에서는 완료 과거의 용법을 ‘행위의 시작/종료’를 표현할 때로, 불완료 과거의 용법을 ‘시간의 지속’을 표현할 때로 단순화시키기에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설명으로는 다음의

두 예문의 차이를 이해하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28) a. Estuve en Los Ángeles todo el mes de febrero.

b. Estaba en Los Ángeles todo el mes de febrero.

(이재학, 2004: 83)

위의 두 문장은 모두 2월 한 달 동안 화자가 LA에 체류하였다는 현실 세계의 동일한 외재적 상황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의 시작/종료’와 ‘시간의 지속’이라는 화용론적 범주에 의한 설명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유효한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은 [±완료]라는 상의 의미론적 차이에 의한 설명이라고 지적하며, 학습자들에게 완료/불완료 과거의 용법에 대해 설명할 때는 [±완료]라는 하나의 단일화된 의미론적 규칙을 제시한 후 다음과 같은 화용론적인 용법들을 숙지시키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다.

(29)

형태	상의 내재적 의미	용법
완료 과거	[+완료]	1. 행위의 시작/종료: La ciudad me gustó desde el primer momento. 2. 지속의 종료: Lo conocí por mucho tiempo, pero ahora no lo conozco. 3. 행위동사 (상태동사의 행위동사로의 변환): Supe la noticia por la tele. 4. 상태동사: (시험을 치르고 나온 후) Lo supe todo. 5. 행동([+초점]): (영화의 움직이는 동영상)
불완료 과거	[-완료]	1. 시간의 지속: No me gustaban las ciudades grandes. 2. 완료된 행위의 지속적 반복: Mi abuela siempre veía la telenovela a las siete. 3. 상태동사: No sabía que el niño era tan grande. 4. 행위동사(지속적으로 반복된 행위): Conocía de vez en cuando a personas que no tragaba. 5. 배경설명([-초점]): (사진의 정지되어 있는 배경)

	<p>6. 과거시점에서의 미래 (완료되지 않은 행위): Linda se dio cuenta de que tenía que vivir fuera del campus.</p> <p>7. 꿈 (비현실성 = 완료되지 않은 행위): He tenido una terrible pesadilla: he soñado que me despertaba y que me encontraba en Corea del Norte.</p>
--	--

(이재학 2004: 83-84)

이와 같이, 형태적 상과 의미적 상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어떻게 한국인 스페인어 학습자들에게 주지시키고 각인시키는가가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3. 스페인어 완료/불완료 과거 습득 및 학습 이론

이 장에서는 한국어 화자의 스페인어 완료/불완료 과거의 습득 및 학습과 관련된 이론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형태소가 상에 우선하여 습득된다는 상 가설과 시제에 우선하여 습득된다는 시제 가설의 차이를 알아보겠다. 이후 L2 습득에 있어서 상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어느 정도로 학습이 가능할 것인지를 두고 완전한 학습이 가능하다는 완전접근가설과 일부분에 한정된 학습만이 가능하다는 부분접근가설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4장에서의 설문조사는 이 가설들을 검증하고자 하는 목표 하에 설계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각 가설의 기본적인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3.1. 상 가설(AH: Aspect Hypothesis) vs. 시제 가설(TH: Tense Hypothesis)

시제와 상의 습득에 관한 논쟁은 어린이들의 모국어 습득에 있어서 시제와 상 중 어느 것이 먼저 습득되는가의 문제를 다루면서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상이 시제에 앞서서 먼저 습득된다고 분석하며 이른바 ‘상 가설(AH: Aspect Hypothesis)’을 내세웠다.⁸ 그러나 상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행되었던 몇몇 연구들에서 상 가설의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실험 결과들이 발견되었고, 이들은 시제-상 습득에 있어서 ‘시제 가설(TH: Tense Hypothesis)’라는 다른 한 축의 입장을 이루었다. 여기에서는 상 가설과 시제 가설이 각각 어떠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3.1.1. 상 가설

상 가설은 형태적 상을 표시하는 형태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어휘적 상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으로, 앞서 살펴본 Vendler(1967)의 어휘적 상 분류 체계에 기반을 두고,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 시제의 구분보다

⁸ ‘상 가설’이라고 통용되기 이전에 이와 같은 입장은 ‘시제 결여 가설(Defective Tense Hypothesis)’ (Andersen, 1986; 1991), ‘상 우선 가설(Primacy of Aspect Hypothesis)’ (Robison, 1990) 등의 서로 다른 명칭으로 표현되었다. (cf. Bardovi-Harlig, 1998)

완료상과 미완료상의 구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Andersen & Shirai(1996), Shirai(1991), Bardovi-Harlig(1999, 2000)에서 언급하는 상 가설의 기본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 (30) a. 과거 시제는 달성동사, 성취동사에 먼저 나타나서 궁극적으로는 행위동사, 상태동사로 확대된다.
- b. 완료상과 미완료상을 구분하는 언어에서 불완료 과거는 완료 과거보다 늦게 나타나고, 불완료 과거는 상태동사에서 시작해서 동작동사, 성취동사, 달성동사의 순서로 나타난다.
- c. 진행상이 있는 언어에서 진행상 표시는 동작동사에서 시작되어 성취동사, 달성동사로 확대된다.
- d. 진행상은 상태동사로 과잉 확대(overgeneralization)되지 않는다.

상 가설에 따르면, 어린 아이는 동사 굴절 형태소를 선택하여 사용할 때에 표현하고자 하는 상황이 ‘떨어지다’, ‘도착하다’, ‘부서지다’와 같은 짧은 순간의 완료적 상황인지, ‘자다’, ‘수영하다’, ‘놀다’와 같은 긴 순간의 미완료적 상황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cf. Ramsay, 1990: 156) 이러한 동사들은 과거 시제로 표현될 때에 완료와 미완료라는 상적 특징에 따라 서로 다른 굴절 형태소와 함께 사용되는데, 스페인어의 경우에는 완료 과거와 불완료 과거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이 때 언어를 습득하기 시작하는 어린이들은 동사 자체의 상적 자질과 굴절 형태소의 상적 자질이 일치하는 ‘종결동사-완료 과거’, ‘비종결동사-불완료 과거’의 원형 조합에 근거하여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고 습득의 단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야 원형 조합을 벗어나 두 상적 자질이 충돌하는 ‘종결동사-불완료 과거’, ‘비종결동사-완료 과거’의 표현도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 상의 우선 습득에 대한 증거로 제시되었다.

Jacobsen(1986)은 스페인어가 모국어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시제와 상 습득의 양상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영어, 프랑스어 등의 다른 언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스페인어 역시 언어 습득 초기 단계에서 [+종결]의 자질을 지닌 동사들에 대해서는 완료 과거가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반면, 상태동사 등 [-종결]의 특징을 보이는 동사들로 표현되는 상황에는 불완료 과거가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Bronckart & Sinclair(1973)는 학습 초기의 어린이들은 과거 상황을 표현할 때 빈도(frequency), 지속(duration) 등과 같은 자질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이 시제에 앞서 습득된다고 설명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Bloom, Lifter & Hafitz(1980)는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는 어휘적 상이 이미 상적 자질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형태적 상은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하며, 동사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시제보다 상이 더 큰 관련성(relevance)을 갖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상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지적했다.

동사와 상의 관련성에 대해 Andersen & Shirai(1994)는 Bybee(1985)를 따라 ‘관련성 원리(Relevance Principle)’라는 개념을 상정하였다. 상이 시제, 법(mood), 일치(agreement)보다 동사의 의미와 더욱 관련이 깊은 요소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시제보다는 상과 관련된 표현을 먼저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 형태가 특정 어휘적 상과 더욱 원형적인 조합을 이루는 것은 학습자들이 동사의 내적인 의미와 가장 비슷한 형태소를 사용한다는 ‘합치 원리(Congruence Principle)’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학습의 단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 비원형 조합을 습득하지 못하고 원형 조합만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일대일 원리(One-to-One Principle)’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때 ‘일대일 원리’란 하나의 형태소가 오로지 하나의 의미와 기능만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국어에서의 상 습득 과정에 대한 연구에 뒤이어 L2 습득과 관련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L2의 상 습득과 관련하여 상 가설의 입장을 가장 명확하게 지지하는 증거는 Robison(1995)의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는 26명의 푸에르토리코 대학생들의 영어 습득 양상을 연구했는데, 이 연구의 특징은 동사의 과거 표현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시제의 표현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실험은 구어 인터뷰(oral interviews)를 통해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총 3,600개 이상의 동사 코퍼스(corpus)를 구축할 수 있었다. 코퍼스 분석 결과, 모든 학습 수준에서 형태소와 어휘적 상 간의 상호 의존성(interdependence)이 뚜렷하게 밝혀졌다. 낮은 수준의 학습자들은 어휘적 상에 따라 종결성이 있는 동사들은 영어의 과거 시제로 표현하였고, 반면에 종결성이 없는 동사들은 현재 시제로 표현했다. 한편 높은 수준의 학습자들은 동사 자체의 상적 특징에서 벗어나 맥락에 맞게 과거와 현재 시제를 각각 선택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페인어의 L2 습득에서는 특히 Andersen(1986)의 영어권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L2 스페인어 습득 연구가 이후 많은 연구들의 본보기(example)가 되었다. 그는 8살과 12살의 어린이 두 명을 실험 대상으로 두 번에 걸쳐 종적 연구(longitudinal study)를 시행하였다. 각각의 실험 시기는 두 어린이가 푸에르토리코에서 살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그리고 또 2년이 지나 총 체류 기간이 4년이 되었을 때였다. 첫 번째 실험에서 아이들은 종결성이 있는 동사들만 완료 과거로 표현하였고 종결성이 없는 비종결 동사들은 굴절 형태소를 사용하지 않고 동사원형의 형태로만 사용하였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모든 동사가 어휘적 상을 막론하고 완료 과거와 불완료 과거의 두 형태로 모두 표현되었다. 이를 통해 동사에 내재되어 있는 상적 대조가 시제와 상의 습득 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후속 연구인 Andersen(1991)에서는 다음과 같이 스페인어의 시제 굴절 형태소와 어휘적 상의 관계를 바탕으로 스페인어 과거 표현의 습득 발달 과정을 8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31) Andersen(1991)의 8단계 과거 습득 발달 과정

- a. 1단계: 현재 시제(또는 굴절되지 않은 동사원형)가 모든 동사에 사용된다.
- b. 2단계: 완료 과거가 달성동사에 사용된다.
- c. 3단계: 불완료 과거가 상태 동사에 사용된다.
- d. 4단계: 완료 과거가 성취동사에도 사용되며 불완료 과거가 행위동사에도 사용된다.
- e. 5단계: 불완료 과거가 성취동사에 사용되기 시작한다.
- f. 6단계: 완료 과거가 행위동사에 사용되기 시작한다.
- g. 7단계: 불완료 과거가 달성동사에 사용되기 시작한다.
- h. 8단계: 완료 과거가 상태동사에 사용되기 시작한다.

위에 따르면, 결국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완료 과거는 완료성이 가장 명백한 동사부터 완료성이 가장 미미한 동사의 순서(달성동사, 성취동사, 행위동사, 상태동사 순), 그리고 불완료 과거는 그 반대의 순서(상태동사, 행위동사, 성취동사, 달성동사 순)로 호응하여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여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32) Andersen(1991)에 따른 동사 굴절 형태소 습득 단계

단계	상태동사	행위동사	성취동사	달성동사
1	현재	현재	현재	현재
2	현재	현재	현재	완료 과거
3	불완료 과거	현재	현재	완료 과거
4	불완료 과거	불완료 과거	완료 과거	완료 과거
5	불완료 과거	불완료 과거	완료/불완료	완료 과거
6	불완료 과거	완료/불완료	완료/불완료	완료 과거
7	불완료 과거	완료/불완료	완료/불완료	완료/불완료
8	완료/불완료	완료/불완료	완료/불완료	완료/불완료

(Montrul & Salaberry, 2003: 53)

자연스러운 언어 사용의 환경에서 L2를 습득한 Andersen(1986)의 실험 대상들과는 달리, 교실 수업 상황에서 L2를 습득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그 중 Ramsay(1990)는 이전의 연구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인위적인 교육을 받은 학습자들 역시 어휘적 상의 종류에 따라서 완료 과거와 불완료 과거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양상을 보였음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과거에 일어난 상황을 표현할 때 모든 동사를 현재 시제로 굴절하여 사용하다가 특정 순간부터는 완료성이 내포된 종결동사들만을 완료 과거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30명의 영어권 스페인어 학습자들을 실력에 따라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자료로는 어린이용 동화책이 사용되었다. 동화책은 총 10장의 그림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그림에는 빈칸이 뚫려 있는 텍스트가 제시되었고 실험 대상자들에게는 주어진 빈칸에 알맞은 동사의 형태를 사용하여 텍스트를 완성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실험의 결과, 2단계~3단계 그룹에 속하는 학습자들이 종결동사를 불완료 과거로 표현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은 모든 종결동사를 현재 시제 혹은 완료 과거로 굴절하여 사용함으로써 상 가설의 입장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Andersen & Shirai(1994)에 따르면, 과거 시제의 표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에는 형태적 상, 어휘적 상, 그리고 담화구조(grounding) 의 세 가지가 있다.⁹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충돌할

⁹ 본 연구에서는 grounding이라는 언어학적 용어를 번역함에 있어서 ‘담화구조’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사실상 담화구조와 grounding은 완전히 일치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전경(foreground)과 배경(background)의 구분은 담화구조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접지’ 또는 ‘고정화’라는 사전적 표현보다는 의미

때에 학습자가 동사 형태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어휘적 상이라고 한다. 학습자들이 동사가 내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상적인 특징에 따라 동사의 굴절 형태소를 선택하여 사용한다는 이들의 주장 역시 상 가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다.

또한 Bardovi-Harlig(1998)은 이른바 담화 가설(Discourse Hypothesis)을 주장하며 영어의 담화 문맥에 따른 동사의 시제 및 상의 선택을 검증하였다. 담화 가설이라는 용어는 Bardovi-Harlig(1998)에서 처음 사용되어 현재 L2 형태소 습득과 담화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담화 가설에 따르면, 동사의 종결성에 따라 전경과 배경으로의 쓰임 역시 달라진다. 영어의 경우, [+종결]의 자질을 지니는 동사는 전경으로 사용되어 단순 과거(simple past) 시제로 사용되는 반면 [-종결]의 자질을 지니는 동사는 배경으로 사용되어 기본 형태(base form)인 현재 시제로 사용된다. Bardovi-Harlig(1998)에 따르면, 영어에서는 구어와 문어에서 일관되게 달성동사, 성취동사, 행위동사, 상태동사의 순서로 과거 시제가 사용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 언어에서 과거 시제의 동사 형태를 선택하는 데에는 담화구조뿐 아니라 어휘적 상 역시 작용함을 보임으로써, 이 연구는 담화 가설에 더불어 상 가설 역시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3.1.2. 시제 가설

앞서 살펴본 상 가설에 대한 반론으로는 Dietrich et al.(1995)의 유럽과학재단(European Science Foundation) 코퍼스 분석이 있는데, 이들은 어휘적 상과 문법적 형태에는 어떠한 관련성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Salaberry(1999)는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는 어휘적 상과 관계 없이 과거 시제 동사 형태소의 습득이 이루어진다는 이른바 ‘시제 가설(TH: Tense Hypothesis)’을 주장하였다.

특히 시제 가설은 L2의 습득에 있어서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Weist et al.(1984)를 따라 Salaberry & Shirai(2002)는 L1의 습득에서 상이 시제보다 먼저 습득된다는 상 가설 관련 연구들과는 반대로, L2의 습득에서는 학습자들이 상 보다 시제를 먼저 습득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의에 입각하여 Salaberry(2000)에서 제시한 시제 가설에 따른 L2 스페인어의 과거 표현 습득 발달 과정은 아래와 같다.

의 전달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정보구조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33) Salaberry(2000)의 5단계 과거 습득 발달 과정

- a. 1단계: 모든 동사가 현재 시제 혹은 굴절되지 않은 원형으로 사용되며 과거 시제는 사용되지 않는다.
- b. 2단계: 과거 시제는 오로지 완료 과거로만 표현된다. (불완료 과거의 사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 c. 3단계: 불완료 과거가 한정된 일부의 상태동사와 사용된다.
- d. 4단계: 불완료 과거가 완료성이 없는 동사와 완료성이 있는 동사 모두와 사용되기 시작한다.
- e. 5단계: 모든 동사가 불완료 과거와 완료 과거로 모두 사용된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 가설과 시제 가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 발견된다. 상 가설에 따르면 초급 학습자들의 과거 시제 사용 양상에서는 완료 과거와 불완료 과거가 모두 발견되고 각각의 형태는 어휘적 상과의 일치 관계에 호응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시제 가설은 초급 학습자들의 과거 시제에는 불완료 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완료 과거만이 사용된다고 분석한다.

Hasbún(1995)는 80명의 영어권 스페인어 학습자의 작문을 분석하여 상 가설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실험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영화 ‘모던 타임즈(Modern Times)’의 일부분을 2번 시청하고 영화의 내용을 요약하는 작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완료 과거의 사용이 종결동사부터 비종결동사로 확대되는 양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학습 초기 단계의 실험 대상자들은 완료 과거를 달성동사가 아닌 상태동사와 가장 많이 호응하여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상 가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였다.

스페인어의 완료 과거가 종결동사와 비종결동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사용된다는 것은 Salaberry(1999)의 연구에서도 발견되었다. 이 연구는 20명의 대학생 영어권 스페인어 학습자들과 일부의 원어민 화자들을 대상으로 총 두 번에 걸쳐 진행되었다.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 사이에는 두 달의 기간이 있었고, 실험 대상자들은 Hasbún(1995)에서와 같이 영화 ‘모던 타임즈’의 일부를 보고 스페인어로 과거 시제를 표현하였다. 이 연구의 차이점은 작문이 아닌 역할극(role-play)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실험의 결과, 가장 낮은 수준의 학습자들은 불완료 과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학습자들이 실험 실시 2주 전에 불완료 과거에 대한 수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것이 주목할 만 하다. 게다가 이 학습자들은 비원형 조합인 ‘상태동사-완료 과거’의 사용 역시 보였기 때문에 상 가설에 반하는 실험 결과로 볼 수 있다.

정리하면, 시제 가설은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스페인어의 과거 시제를 표현하게 될 경우, 이들은 완료 과거를 과거 시제의 기본 형태(default marker)로 인지하고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 상 가설에서 중요시하는 동사의 어휘적 상은 과거 시제 형태의 선택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학습자들은 모든 동사에 대해 완료 과거를 사용하다가 학습의 단계가 발달하면서 원형 조합에서 비원형 조합의 순서로 불완료 과거를 사용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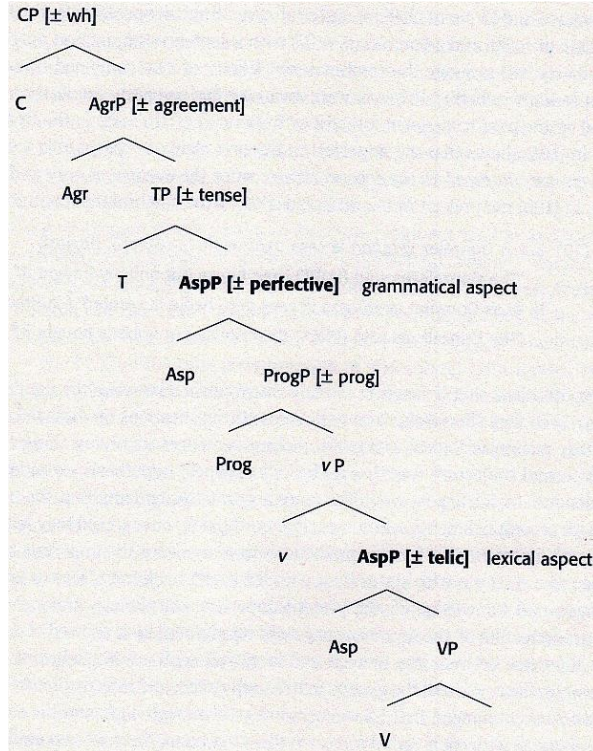
3.2. 완전접근가설(Full Access Hypothesis) vs. 부분접근가설 (Partial Access Hypothesis)

스페인어 완료/불완료 과거의 습득 및 학습과 관련된 또 다른 가설로는 완전접근가설과 부분접근가설이 있다. 이 두 가설은 L2 습득에서 기능 범주(functional category)와 이와 관련된 형식 자질들(formal features)이 습득되는 정도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의 차이를 보인다.

Montrul & Slabakova(2002)는 L2 학습자가 스페인어의 시제와 상에 있어서 형태와 의미의 관계를 어떻게 습득하는가를 완전접근가설과 부분접근가설을 통해 분석했다. 상을 AspP(Aspect Phrase)에 투사되는 기능 범주로 설정하고, 보편문법(UG: Universal Grammar)의 관점에서 모국어와 L2 학습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상이라는 개념을 이와 관련된 구를 설정함으로써 설명하고자 하는 통사론에서는 양성혜(2013)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그 동안 동사나 시제 범주 안에서 이해되던 상을 하나의 기능 범주로서 인식하고 이를 이해함에 있어서 혼돈을 낳을 수 있는 어휘적 상과 형태적 상이 위계적으로 어떻게 투사되는지 보여줌으로써 언어의 보편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이와 관련하여, Montrul & Salaberry(2003)는 다음과 같은 수형도를 제시한다.

(34)



(Montrul & Salaberry, 2003: 57)

위 구조에서 두 개의 AspP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 아래의 AspP는 어휘적 상과 관련되어 있다. 동사구(VP: Verb Phrase)와 더욱 가까운 이 AspP에서는 동사의 어휘적 자질인 [±종결]을 점검한다. 또 다른 AspP는 동사구와 시제구(TP: Tense Phrase) 사이에 위치한다. 여기에서는 완료/불완료 과거에서 외현적으로(overtly) 드러나는 굴절 형태소를 통해 [±완료]가 점검된다. 즉 어휘적 상보다 형태적 상이 더욱 상위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문장 전체의 상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형태적 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Montrul & Slabakova(2002)에서는 영어권 스페인어 중급 및 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학습자들의 모국어인 영어와 목표어인 스페인어 사이에는 매개변인적인 차이점이 존재하며, 이 차이점으로 인해 학습의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차이점을 두고, L1에는 없는 L2의 기능 범주와 이와 관련된 자질들을 완전히 학습할 수 있다는 관점의 입장이 완전접근가설이며, 이와는 반대로 L2를 완전히 학습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L1에 존재하는 기능 범주 및 형식 자질에 한해서 부분적으로만 학습이 가능하다는 관점의 입장이 부분접근 가설이다. 이어서 두 가설의 기본적인 입장이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지를 파악해보겠다.

3.2.1. Schwartz & Sprouse(1996)의 완전접근가설

Chomsky(1995)의 최소주의 프로그램(Minimalist Program)에 따르면 보문소(Complementizer), 시제(Tense), 일치소(Agreement), 한정사(Determiner), 부정어(Negation) 등의 기능 범주(functional categories)는 일련의 형식 자질(formal features)을 구성한다. 기능 범주와 형식 자질은 각각의 언어마다 서로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에 언어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L2 학습자가 목표어의 특정 표현을 습득하는 것은 크게 아래의 세 가지 유형 중의 하나에 속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 (35) a. 모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기능 범주 자체를 학습해야 하는 경우
- b. 기능 범주는 동일하지만, 형식 자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형식 자질을 학습해야 하는 경우
- c. 기능 범주, 형식 자질 모두 동일하지만 문법 형태가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아서 그 미묘한 차이를 학습해야 하는 경우

L2 습득에 있어서 이러한 기능 범주와 형식 자질이 완전히 학습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인다. Schwartz & Sprouse(1996)와 같은 학자들은 새로운 기능 범주와 이에 관련된 자질들은 완전히 학습이 가능하다는 완전접근가설을 주장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가설은 사실상 ‘완전 전이/완전 접근 가설(Full Transfer/Full Access Hypothesis)’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를 간략하게 일컬어 ‘완전접근가설’이라고 칭하도록 하겠다. 완전접근가설의 주요 주장은 L2 습득의 초기 단계는 모국어 습득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음성학적(phonetic)인 요소들을 제외한 모국어의 모든 문법 체계는 L2 습득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 때, 추상적인 통사 자질인 기능 범주와 형식 자질도 함께

중간언어(interlanguage)의 문법 체계에 전이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관점을 스페인어 완료/불완료 과거의 습득 및 학습에 적용하여 보면, 학습자들은 스페인어의 과거 시제를 학습하기에 앞서서 스페인어 동사의 굴절 형태소와 관련된 기능 범주와 이들의 통사적 작용에 관해서 추상적인 관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완료 과거 또는 불완료 과거라는 하나의 형태가 어떠한 통사 작용을 거쳐 완료와 미완료라는 특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지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즉 모국어 혹은 먼저 습득한 외국어의 문법 체계를 바탕으로 이들 언어에 존재하는 형태소와 같은 자질들은 이미 인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학습의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지만, 목표어에서 새롭게 접하게 되는 기능 범주의 형식 자질들은 학습을 통해 습득해야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완전접근가설에서는 학습을 통해 이러한 목표어의 새로운 자질들을 완전히 습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는 점이다.

Montrul & Slabakova(2002)는 스페인어를 학습하는 영어권 화자들의 경우, 완전접근가설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학습의 단계를 거칠 것이라고 제안한다.

(36) 완전접근가설

완전접근가설	[±완료] 상적 의미 대조	중급	고급
		불가능	가능

위에서 보듯이 [±완료]라는 상적인 의미의 대조는 학습 단계에 따라 뚜렷하게 구분된다. 중급 학습자의 경우, 과거 형태와 관련된 미묘한 상적 의미 차이를 인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꾸준한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전접근가설에서 주장하듯이 이렇게 추상적인 특징들도 학습을 통하면 완전히 습득이 가능하므로 고급 단계의 학습자들은 스페인어 과거 형태의 의미적 대조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3.2.2. Beck(1998)의 부분접근가설

부분접근가설이 완전접근가설과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은 ‘학습의 불완전성’이다. 많은 L2 외국어 학습자들의 경우, 아무리 학습이 장기화되고 학습의 단계가 발전되어도 원어민 수준의 언어 구사 능력을 갖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심지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에 대해 부분접근가설에서는 보편문법의 일부분(subpart)은 중간언어 혹은 L2의 문법 체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완전한 학습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Beck(1998)은 L2의 일부 자질들은 영구적으로, 즉 학습의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손상되어 있는(impaired)”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손상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학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Hawkins & Chan(1997)은 모국어에 존재하는 자질에 한하여 이와 일치하는 L2의 자질들만이 학습 가능하고, 모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L2의 자질들은 학습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입장을 스페인어의 완료/불완료 과거에 적용하여 Montrul & Slabakova(2002)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37) 부분접근가설

부분접근가설	[±완료] 상적 의미 대조	중급	고급
		불가능	불가능

부분접근가설에서는 중급과 고급 학습자들 모두 [±완료]라는 상적인 의미의 차이를 학습하지 못 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영어의 과거 시제 형태에 [-완료]라는 자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어의 과거 형태는 항상 [+완료]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입장에서 과거를 통해 불완료([-완료])를 표현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접근가설의 입장은 일견 굉장한 설득력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된다. 대부분의 중간언어는 비문법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전접근가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비문법성은 목표어의 어휘(lexicon)에 대한 지식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지, 극복이 불가능한 문제가 아님을 지적한다.

3.2.3. Montrul & Slabakova(2002)의 입장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 of 기본적인 틀로 활용될 Montrul & Slabakova(2002)의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입장 중에서 완전접근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Schwartz & Sprouse(1994, 1996)와 White(1985)를 따라 모국어의 기능 범주와 형식 자질이 L2의 문법 체계에 전이되는 것이 사실이나, L2에만 있는 기능 범주와 형식 자질도

잠정적으로 완전히 습득 또는 학습이 가능할 것임을 주장한다.

따라서 고급 단계의 스페인어 학습자들은 완료/불완료 과거의 형태에 대한 학습은 물론이고 의미적인 해석까지 문제 없이 습득 가능할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중급 학습자들은 고급 학습자들에 비해 모국어의 문법 체계에 더욱 의존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완료/불완료 과거와 관련된 미묘한 의미적인 상적 대조까지는 학습이 진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이와 더불어 의미에 앞서 학습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의 측면에서도 중급 학습자들은 고급 학습자들에 비해 더욱 부정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정에 근거하여 영어가 모국어인 스페인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중급에서 고급으로 학습의 단계가 발전할수록 형태(morphology)는 물론이고 의미(semantic)에 있어서까지 이해의 정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완전접근가설을 검증하고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3.3. 완료/불완료 과거 관련 특수 용법에 대한 학습

앞서 살펴본 스페인어 완료/불완료 과거의 습득 및 학습에 관한 가설들은 다양한 면에서 서로 입장의 차이를 보이지만, 각 가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불완료 과거가 완료 과거에 비해 늦게 학습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완료 과거의 용법에 비해 불완료 과거의 용법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 특수 용법으로 다루게 될 용법들은 아래와 같다.

- (38) a. Ayer me dijo que mañana estaba ocupada.
- b. Si tuviera dinero, me compraba una casa.
- c. Se comía bien en este restaurante.

위와 같이 불완료 과거가 다양한 용법을 갖는 것은 불완료 과거의 시제성과 총칭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 특징들에 대해 소개하고, 이러한 특징이 특수 용법 학습과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3.1. 불완료 과거의 시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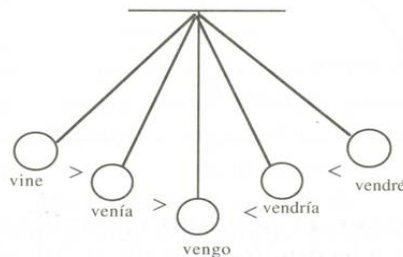
이재학(2012: 67)에서는 아래와 같이 불완료 과거(cantaba)와

가능법(cantaría)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이 두 형태는 [-시제]라는 자질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힌다:

King(1992)은 가능법이 어느 시제에도 속하지 않은 [-시제]라고 주장하였다. 즉 그는 가능법은 [-시제]로서 발화시 화자의 주관적 관점이 현재, 과거, 미래 시제의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으며 항상 가상의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직설법 불완료 과거가 가능법과 호환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불완료 과거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즉 가능법과 마찬가지로 직설법 불완료 과거는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화자의 주관적 관점이 [-시제]로써 발화시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상의 상황을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이러한 불완료 과거의 시제성에 대해 양성혜(2013)는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왜 직설법 불완료 과거가 가능법과 유사한지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스페인어의 불완료 과거가 [-시제]라는 점을 연구한 이재학(2012)을 López García(2005)의 틀에 근거하여 인지언어학으로 확장시킨다. López García는 아래와 같은 추 모형을 통해 스페인어의 다섯 가지 시제(완료 과거 vine, 불완료 과거 venía, 현재 vengo, 가능법 vendría, 미래 vendré)를 인지적으로 설명한다.

(39)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완료 과거의 경우 추의 이동이 정점에 이르게 되어 운동성(movement)이 없이 발화 시점과 똑 떨어진 과거를 지시한다. 그러나 불완료 과거는 정점에 있는 완료 과거로부터 출발 후 이동하여 현재 혹은 심지어 미래의 표현까지 아우를 수 있게 되므로,

[-시제]의 특징을 지닌다. 이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40) Me {bañé/bañaba} casi todos los días en El Hon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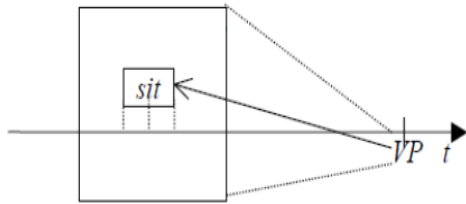
(RAE, 2011: 147)

(40)은 하나의 상황을 완료 과거와 불완료 과거라는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여 미묘한 의미적 차이를 보이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다. [-시제]의 자질을 지녀 시제의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불완료 과거 *bañaba*가 쓰이게 되면 동사를 통해 표현되는 행위에 대한 반복적 해석(*iterative interpretation*)이 가능하다. 이 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목욕하다’라는 행위는 기간의 제한 없이 무한정적으로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발화 시점에서 완전히 떨어진 정점에 다다른 과거를 지시하는 완료 과거 *bañé*의 경우, 반복적인 행위이지만 한정적인 기간 내에 그 반복이 완료되는 상황을 표현한다. 즉, 하나의 행위가 일정한 횟수 속에서 반복되어 마치 일정한 행위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표현할 때 완료 과거가 사용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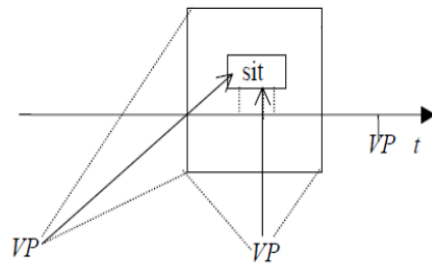
불완료 과거가 비시제적 자질을 갖는다는 이러한 설명은 Langacker(1991)의 시간선 모형(*timeline model*)과 구조적 세계 모형(*structured world model*)을 활용하여 스페인어의 완료 과거와 불완료 과거를 연구한 Doiz-Bienzobas(2002)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¹⁰ 완료 과거는 시간의 축에 고정되어 실제 과거 상황을 표현하는 반면에 불완료 과거는 과거의 시점(*viewpoint*)을 통해 인식되기는 하지만 시간의 축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¹⁰ 시간선 모형은 단상(G), 즉 발화 사건과 그 환경 개념을 소환한다. 발화 사건이 일어나는 곳은 직접 실상(*immediate reality*)이며 이 관점에서 화자와 청자는 표현의 의미를 개념화한다. 이 기초 위에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질 수 있다. 또한, 구조적 세계 모형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에 의하면 세계는 특별히 구조 지어져 있어서 어떤 종류의 사건은 일어날 수 있는데 반해 다른 사건들은 불가능하다. 가능성의 영역에서도 사건들의 지위는 서로 다르다. 일부는 부수적이어서 특별한 환경에서 임시로 발생한다. 다른 한편 어떤 사건들은 세계 구조의 직접적인 표상이다. 어떤 의미로 이 사건들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해서 적절한 전제조건이 만족되면 언제나 일어나리라 기대할 수 있다. (cf. Langacker, 1991)

(41) 완료 과거 분석틀



불완료 과거 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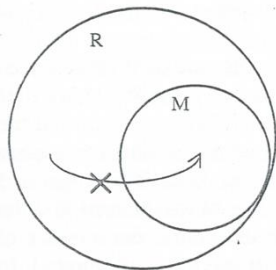


(Doiz-Bienzobas, 2002: 3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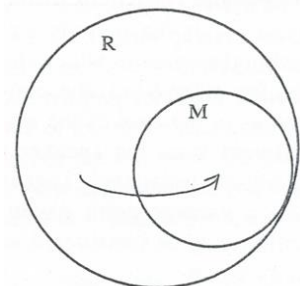
위의 그림을 보면, 완료 과거의 시간선 모형은 상황(sit)이 발생한 시간보다 앞선 시점(VP)에서 과거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인 반면에 불완료 과거의 시간선 모형은 상황이 발생한 시간보다 이전의 시점, 동일한 시점, 그리고 앞선 시점 모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다.

또한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완료 과거는 화자가 존재하는 물리적 공간 R(reality space)을 벗어난 화자의 정신적 공간 M(mental space)에 접근이 가능하지만 완료 과거는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대조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42) 완료 과거 분석틀



불완료 과거 분석틀



(Doiz-Bienzobas 2002:323-324)

위의 두 구조를 활용하면 우선 시간선 모형을 통해 불완료 과거는 완료 과거와 대조적으로 [+과거]에 한정되지 않고 [-시제]이며 [-완료]인 자질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구조적 세계 모형을 통해서도 불완료 과거가 화자의 실제 공간을 벗어난 정신적 공간의 표현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다양하고 복잡한 완료/불완료 과거의 용법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43) 시간선 모형에 근거한 설명

a. Juan estuvo aquí la semana pasada / *ahora / *mañana.

- 완료 과거의 [+시제] 자질

b. Ayer me dijo que el otro día / hoy / mañana estaba ocupada.

- 불완료 과거의 [-시제] 자질

(44) 구조적 세계 모형에 근거한 설명

a. Si tuviera dinero, me compraba / *compré una casa.

b. Soñé que ganaba / *gané el premio Nobel de literatura.

c. ¡De qué buena gana me bebía / *bebí un vaso de agua!

예문 (43)은 시간선 모형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는 완료/불완료 과거의 용법이다. (43a)의 완료 과거는 [+시제]와 [+과거]의 자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한정된 시간 내에서만 가능한 표현이다. 따라서 현재 혹은 미래를 지칭하는 부사 표현과는 같이 쓰일 수 없게 된다. 반면 불완료 과거는 [-시제] 자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에 상관 없이 모든 시제 표현과 양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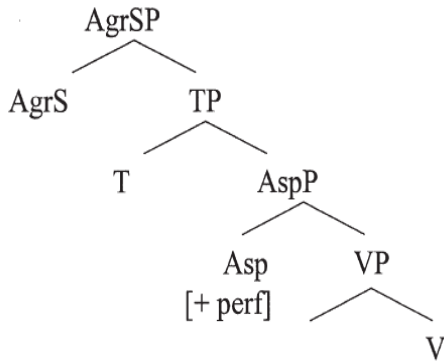
(44)는 화자의 물리적 공간인 R을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장들이다. (44a)는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한 사실을 가정하는 표현인데 이 때 불완료 과거는 화자의 물리적 공간 외에 존재하는 정신적 가상의 공간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문이 되지만, 완료 과거는 비문이 된다. (44b)는 꿈이라는 공간 안에서의 표현으로, 이 역시 마찬가지로 화자의 물리적 공간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완료 과거는 불가능하지만 불완료 과거는 꿈의 공간에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 (44c)는 소원의 표현이며 여기에서도 같은 분석틀을 적용하여 불완료 과거만이 소원의 상황이라는 가상의 정신적 공간에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정문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3.3.2. 불완료 과거의 총칭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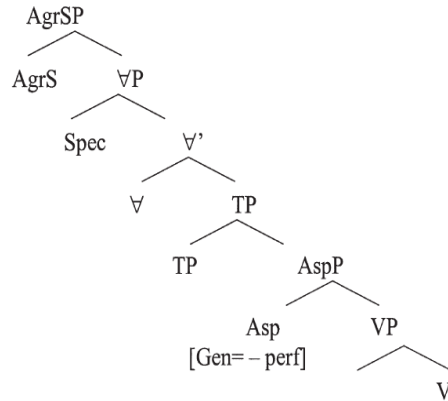
Montrul(2002)에 따르면, [±완료]라는 자질은 스페인어의 특정한 무인칭 구문(impersonal constructions)의 완료/불완료 과거 사용에 따른 해석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Etxepare & Grohmann(1999)에서는 스페인어의 동사원형(infinitive)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래와 같이 스페인어의 불완료 과거는 시제구(TP: Tense Phrase)의 상위에 보편 양화사구(∇P: Universal Quantifier Phrase)를

지닌다고 설명한다.

(45) 완료 과거



불완료 과거



(Slabakova & Montrul, 2003: 177)

위의 구조에 따르면 만약 불완료 과거로 표현된 동사의 주어가 VP의 Spec으로 이동한다면 총칭적인 해석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TP의 Spec 자리로 이동하게 되면 구체적인 해석을 갖게 된다. 한편 완료 과거의 구조에는 VP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완료 과거의 주어는 VP의 Spec 자리에 대한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완료 과거는 총칭적 해석이 아닌 구체적 해석만을 유일하게 지니게 된다. 이를 예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46) Un dinosaurio comía algas.

총칭적/구체적 해석

(47) Un dinosaurio comió algas.

*총칭적/구체적 해석

(Montrul, 2002: 43)

위에서 보듯이, 불완료 과거로 쓰인 (46) 예문은 두 가지 방식의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우선 공룡을 하나의 종(species)으로 보는 총칭적 해석이 가능하며, 한편 주어를 특정한 한 마리의 공룡으로 보는 구체적 해석 역시 가능하다. 그러나 완료 과거로 쓰인 (47) 예문은 총칭적 해석은 불가능하고 구체적 해석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조를 보인다.

Montrul(2002: 43)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러한 총칭적/구체적 해석의 차이는 무인칭 se 구문, 자의적 2인칭 단수(arbitrary second person singulars) 구문, 자의적 1인칭 복수(arbitrary first person plurals) 구문, 동사 원형 구문 등의 다양한 스페인어 무인칭 구문에 적용된다.

과거는 [-완료]라는 기본적인 대조성을 갖는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불완료 과거는 [-완료]를 넘어서서 [-과거, -시제]라는 특유의 시제성을 갖기 때문에 과거에 한정되지 않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는 표현이 가능함을 익혀야 한다. 또한 화자가 속해 있는 실제적인 상황을 벗어난 비실제적인 표현 역시 불완료 과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그리고 불완료 과거에는 보편 양화사구가 상정되어 총칭적인 해석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완료/불완료 과거 사이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이해 및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국인 스페인어 학습자들이 이러한 사항들을 어느 정도 습득 및 인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4. 한국인 스페인어 학습자의 완료/불완료 과거 습득 및 사용 양상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본 장에서는 한국인 스페인어 학습자의 완료/불완료 과거 습득 및 사용 양상 분석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우선, 설문을 구성하는 총 4개의 Task 각각의 검증 목표에 중점을 두고 설문의 목적을 밝힌 후 설문의 설계 방식을 구체적인 설문 문항과 함께 살펴볼 것이다. 이후 실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교육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다.

4.1. 설문목적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인 스페인어 학습자의 완료/불완료 과거 습득 및 사용 양상 분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수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학습자들의 수준별 스페인어 완료/불완료 과거 구사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조사의 실시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특히, 설문 결과가 유의미하게 분석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검증 목표에 초점을 두고 설문 문항을 설계하였다.

먼저, 기존 영어권 화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상 가설 vs. 시제 가설’의 논의가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적용되었을 때 어떤 입장에 가까운 결과를 보이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둘째, 학습자들이 완료/불완료 과거의 형태적 상을 통해 나타나는 단순한 용법 차이를 넘어서 동사의 어휘적 상과 관련된 미묘한 의미적인 차이까지 학습했는지를 파악하여 ‘형태-의미 관계’ 학습의 발달 과정이 완전접근가설과 부분접근가설 중 어느 가설의 입장과 부합하는 양상을 보이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셋째, 학습의 정도가 완료/불완료 과거의 기본적인 용법부터 특수한 용법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진행되었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모국어 화자와 가까운(native-like) 구사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의 교육이 필요할 것인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넷째, ser와 estar의 경우, 두 동사의 문법적인 의미 차이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파악한 후 과거 시제에서 어휘적 상과 형태적 상 중 어느 것에 더욱 중점을 두고 문장을 이해 및 표현하였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¹¹

¹¹ ser와 estar를 설문에 포함시킨 이유는 이 두 동사가 완료/불완료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계된 설문조사는 총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학습자들은 학습 기간 및 스페인어권 국가 체류 경험을 기준으로 중급과 고급으로 나누었으며, 통제 그룹으로 원어민 화자를 대상으로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본 설문의 주제가 과거 시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스페인어의 과거 시제를 배우지 못한 초급 학습자들은 설문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과거 시제에 대한 교육을 받은 중급 이상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각 그룹별 특징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50)

	중급	고급		원어민
학습 기간	4년 이하 (평균 2년)	5년 이상 (평균 7년)	평균 나이	평균 23.5세
설문자 수	66	62	설문자 수	22

설문지는 크게 ‘기본 인적 사항’과 ‘Task 1-4’의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우선 ‘기본 인적 사항’ 부분에서는 본인의 모국어를 밝히고 스페인어 학습 기간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설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영어권 화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그룹을 나눌 때에 학습 기간을 중점적인 기준으로 삼으며 스페인어권 국가 체류 경험과 스페인어 능력 시험 점수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다.¹² 본 설문지의 초점이 되는 ‘Task 1-4’에서는 각 Task 별로 별도의 지시문을 작성하여 학습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실제 설문지 양식은 <부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본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첫째, 구어 테스트가 아닌 지필형 테스트를 시행했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즉각적인

가지로 상적 대조를 이루기 때문이다. Vanpatten(2010)은 Schmitt(1996)와 Roby(2007)의 분석을 활용하여 *ser*와 *estar*라는 계사 동사의 학습은 그들의 상적 자질을 학습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ser/estar*는 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상태동사라는 특성으로 인해 어휘적 상과 형태적 상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설문의 한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¹² 설문 대상자의 기본 인적 사항을 분석해 본 결과, 중급의 경우 대다수가 B1 등급을, 고급의 경우 C1와 C2 등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학습 기간이 4년 이하이지만 C1 이상의 등급을 보유한 특수한 경우는 중급이 아닌 고급으로 포함하여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반응을 통한 스페인어 구사 능력을 측정하지 못했다. 둘째, 교실 상황에서 스페인어를 배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자연적인 L2 습득 과정을 살펴볼 수 없었다. 셋째, 학습자 그룹을 나누기가 다소 애매했다. 어떤 학습자들은 학습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뛰어난 구사 능력을 보이기도 했으며, 반대로 굉장히 오랜 시간 스페인어를 배웠지만 완료/불완료 과거의 사용이 원활하지 못한 학습자들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설문 대상자들이 이미 완료 과거와 불완료 과거라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학습자들이 기본적으로 두 형태를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정답률이 매우 낮은 학습자는 찾아 보기 힘들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설문조사가 지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상 습득 연구가 기존에 많지 않았다. 일례로, 상태동사와 관련하여 한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Soulé(2014)의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는 설문조사의 방법이 구어 인터뷰였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지만, 동사의 종류가 상태동사 중에서도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gustar*, *encantar* 등)로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인 학습자의 상 습득 양상을 보여주는 연구로 보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둘째, 150명의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었다. 설문 대상자들의 학습 정도와 설문 문항에 대한 정답률이 비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각 Task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 결과는 4.3에서 살펴볼 것이다.

4.2. 설문설계

본 설문지의 Task 1-4는 한국인 스페인어 학습자들의 완료/불완료 과거 습득 및 사용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Task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Task 1-2는 완료/불완료 과거의 상적 특징의 습득 양상을 검증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한편 Task 3-4는 효과적인 교수법 제안을 위해 학습자들의 이해 및 학습 정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한 차원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Task 1은 Salaberry(1997)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한 Montrul & Slabakova(2002)를 따라 문제를 제시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과거 표현이 요구되는 동사에 완료 과거와 불완료 과거의 두 형태를 모두 제공하고 둘 중에서 더욱 적합한 형태를 고르도록 하는 문제 유형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할 경우, 과거 형태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지만 유추를 통해 높은 정답률을 보이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설문에서는 중간 중간 빈칸이 나 있는 글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 넣는 CT(Cloze Test)의 형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Task 1의 문제들은 어휘적 상과 형태적 상이 일치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Montrul & Slabakova(2002)에서는 이를 Morphology Test라고 칭했고 본 논문에서도 이 명칭을 따르도록 하겠다.

Task 2는 Montrul & Slabakova(2002)에서 사용된 SCJT(Sentence Conjunction Judgment Task)를 수정·보완하여 설계되었다. 주어진 문장들은 학습자들이 스페인어의 완료/불완료 과거가 내포하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들을 인지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이었다. 즉 어휘적 상과 형태적 상이 일치하지 않는 문장들을 제시한 것이었고, Montrul & Slabakova(2002)는 이 문항을 Semantic Test라고 명하였다. 이들의 Semantic Test는 상태동사, 성취동사, 달성동사의 세 그룹에 속하는 동사들을 활용하여 각 14문항씩 총 42문항을 제시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뒤의 Task들과의 문항 수 조정을 위하여 각 동작류 별로 대표 문항을 선별하여 총 23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Semantic Test에서 주어진 각 문장들은 ‘그리고(y)’ 또는 ‘그러나(pero)’로 연결된 2개의 등위절(coordinated clauses)로 구성되었고, 학습자들이 문장의 맥락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적합한지 그리고 얼마나 어색한지를 ‘-2(매우 어색)~2(매우 적합)’를 통해 표기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다.

Task 3는 Slabakova & Montrul(2003), Guijarro-Fuentes(2005) 그리고 Cuza-Blanco(2008)에서 사용된 TVJT(Truth-Value Judgment Task)의 일부 문항들과 한국인 학습자들의 스페인어 완료/불완료 과거의 특수 용법과 관련된 학습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TVJT는 상황 제시를 통해 학습자들이 문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단락의 의미와 문장의 문법성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완료/불완료 과거의 특수 용법과 이 용법들의 형태-의미 관계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지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Task 4에서는 문제로 제시되는 동사를 스페인어의 계사(copula) 동사인 ser와 estar에 한정하여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문항들을 하나의 텍스트를 통해 구성하였다. 우선 텍스트의 시제를 현재로 설정하여, ser와 estar의 변화형을 모두 제시한 후 둘 중 문맥에 적합한 형태를 고르도록 하는 문제를 제시하였다. 이후 같은 텍스트를 과거 시제로 변형시켜, 위에서 골랐던 ser와 estar가 어떠한 과거 형태로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직접 기입하는 CT 방식을 선택하였다.

총 4개의 유형으로 구성된 설문 문항들은 한국인 스페인어 학습자들의 완료/불완료 과거 습득 및 학습과 관련하여 각기 다른 양상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아래에서는 이 네 가지 Test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 유형에 해당되는 문항들을 소개한다. 또한 4.3에서 설문 결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여기에서는 각 유형의 Test들마다 예상되는 정답률을 밝히고, 이러한 판단이 가능한 근거를 기존의 논의에 입각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4.2.1. Task 1: 형태적 상 사용 양상 및 상/시제 가설 검증

설문지 구성에 있어서 가장 먼저 파악되어야 할 것은 형태적 상의 습득 및 사용 양상으로 판단되었다. 본 논문의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스페인어의 과거 시제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완료 과거와 불완료 과거의 두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스페인어의 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인식되었기 때문에, 설문의 대상이 된 대부분의 학생들은 스페인어를 배울 때에 완료 과거와 불완료 과거 용법의 대조에 초점을 두고 학습을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¹³ 그러나 중급 수준의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두 과거 형태의 구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정답률에 따라 중급 학습자의 그룹을 ‘유형태(Yes-morphology)’와 ‘무형태(No-morphology)’로 세분할 것이다.¹⁴ (cf. Montrul & Slabakova, 2002)

(51)

중급		고급(유형태)	원어민(유형태)
무형태	유형태		

¹³ 앞서 언급했듯이, 설문의 대상자는 중급 이상의 학습자들로 선정하였다. 초급 학습자들은 과거 시제를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설문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¹⁴ 이렇게 유형태와 무형태 그룹으로 학습자를 세분하는 이유는, Morphology Test 자체가 어휘적 상과 형태적 상이 일치하는 경우에 대한 습득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Morphology Test에 대한 정답률이 높은 학생들은 유형태로, 반대로 정답률이 낮은 학생들은 무형태로 분류된다. 한편, 고급과 원어민 그룹은 완료/불완료 과거의 두 형태를 구분하므로 유형태 그룹에 속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들이 실제 유형태 그룹에 속할 것인지는 이후 4.3에서 설문 결과를 분석할 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문제로 제시된 텍스트는 스페인어 교재 Pasajes (Bretz, Dvorak & Kirschner)에서 사용된 영화 싸이코(Psycho)의 줄거리를 재구성한 것이다. (cf. Salaberry, 1997; Montrul & Slabakova, 2002) 학습자들이 아래와 같이 괄호 속에 주어진 동사를 문맥에 맞게 과거 시제로 변형하여 알맞은 형태를 기입하도록 문제를 제시하였다.

(52)

Ayer el jefe le (DAR) dió el dinero a la empleada para depositarlo en el banco. La empleada (TRABAJAR) trabajaba para la compañía pero no (ESTAR) estaba contenta con su trabajo y (QUERER) quería otro empleo. La mujer (NECESITAR) necesitaba salir del pueblo. (HACER) Hizo las maletas y (PONER) puso el dinero en una bolsa. Luego (SALIR) salió del pueblo en coche, pero (TENER) tenía miedo de las autoridades. Poco después (BUSCAR) buscó un lugar para descansar. (LLOVER) Llovía mucho. De pronto (LLEGAR) llegó al Motel Bates. Por suerte (TENER) tenía habitaciones libres. En el hotel, la mujer (CONOCER) conoció a Norman, le pareció que (SER) era un hombre muy tímido.

Mientras (HABLAR) hablaban, ella (FIRMAR) firmó su registro y (TOMAR) tomó las llaves de su habitación. Hacía rato que la mujer (SENTIR) sentía hambre, pero primero (SUBIR) subió a su habitación y (DECIDIR) decidió ducharse antes de salir a cenar. Norman (DECIR) dijo que (VIVIR) vivía solo con su madre aunque en realidad su madre (ESTAR) estaba muerta. (ESTAR) Estaba un poco loco y (TENER) tenía dos personalidades. Mientras ella se (DUCHAR) duchaba Norman se (DISFRAZAR) disfrazó de su madre, (ENTRAR) entró al cuarto de la muchacha y (QUERER) quiso matarla a puñaladas.

위 문항은 학습자들이 이야기 서술(narrative) 텍스트에서 완료 과거와 불완료 과거의 형태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고자 설계되었다. 총 30개의 동사가 제시되었으며, 동사의 어휘적 상을 구분하는 자질은 [±종결(telic)]을 기준으로 하면, [+종결] 동사 13개(dar, hacer, poner 등) 그리고 [-종결] 동사 17개(estar, querer, tener 등)로 구성되었다. 대부분의 동사들은 원형 조합(prototypical combination)을 이루는 것으로 제시되었지만 상태동사로 분류되는 conocer와 querer 동사가 문맥에 의해 비원형 조합(non-prototypical combination)을 이루도록 제시되어 15개의 동사는 완료 과거로, 나머지 15개의 동사는 불완료 과거로 표현되는 것이 올바르게 설정되었다. 또한 완료/불완료 과거의 두 가지 형태가 모두 가능한 문항이 없도록 텍스트를 구성하여 학습자들의 혼돈을 줄이고자 하였다. 동사의 유형에 따른 조합 유형과 이를 대표하는 문항의 예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53)

동사 유형	동사 수	동사 형태	문항 수	조합 유형	예시
[+종결]	13	완료 과거	13	원형 조합	Ayer el jefe le <u>dio</u> el dinero a la empleada para depositarlo en el banco.
		불완료 과거	0	비원형 조합	
[-종결]	17	완료 과거	2	비원형 조합	En el hotel, la mujer <u>conoció</u> a Norman, [...] [...] y <u>quiso</u> matarla a puñaladas.
		불완료 과거	15	원형 조합	La mujer <u>necesitaba</u> salir del pueblo.

이와 관련하여 학습자의 수준이 높을수록 정답률 또한 비례하여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중급 이상의 학습자들은 스페인어에 완료 과거와 불완료 과거의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들은 교육을 통하여 각 과거 형태의 기본적인 용법에 대해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주어진 텍스트의 특성이 ‘서술’이라는 점에서 동사의 쓰임을 묘사(description)와 서술(narration)으로 구분하여 [-종결] 동사를 통해 장면을 묘사할 때는 불완료 과거를, [+종결] 동사를 통해 동작을 서술할 때는 완료 과거를 사용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고급 학습자들의 정답률은 거의 100%에 가까울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중급 학습자들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Morphology Test의 정답률을 기준으로 학습자 그룹을 더욱 세분화하여 ‘중급-무형태’, ‘중급-유형태’로 구분하도록 하겠다.

한편, 위의 표에서 보듯이 2개의 비원형 조합 문항이 있는데, 하나는 상태동사인 conocer를 완료 과거로 표현함으로써 상적 강압(aspectual coercion)이 이루어지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querer 상태동사를 완료 과거로 표현하여 사건을 순차적으로 서술하는 경우이다. 이 두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28개의 동사는 모두 어휘적 상과 형태적 상이 일치하는 원형 조합을 이루는 경우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총 30개의 동사에 대해 Montrul & Slabakova(2002)에서는 정답률 80%를 기준으로 무형태 그룹과 유형태 그룹을 나누었다. 이에 따라 24-30점을 획득한 학습자들은 유형태로, 23점 이하를 획득한 학습자들은 무형태로 분류되었다. 이들이 정답률 80%라는 높은 점수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L2 학습자들의 특성 상 완료/불완료 과거에 대한 교육 및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것이고, Task 1의 문제 형식 역시 기존 수업에서 연습문제로 주어지는 형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이러한 형태의 문제에 익숙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임을 밝혔다. 본 설문조사 역시 이들의 기준에 따라 유형태 그룹과 무형태 그룹을 분류하도록 하겠다.

학습자들의 형태적 상 습득 및 사용 양상 파악과 더불어, 이 문항을 통하여 검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항이 있다. 앞서 3장에서 살펴 본 상 가설과 시제 가설 중 어느 가설이 한국인 학습자들의 학습 양상과 부합하는가의 문제이다. 두 가설의 차이는 학습의 단계가 낮은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 드러나기 때문에, 중급 그룹에서 의미적 상에 따라 완료 과거와 불완료 과거를 구분하는 ‘중급-유형태’에 속하는 학습자가 많을수록 상 가설을 지지하는 설문 결과가 될 것이고, 반면에 ‘중급-무형태’ 학습자들이 대부분의 동사를 완료 과거로 변형시키고 불완료 과거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양상으로 다수를 이룬다면 이는 시제 가설을 지지하는 설문 결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¹⁵

4.2.2. Task 2: 형태적 상과 어휘적 상의 상호 관계

두 번째로 제시되는 문항은 학습자들의 형태적 상과 의미적 상의 상호 관계 인지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Semantic Test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어휘적 상의 [±종결(telic)] 자질과 형태적 상의 [±완료(perfective)] 자질이 서로 일대일 대응되지 않는다는 것을 학습자들이 파악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제시하였다. 총 37개의 문장을 제시하였으며, 아래의 1-14번의 문장들은 완료/불완료 과거 형태와는 상관 없이 문장이 논리적으로 정문인지 비문인지의 여부를 묻는 논리성 판단 문제(Logical Test)로 구성되었다.

¹⁵ 상 가설과 시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일정 그룹의 학습자들을 선정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들의 동사 굴절소 발달 양상을 파악하는 종단 연구(longitudinal study)가 가장 적합하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 L2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의 경향성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54)

	논리성 판단 문제(Logical Test)	정답
1	El jarrón se cayó al suelo y quedó sobre la mesa.	-2 (매우 어색)
2	Julián estaba fumando en la oficina y el jefe lo vio.	2 (매우 적합)
3	Fui a la escuela en auto y llegué en bicicleta.	-2 (매우 어색)
4	La farmacia abrió a las 8 pero ya son las 8 y no ha abierto.	-2 (매우 어색)
5	Jorge viajaba a menudo a Europa y compraba lindos regalos.	2 (매우 적합)
6	Para no mojarse, los niños jugaron bajo la lluvia.	-2 (매우 어색)
7	Marco estaba cocinando y Pilar lo ayudaba.	2 (매우 적합)
8	Los bomberos apagaron el incendio y rescataron al hombre.	2 (매우 적합)
9	María trabajaba en una panadería y trataba bien a los clientes.	2 (매우 적합)
10	Susana estaba manejando y se detuvo a cargar el tanque.	2 (매우 적합)
11	Había 5 personas en el cine, pero no había nadie.	-2 (매우 어색)
12	Mis amigos me invitaron a una fiesta y no fui invitada.	-2 (매우 어색)
13	Los padres de Susana salieron de viaje y no se fueron a ninguna parte	-2 (매우 어색)
14	Estaba jugando al tenis y llegó Pedro.	2 (매우 적합)

위의 14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23개의 문제들은 2개의 등위절 중 먼저 제시된 절이 완료 과거로 쓰였을 경우 비문, 불완료 과거로 쓰였을 경우 정문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동사의 유형을 기준으로 각 문항들과 정답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55)

	[+종결] 동사: 성취동사, 달성동사	정답
15	Lucía venía a buscar su ropa al lavadero pero nunca llegó.	2 (매우 적합)
16	Mis padres vendieron el auto, pero nadie lo compró.	-2 (매우 어색)
19	Los González vendían la casa, pero nadie la compró.	2 (매우 적합)
20	Gonzalo leía un cuento por las noches, pero nunca llegó al final.	2 (매우 적합)
22	Adrián tomaba coca-cola y se le volcó la mitad sobre el pantalón.	2 (매우 적합)
23	El transatlántico arribó al puerto a las 10 a.m., pero apareció al mediodía.	-2 (매우 어색)
24	El niño terminó toda la sopa, pero no ha comido.	-2 (매우 어색)
26	El equipo de Brasil iba ganando el campeonato de fútbol, pero salió segundo.	2 (매우 적합)
29	Los Fernández terminaron su casa pero no pudieron construirla.	-2 (매우 어색)
30	Juan llevó el sobre hasta la administración pero se le perdió en el camino.	-2 (매우 어색)

31	Marcelo se tomó toda la cerveza y se le volcó la mitad al suelo.	-2 (매우 어색)
32	Íbamos al lago, pero nos quedamos en casa a causa de la tormenta.	2 (매우 적합)
33	Marcos ganó el campamento de tenis, pero salió segundo.	-2 (매우 어색)
34	Julio y Verónica se casaron ayer, pero hoy siguen solteros.	-2 (매우 어색)
36	Mi tío se moría de cáncer, pero finalmente se recuperó.	2 (매우 적합)

(56)

	[-종결] 동사: 상태동사	정답
17	Bastaba con tener calma para solucionar la situación, pero no fue suficiente.	2 (매우 적합)
18	El tren tardaba 3 horas en recorrer el camino, pero lo hizo en 2.	2 (매우 적합)
21	El BMW me costó \$80.000, pero no lo compré.	-2 (매우 어색)
25	La reunión duró hasta las 6 p.m., pero terminó a las 6:30 p.m.	-2 (매우 어색)
27	Me faltaron 3 días para terminar la tesis, pero pude terminarla antes.	-2 (매우 어색)
28	La clase fue a las 10 pero empezó a las 10:30.	-2 (매우 어색)
35	El yate me costaba \$1.000.000, pero no lo compré.	2 (매우 적합)
37	El concierto duraba hasta las 7 p.m., pero terminó a las 8 p.m.	2 (매우 적합)

위에서 제시된 37개의 문항은 앞서 언급했듯이 1-14번의 논리성 판단 문제 14개와 15-37번의 SCJT 문제 23개로 구성되었다. 14개의 논리성 판단 문제 중 7개의 문장은 매우 적합한 문장이며 나머지 7개의 문장은 매우 어색한 문장이다. 23개의 SCJT는 동사의 동작류에 따라 8개의 상태동사, 8개의 달성동사, 7개의 성취동사가 사용된 문장들로 구성되었다. 상태동사와 달성동사가 사용된 문장들은 매우 적합한 문장과 매우 어색한 문장이 각 4개씩 제시되었고, 성취동사는 7개 중 3개는 매우 적합한 문장으로, 4개는 매우 어색한 문장으로 제시되었다. Vendler(1967)의 네 가지 동작류 중에서 동작동사는 이 문항에서 제외되었다. 이 Semantic Test를 구상한 Montrul & Slabakova(2002)에 따르면, 동작동사의 경우 완료 과거로 표현했을 때와 불완료 과거로 표현했을 때 모두의 경우에서 매우 어색한 문장이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동작동사를 활용한 문장을 제시하기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Task 2에 사용된 각 문제의 구성 방식과 대표적인 문제 예시를 동사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57)

동사유형	동사 형태	조합 유형	문제 예시	정답	예상 정답률
[+종결]	완료 과거	원형 조합	Mis padres vendieron el auto, pero nadie lo compró.	-2 (매우 어색)	↓
	불완료 과거	비원형 조합	Los Gonzáles vendían la casa, pero nadie la compró.	2 (매우 적합)	↓
[-종결]	완료 과거	비원형 조합	El BMW me costó \$80.000, pero no lo compré.	-2 (매우 어색)	↑
	불완료 과거	원형 조합	El yate me costaba \$1.000.000, pero no lo compré.	2 (매우 적합)	↑

Task 2의 설문 결과를 예측하여 보면, 학습의 단계가 낮을수록 원형 조합은 자연스럽게 비원형 조합은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원형 조합이 비문이 되고 비원형 조합이 정문이 되는 [+종결] 동사가 사용된 문항에서의 정답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인지적으로 자연스러운 ‘원형 조합-정문’, ‘비원형 조합-비문’으로 구성된 [-종결] 동사의 경우, 학습이 비교적 덜 발달된 학습자들도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Task 1의 설문 결과와 관련하여 형태적 상의 습득 정도가 어휘적 상과 형태적 상의 상호 관계 인지 정도에 영향을 끼치는지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본 논문과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한 Montrul & Slabakova(2002)의 결과에 따르면, ‘중급-유형태’ 또는 고급 학습자들 중에서 Task 2의 정답률이 낮은 경우는 존재했지만, ‘중급-무형태’임에도 Task 2의 정답률이 높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설문 결과의 원인을 Task 1과 Task 2의 문항 구성의 차이를 통해 분석해보면, Task 1은 Morphology Test로서 원형 조합으로 이루어진 동사의 사용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스페인어의 완료/불완료 과거와 관계된 심층적인 의미적 대조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Task 2는 Semantic Test로서 비원형 조합으로 이루어진 동사의 사용이 더욱 많기 때문에 스페인어에서 동사의 어휘적 상과 관계 없는 비원형 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학습자들만이 정답을 맞출 수 있기 때문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원형 조합이 갖는 의미를 인지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중급-무형태’ 학습자의 경우 Task 2의 정답률이 낮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4.2.3. Task 3: 완료/불완료 과거 특수 용법 이해도 측정

Task 3는 상 가설과 시제 가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불완료 과거 학습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검증해보기 위해 고안되었다. 짧은 단락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상황과 관련된 하나의 문장을 제시한 후 이 문장에서 사용된 동사의 형태가 적합한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문장의 참/거짓 여부를 학습자들이 판단하도록 하였다. 이 문항은 한국인 스페인어 학습자들의 완료/불완료 과거 이해에 관련된 오류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완료/불완료 과거의 구체적인 용법을 인지하는지를 파악하여 이해 정도에 따른 효과적인 교재 구성 방안을 제안하기에 적합한 문제들로 구성되었다.

스페인어의 완료/불완료 과거 학습 과정 및 교재 개발 제안을 위해 설계된 세 번째 문항에는 총 10개의 문제들이 제시되었다. 이 문제들은 ‘의미 변화’, ‘습관 해석’, ‘비실제 상황’, 그리고 ‘총칭적 해석’으로 구분되는 네 가지 용법을 확인하기 위한 것들로, 앞의 두 용법은 각각 3문제씩, 뒤의 두 용법은 각각 2문제씩 구성하였다. 각 용법에 대한 구체적 문제와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4.2.3.1. 의미 변화 용법

의미 변화 용법에서는 상태동사의 어휘적 상과 형태적 상의 상호 관계에 의한 의미 변화를 다루고 있다. 상태동사는 동사 자체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어휘적 상이 [-종결]이기 때문에 불완료 과거와 원형 조합을 이룬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완료 과거로 쓰여 비원형 조합을 이룰 경우, 달성동사와 유사한 의미를 갖게 되며 특히 [+기동(inchoative)]이라는 자질을 얻게 된다.

(58) Rodolfo supo la verdad (en ese momento).

≡ Se dio cuenta de la verdad (en ese momento).

이러한 의미 변화 용법의 특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9)

동사유형	어휘적 상	형태적 상	조합유형	의미변화
상태동사	[-종결]	완료 과거	비원형 조합	달성동사 ([+기동])
		불완료 과거	원형 조합	-

학습자들이 이러한 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휘적 상과 형태적 상의 자질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비원형 조합의 존재를 이해해야 하고, 더불어 상태동사가 완료 과거와 결합할 경우에 의미 변화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어야 한다. 설문을 통하여 이 용법의 학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문제를 제시하였다.

(60)

문제	정답
En Navidad, Carmen hace una fiesta e invita a todos sus viejos amigos. Entre todos los invitados están Susana y Marcos, que no se ven muy seguido. Cuando Marcos conversa con Susana le pregunta por su familia. Susana le cuenta a Marcos que su familia está viviendo en Barcelona ahora.	
Marcos conoció a Susana.	FALSO
Ana va a la boda de sus amigos Carlos y Carolina. Ana no tiene novio. Carolina le presenta a Roberto. Ana y Roberto bailan toda la noche.	
Ana conocía a Roberto.	FALSO
Desde chico, Rodolfo ha sabido que él no es hijo legítimo de don Camilo y la verdad sobre sus padres. Hoy, don Camilo conversa con él sobre esto, pero para Rodolfo ya no es una sorpresa.	
Rodolfo sabía la verdad.	VERDADERO

위의 세 문제 중에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 의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주어진 문장의 동사는 [-종결]이라는 어휘적 의미와는 관계 없이 완료 과거를 통해 기동성을 나타내야 한다. 그러나 주어진 문장의 동사 *conocer*는 불완료 과거로 쓰여 있으므로 이 문장은 ‘거짓’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는 반대로 첫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는 의미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불완료 과거로 문장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완료 과거로 문장이 제시된 첫 번째 문제는 ‘거짓’, 불완료 과거로 제시된 세 번째 문제는 ‘참’이 된다.

4.2.3.2. 습관 해석 용법

습관 해석 용법은 아래에서 보듯이 동사가 나타내는 상황이 일시적인지 반복적인지에 따라 동사의 형태를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는 용법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를 파악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61)

동사유형	상황	동사형태
모든 동사	일시적 상황	완료 과거
	반복적 상황	불완료 과거

이 문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동작류에 따른 [±종결] 여부와는 상관 없이 상황이 일시적인지 반복적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완료/불완료 과거를 적절히 조합해야 하는 것이다. 이 용법은 많은 교수 상황에서 완료/불완료 과거의 대표적인 용법 중의 하나로 교육되고 있기 때문에 중급 학생들도 일정 정도의 정답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용법의 학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문제가 제시되었다.

(62)

문제	정답
Lisa va al teatro cada semana. Ella tiene un coche de marca alemana, pero hoy no quiere conducir porque no encuentra su carné.	
Lisa caminó al teatro.	VERDADERO
Panchito era muy tímido y no tenía muchos amigos con quien jugar. Pasaba todo el tiempo en su casa con su mamá. Ayer, Panchito se reunió por primera vez con sus vecinitos para jugar y pasaron un rato muy agradable. Hoy, se quedó nuevamente con su mamá.	
Panchito jugaba con sus vecinos.	FALSO
Laurita tenía muchos amigos y después de la escuela pasaba el tiempo en la casa de sus vecinos. Ayer, se quedó en casa con su mamá y pasó un rato muy agradable.	
Laurita jugaba con sus vecinos.	VERDADERO

위의 세 상황 중에서, 앞의 두 상황은 일시적인 상황인 반면 마지막 한 개의 상황은 지속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서 제시된 문장의 동사는 완료 과거로 쓰여야 하며, 반대로 세 번째 문제에서 제시된 문장의 동사는 불완료 과거로 쓰여야 정답이 된다.

4.2.3.3. 비실제 상황 용법

비실제 상황은 불완료 과거의 특수한 용법과 관련되어 있다. 앞서 3.3에서 보았듯이 불완료 과거는 완료 과거와 달리, 실제 상황뿐 아니라 비실제 상황을 표현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꿈이나 소꿉놀이, 상상 속의 이야기 등을 과거 시제로 나타낼 경우 아래와 같이 완료 과거가 아닌 불완료 과거를 사용해야만 정문이 된다.

(63)

동사유형	상황	동사형태
모든 동사	실제상황	완료/불완료 과거
	비실제상황	불완료 과거

이 용법은 자주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용법들에 비해 교육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중급 단계의 학습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용법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예상이 실제 학습자들의 이해 정도와 부합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하였다.

(64)

문제	정답
Carmen tiene una hija pequeña, Lucía. Todos los días, Carmen le cuenta cuentos. Después del colegio, Carmen y Lucía juegan juntas y se inventan cuentos nuevos.	
Lucía fue la princesa y Carmen la reina.	FALSO
Anoche Carmen tuvo un sueño. En el sueño, ella está en la playa y pasa un tiempo maravilloso con su familia.	
Carmen estaba en la playa con su familia en el sueño.	VERDADERO

위에서 제시된 두 가지 상황은 각각 ‘상상 속의 이야기’와 ‘꿈’에 해당된다. 이 두 상황은 모두 비실제적인 상황이므로, 주어진 문장에서 사용된 동사의 어휘적 상과는 관계 없이 불완료 과거로 쓰여야 정문이 된다. 그러나 첫 번째 상황에서는 동사 *ser*가 완료 과거로 쓰였기 때문에 비문이 되며, 따라서 ‘거짓’을 선택해야 정답이다. 이 문제의 경우, 비실제적인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불완료 과거만이 쓰인다는 특수한 용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ser*라는 동사가 지니는 어휘적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은 [-종결]의 자질을 지닌 동사가 [+한정]의 자질을 지닌 완료 과거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비문이라고 판단하여

Según la mayoría de la gente, el restaurante de la calle Jefferson era muy bueno y el servicio era excelente. Fuimos a celebrar el cumpleaños de Carlos y a todos nos gustó mucho. ¡Qué lástima que lo cerraron!	
--	--

Se comió bien en ese restaurante en aquella ocasión.	VERDADERO
--	-----------

위의 두 문제에 제시된 두 문장은 모두 ‘무인칭의 se’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으로, 동사가 완료 과거로 표현될 경우, 구체적 해석만 가능하여 해당 문장에 쓰인 se는 ‘화자를 포함한 사람들’로 해석된다. 반면에 동사의 형태적 상이 불완료 과거일 경우, se는 구체적 해석은 물론이고 총칭적 해석까지도 가능하여 ‘화자를 제외한 사람들’로도 해석될 수 있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지닌다. 따라서 첫 번째로 제시된 상황은 화자인 ‘우리’를 제외한 사람들이 식사를 했다는 것이므로 불완료 과거로 쓰여야 정문이 되고, 두 번째 상황은 ‘우리’를 포함한 사람들이 식사를 했으므로 완료 과거와 불완료 과거가 모두 쓰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네 가지 용법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들을 통하여 한국인 스페인어 학습자들이 완료/불완료 과거의 구체적인 용법까지 인지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문 결과에 따라 학습자들이 미처 습득하지 못한 용법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학습자들이 그 용법들을 완전히 이해하여 스페인어 표현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의 교육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보도록 하겠다.

4.2.4. Task 4: ser/estar의 어휘적 의미 이해 정도 및 과거 시제에서의 사용 양상

마지막 네 번째 항목은 학습자들이 현재 시제에서 ser와 estar가 내포하고 있는 본래의 어휘적인 의미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과거 시제에서 이 동사들의 어휘적 의미와 문법적 형태의 상호작용을 이해하여 이를 동사의 쓰임에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계사 동사인 ser와 estar는 두 동사 모두 상태동사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Bosque & Gutiérrez-Rexach(2009)에 따르면 두 동사 간에는 미묘한 의미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분리하여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Vanpatten(2010)은 Schmitt(1996)와 Roby(2007)의 분석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예문을 통해 ser와 estar는 상황에 따라 서로

상보적 분포를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68)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ser와 estar

a. ser+ 명사구/한정사구

: Juan {es/*está} estudiante; {Son/*Están} las doce de la tarde.

b. ser+ 국적표현: Juan {es/*está} de México.

c. ser+ 수동

: La torre {fue/*estuvo} construído por una compañía francesa.

d. estar+ 진행형: María {está/*es} escribiendo su tarea.

e. estar+ 장소/시간표현

: Mi padre {está/*es} en la cocina; Estamos/*Somos al diez.

(69) 분포를 공유하는 ser와 estar

a. Juan es triste. / Juan está triste.

b. María es gorda. / María está gorda.

c. El café es servido caliente. / El café está servido.

(70) ser/estar의 쓰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a. La niña es lista. - inteligente

La niña está lista. - preparado/a

b. Él es aburrido. - tedioso/a

Él está aburrido. - cansado/a

c. Las lechugas son verdes. - verdor

Esta manzana está verde. - inmaduro

각각의 예문을 살펴보면, estar와 함께 쓰인 문장들은 ser와 함께 쓰인 문장들에 비해 해당 문장이 발화되는 순간의 완료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진행형이나 장소/시간 표현은 문장이 발화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일정한 시간 내에 완료되어 그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의 유효성을 가지지 않는 동작이나 상태에 대한 표현이다. 즉, (68d)에서는 문장의 발화 순간에는 마리아가 숙제를 하고 있지만, 한 시간 뒤에는 이미 숙제를 하는 행위가 완료되어 다른 행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68b)의 국적표현은 일정 순간에만 후안이 멕시코 사람인 것이 아니라, 후안이 멕시코 사람이라는 그 속성은 불완료적으로 지속된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두 동사의 차이점에 관련하여 Schmitt(2005)는 ser는 진정한 의미의 계사로서 특정 자질을 갖고 있지 않아 무표적인 반면, estar는

[+완료(perfective)]라는 자질을 지니는 유표적인 어휘라고 주장한다. 한편, Roby(2007)는 Luján(1981)의 연구를 발전시켜 ser와 estar는 모두 상적 자질을 지니고 있으나, ser는 [-완료]인 반면 estar는 [+완료]라는 점에서 대조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Gallego & Uriagereka(2009)는 ‘Estar = Ser + P(erfectividad)’라는 도식을 활용하여 두 동사의 차이점을 대조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ser는 [-완료]이기 때문에 영속적인 속성을 지니는 형용사와 함께 쓰이는 반면, estar는 [+완료]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속성을 지니는 형용사와 함께 쓰여 일정한 순간 내에서의 상태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Bosque & Gutiérrez-Rexach(2009)는 이러한 구문을 설명함에 있어서 Carlson(1977)을 따라 ser를 개체 층위 술어(individual level predicate)로, 그리고 estar를 단계 층위 술어(stage level predicate)로 구분한다. ‘개체 층위 술어’란 개인의 속성이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동사를 의미하며, ‘단계 층위 술어’는 ‘일정 순간에 해당되는 단계’가 지니는 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와 함께 쓰이는 동사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속성이나 특성을 나타낼 때는 개체 층위 술어인 ser가 사용되는 반면, 일정 순간 혹은 단계의 특징을 나타낼 때는 단계 층위 술어인 estar가 사용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ser는 어휘적으로 [-완료] 자질을 보이는 동사이며 estar는 반대로 [+완료] 자질을 보이는 동사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ser가 [-완료] 자질을 지니는 형용사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와 estar가 [+완료] 자질을 갖는 형용사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를 원형 조합이라고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완료/불완료 과거에 작용하는 어휘적 상과 형태적 상의 상호 관계와 마찬가지로 비원형 조합이 존재한다. ser가 [+완료] 형용사와 쓰이는 경우와 estar가 [-완료] 형용사와 쓰이는 경우가 비원형 조합에 속하게 된다. 각각의 경우에 대한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71)

ser	[-완료]	원형조합	Juan es de México.
		비원형조합	Juan es soltero.
estar	[+완료]	원형조합	Mi padre está en la cocina.
		비원형조합	Juan está muerto.

이렇게 ser/estar와 관련된 어휘적-형태적 의미 관계를 학습자들이 인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기 위해 *Para practicar los pasados* (Sándor, 2011)에서 사용된 연습 문제 중 하나를 발췌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를 구성해 보았다.

(72)

En la ciudad, hay un teatro, [es/está] en la calle San José. [Es/Está] de estilo barroco. Esta tarde, hay un concierto en la ciudad. El concierto [es/está] en este teatro. Yo también [soy/estoy] aquí [Es/Está] maravilloso, me gusta muchísimo.

En la ciudad, hay un estadio, [es/está] al otro lado del río. No [es/está] muy grande. Esta tarde, hay un partido de fútbol entre los dos mejores equipos de la ciudad. El partido [es/está] en este estadio. Nosotros también [somos/estamos] aquí. [Es/Está] muy emocionante.

우선 위와 같이 현재 시제로 쓰여진 두 단락의 짧은 글을 제시하고, ser와 estar 동사가 들어가는 부분에는 두 동사의 변화 형태를 모두 제공하여 둘 중에 적합한 형태를 고르도록 하였다. 이 중에서 학습자들이 정답을 고르기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문장은 각 단락의 마지막 문장이다. maravilloso와 emocionante는 속성보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estar와 함께 쓰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생각되지만, 위 글에서는 문맥 상 연극과 축구 경기의 속성을 나타내는 개체 층위 술어가 요구되기 때문에 ser와 함께 쓰여야 한다. 이 문장에 대한 정답률 분석을 통해 학습자들의 ser/estar 동사 이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제에서 ser와 estar 동사를 고르는 문제에 뒤이어, 아래와 같이 동일한 텍스트를 과거 시제로 바꾸어 ser와 estar를 알맞은 과거 형태로 기입하도록 하는 문제를 제시하였다.

(73)

En la ciudad, había un teatro, estaba en la calle San José. Era de estilo barroco. El lunes hubo un concierto en la ciudad. El concierto fue en ese teatro. Yo también estuve allí. Fue maravilloso, me gustó muchísimo.

En la ciudad, había un estadio, estaba al otro lado del río. No era muy grande. El miércoles hubo un partido de fútbol entre los dos mejores equipos de la ciudad. El partido fue en ese estadio. Nosotros también estuvimos allí. Fue muy emocionante.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ser/estar의 어휘적인 의미에서 벗어나서 완료/불완료 과거를 문맥이 요구하는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스페인어 실력이 요구된다. 이는 특히 완료/불완료 과거를 선택할 때에 술어의 성격보다는 아래와 같이 화자가 취하는 관점이 더 크게 작용함을 보여주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74)

완료 과거	fue	estuvo	화자가 현재에서 지난 과거를 기술
불완료 과거	era	estaba	화자가 과거 시점에서 기술

이렇듯 Task 4는 ser/estar의 어휘적 상과는 관계 없이 관점에 따라 완료/불완료 과거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Task 2의 Semantic Test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문항을 통해 학습의 수준에 따라 각 단계의 학습자들이 어휘적 상과 형태적 상 중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시키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3. 설문 결과 분석

4.3.1. Task 1 결과 분석

Task 1을 통해서는 학습자들이 스페인어의 형태적 상이 표현되는 완료/불완료 과거를 어떻게 인지 및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 시제 학습의 초기 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상 가설과 시제 가설 중 어느 쪽의 예상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지를 검증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총 150명의 실험 대상자는 학습 기간과 스페인어권 국가 체류 경험을 기준으로 중급 66명, 고급 62명, 원어민 22명으로 구분되었다. 총 30개의 동사가 제시된 Task 1에서는 각각의 동사에 대한 정답을 맞출 시에 1점을 부여하여 만점을 30점으로 계산하였고, 이에 따른 각 그룹 별 Task 1 평균 점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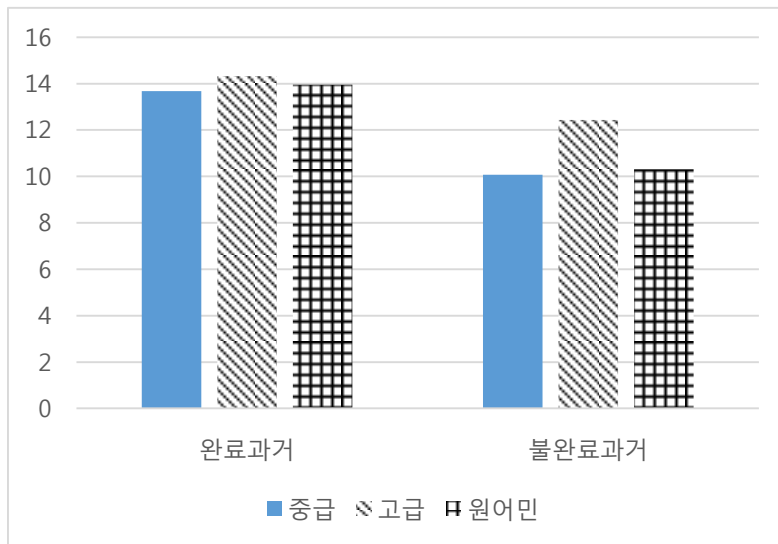
(75) Task 1 평균 점수 (30점 만점)

중급	고급	원어민
23.47점	26.84점	24.32점

위의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원어민 그룹의 평균 점수일 것이다. 원어민 그룹의 평균 점수가 고급 그룹의 평균 점수보다 낮은 결과를 보이는데, 이는 22명의 원어민 중 3명의 원어민이 ‘과거 시제만 사용해야 한다’는 설문지의 지문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반 이상의 문항을 현재 시제로 답했기 때문이다. 스페인어의 현재 시제는 어떠한 상황의 객관성(objectivity)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제 형태로, 이미 지난 일에 대해 현재 시제를 사용할 경우 과거를 현재로 끌어들이므로써 과거 상황에 현재의 생생함을 더해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이 현재 시제를 사용한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cf. 이만기, 2007: 109)

한편 Task 1의 그룹별 평균 점수를 완료 과거와 불완료 과거로 나누어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76) 완료/불완료 과거에 따른 Task 1 평균 점수의 비교



Task 1에 제시된 총 30개의 동사는 15개는 완료 과거로, 그리고 나머지 15개는 불완료 과거로 쓰여야 정답인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위에서 보이듯이, 완료 과거의 경우 그룹별 평균 점수는 중급 13.68점, 고급 14.32점, 원어민 13.95점으로 세 그룹 모두 13점 이상으로, 15점 만점에 가까운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불완료 과거의 경우 중급 10.07점, 고급 12.43점, 원어민 10.31점으로 모든 그룹이 완료 과거보다 낮은 평균을 보여주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시제를 사용한 실험 참여자로 인해 전체적인 평균이 기대보다 낮은 원어민 그룹은 논외로

하고 중급과 고급 학습자들의 결과만 본다면 ‘완료 과거에 비해 불완료 과거가 천천히 학습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가 입증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급 학생들의 완료/불완료 과거 사용 양상을 분석하여 앞서 3.1에서 살펴본 상 가설과 시제 가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상 가설과 시제 가설이 예상하는 스페인어 과거 시제의 습득 발달 과정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77) 상 가설과 시제 가설의 스페인어 과거 시제 습득 발달 과정 비교

상가설 (Andersen 1991)	시제가설 (Salaberry 200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재 시제(또는 굴절되지 않은 동사원형)가 모든 동사에 사용된다 2. 완료 과거가 성취동사에 사용된다 3. 불완료 과거가 상태동사에 사용된다 4. 완료 과거가 달성동사에도 사용되며 불완료 과거가 동작동사에도 사용된다 5. 불완료 과거가 달성동사에 사용되기 시작한다 6. 완료 과거가 동작동사에 사용되기 시작한다 7. 불완료 과거가 성취동사에 사용되기 시작한다 8. 완료 과거가 상태동사에 사용되기 시작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든 동사가 현재시제 혹은 굴절되지 않은 원형으로 사용되며 과거 시제는 사용되지 않는다 2. 과거 시제는 오로지 완료 과거로만 표현된다 (불완료 과거의 사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3. 불완료 과거가 한정된 일부의 상태동사와 사용된다 4. 불완료 과거가 종결성이 없는 동사와 종결성이 있는 동사 모두와 사용되기 시작한다 5. 모든 동사가 불완료 과거와 완료 과거로 사용된다

위에서 보듯이, 두 가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 발견된다. 상 가설에서는 초기 학습자들이 어휘적 상의 영향 하에 완료 과거와 불완료 과거를 모두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있는 반면, 시제가설에서는 어휘적 상과는 관계 없이 모든 과거 시제가 완료 과거로 사용되기 시작한다고 보는 점에서 대조를 이룬다. 이에 따라 이 두 가설의 검증을 위해 중급 학습자 그룹을 유형태와 무형태로 세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학습 초기에서 두 가설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지므로, 중급 중에서도 더욱 높은 오답률을 보이는 무형태 그룹의 답안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무형태와 유형태를 구분함에 있어서 Task 1의 30 문제 중 80%의 문제를 맞추었을 경우에 획득할 수 있는 점수인 24점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그룹을 세분할 수 있었다.

(78) Task 1 결과에 따라 세분된 학습자 그룹

중급		고급	원어민
무형태	유형태		
26명	40명	62명	22명

이들의 Task 1 답안에서 각 그룹별로 완료 과거와 불완료 과거를 사용한 횟수를 평균값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79) Task 1의 그룹별 완료/불완료 과거 평균 사용 횟수

		완료 과거	불완료 과거	현재 시제
중급	무형태	20.62개	10.51개	
	유형태	15.72개	13.67개	
고급		16.9개	13.5개	
원어민		15.5개	12개	2.4개

위의 표를 보면, 모든 그룹에서 완료 과거를 불완료 과거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학습 단계가 낮은 ‘중급-무형태’ 그룹의 경우, 완료/불완료 과거의 사용 비율이 2:1의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개 문항 중 25개 이상의 동사를 완료 과거로 변형한 5명의 학습자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한국인 학습자들은 중급의 경우에서 완료 과거와 불완료 과거를 섞어서 사용하는 학습자들의 비율이 완료 과거만 사용하는 학습자들의 비율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과거 형태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두 형태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언제 어떤 형태를 쓰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습득이 미흡하여 틀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상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총 66명의 중급 그룹 중에서 60% 이상인 40명의 학습자가 유형태 그룹에 속했음은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2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어휘적 상과 형태적 상이 일치하는 경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초급 단계로 보이는 26명의 ‘중급-무형태’ 그룹에서도 완료 과거만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5명을 제외한 나머지 21명의 학습자들은 상당 수준의 정답률을 획득하였다. 즉, 설문의 대상이 된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중급이라는 비교적 낮은 수준에 해당되더라도 동사의 어휘적 상에 따라 완료/불완료 과거를 알맞게

사용하는 상 가설의 입장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한편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경우에 완료 과거를 사용하는 학습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을 보인 설문 응답자는 5명이라는 소수에 그쳤기 때문에 시제 가설을 지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¹⁶

4.3.2. Task 2 결과 분석

앞서 살펴본 Task 1이 형태와 의미가 일치하는 경우들을 문제로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스페인어의 완료/불완료 과거 형태를 어느 정도 습득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Morphology Test’였던 반면에, Task 2에서는 형태와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문장들을 제시하여 완료/불완료 과거 형태와 어휘적 상이 충돌하는 문장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도를 파악할 수 있는 ‘Semantic Test’를 실시하였다. 총 37개로 구성된 전체 문항은 맥락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에 따라 -2(매우 어색)부터 2(매우 적합)까지 표기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다. 학습자들의 답안은 정답 여부에 따라 수치화되었는데 정답을 맞추었을 경우, 즉 비문을 -2로 표기했을 경우와 정문을 2로 표기했을 경우는 2점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0(모르겠음)으로 대답했을 경우는 0점을 부여했고, 0을 기준으로 정답과의 거리에 따라 -1 또는 1점을 주었다. 예를 들면 -2을 선택해야 정답인 문항에서 -1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1점을 부여했고 같은 문항에 1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1점을 부여했다. Task 2의 처음에 제시된 14개 문항은 완료/불완료 과거와는 관계 없는 문장들로, 학습자들이 스페인어 문장의 논리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Logical Test’ 문제들로 구성되었다. ‘Logical Test’의 결과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치화하면, 아래와 같다.

(80) Logical Test 평균 점수 (총 14개 문항, 28점 만점)

중급	고급	원어민
7.36점	15.12점	22.7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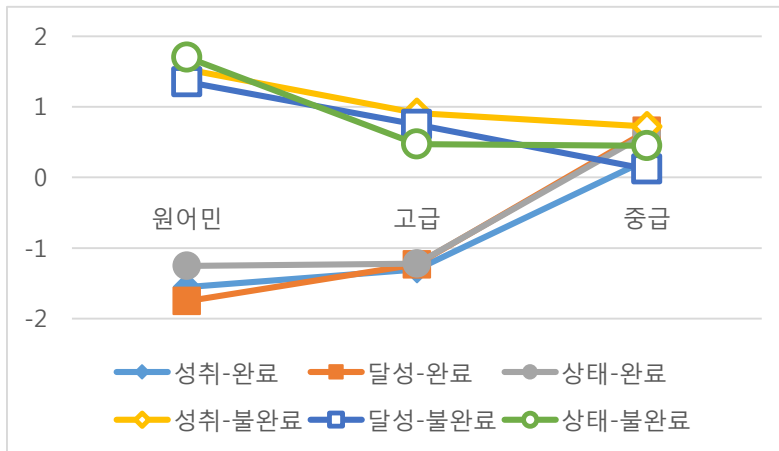
¹⁶ 시제 가설은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 완료 과거만이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Salaberry(2000)에서와 같이 중급 중에서도 초기 단계에 속하는 학습자들을 따로 구분하여 설문을 실시한다면 또 다른 양상이 발견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Task 1에서 학습 단계 간 평균 점수의 차이가 미미했던 것과는 달리, Task 2의 'Logical Test'에서는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급의 경우, 정답률이 절반 이하였던 반면에 고급은 가까스로 절반 이상의 문항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고 원어민의 경우 고급의 평균 점수와 7점에 가까운 차이가 있다. 여기서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Task 1에서는 지문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고급 학습자들에 비해 점수가 낮았던 원어민 화자들이 지문을 읽지 않아도 정답을 쉽게 맞출 수 있는 Task 2 문항에서는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사실상 Montrul & Slabakova(2002)에서 이 Logical Test는 뒤이어 실행되는 Semantic Test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설문의 대상자가 되었던 영어권 학습자들이 고급 학습자는 물론이고 중급 학습자들까지도 Logical Test에 대한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설문 대상자들이 스페인어 문장에 대한 논리성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따라서 Semantic Test에서 보이는 결과는 학습자들의 임의적인 추측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들의 완료/불완료 과거에 대한 이해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설문에서 한국어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Logical Test의 결과는 영어권 학습자들의 결과에 비해 비교적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이는 한국어권 학습자들, 특히 중급 단계의 학습자들이 영어권 학습자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스페인어 문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급 학습자들의 Semantic Test 결과 역시 Logical Test의 결과와 같이 높은 정답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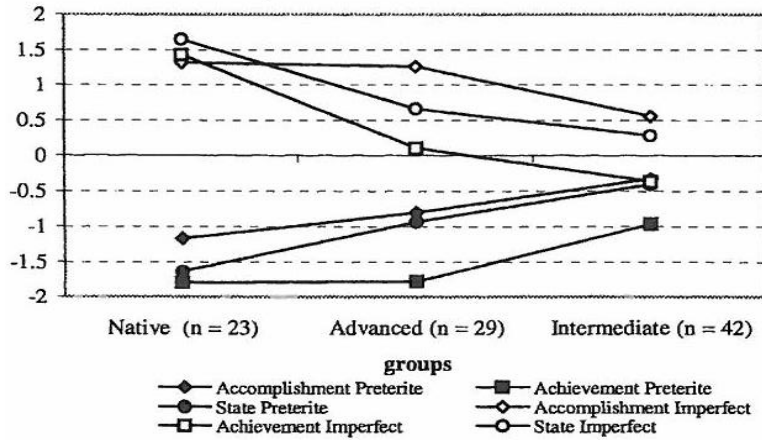
Logical Test 문장을 제외한 나머지 23개의 문장들은 동사의 동작류에 따라 8개의 상태동사, 8개의 달성동사, 7개의 성취동사가 사용된 문장들로 구성되었다. Logical Test에서와 같이 각각의 문장은 두 개의 등위절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동사의 시제와는 관계 없이 문장 자체가 논리적이거나 비논리적으로 제시되었던 Logical Test와는 달리, Semantic Test에서는 주절에 쓰인 동사가 그 어휘적 자질에 관계 없이 완료 과거로 표현되면 비문, 불완료 과거로 표현되면 정문을 이루도록 제시되었다. 학습 단계에 따른 동작류 및 과거 형태 별 정답률은 아래와 같다.

(81) 한국인 학습자들의 Semantic Test 결과



위의 그래프는 한국인 학습자들의 Semantic Test 결과를 동사의 어휘적 상과 형태적 상을 기준으로 살펴본 것이다. 원어민 그룹의 결과에서 보이듯이, 동사의 어휘적 상과는 관계 없이 완료 과거로 표현된 문항은 비문이기 때문에 -2에 가까울수록 정답률이 높은 것이며 불완료 과거로 표현된 문항은 정문이기 때문에 2에 가까울수록 정답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즉 완료 과거 문항과 불완료 과거 문항의 간격이 넓을수록 정답률이 높은 것이다. 고급 학습자의 경우, 원어민 그룹보다 간격이 좁아지긴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정답에 가까운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중급 학습자들의 경우는 6 유형의 문항이 모두 0~1 사이로 수렴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중급 단계의 학습자들은 비문까지도 정문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며, 아직 완료/불완료 과거를 활용한 문장들의 의미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어휘적 상에서 학습의 단계 별로 정답률이 정비례하여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어휘적 상과 형태적 상의 관계가 형성하는 미묘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Montrul & Slabakova(2002)에서 영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아래의 Semantic Test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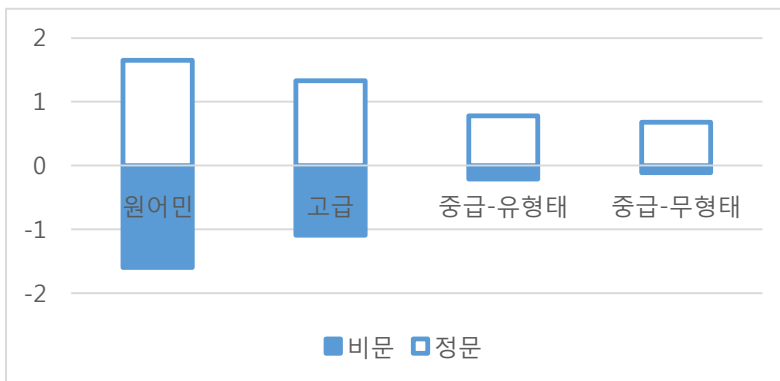
(82) 영어권 학습자들의 Semantic Test 결과



이번 Task 2를 분석할 때, Task 1의 분석에 사용되었던 ‘중급-무형태’, ‘중급-유형태’ 그룹의 세분을 여기에서도 반복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이 그룹을 기준으로 Logical Test와 Semantic Test에 대한 평균 점수를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Semantic Test 결과는 각 동사의 동작류 별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겠다.

우선, 학습 단계에 따른 Logical Test 결과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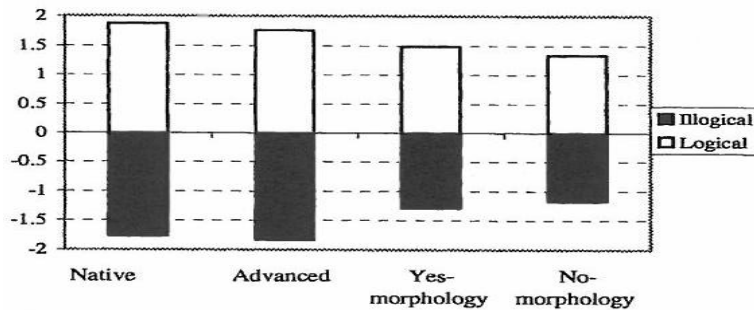
(83) 한국인 학습자들의 Logical Test 결과¹⁷



¹⁷ 그래프는 그룹 별로 비문과 정문을 얼마나 제대로 구분했는가를 보여준다. 원어민 그룹의 경우 비문(회색으로 처리된 부분)은 -2(매우 어색)로, 그리고 정문(흰색으로 처리된 부분)은 2(매우 적합)로 선택한 경우가 높았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의 모양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중급-무형태 그룹의 경우 비문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고 0(모르겠음)에 가깝게 선택한 경우가 많았고 정문 역시도 1(조금 적합)에 채 다다르지 못하는 양상을 보인다.

Logical Test 대한 정답률에서부터 각 그룹 간의 차이가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이 문항들에 대한 정답률은 완료/불완료 과거의 이해 및 사용과 관련되어 있다기 보다는 전반적인 스페인어 문장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연관되어 있다고 파악해야 한다. 정리하면, 중급 학습자들은 무형태와 유형태 그룹을 막론하고 아직 스페인어 문장들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고급 학습자들은 개인별 편차가 있지만 어느 정도는 스페인어 등위절에 익숙한 양상을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영어권 학습자들과 비교하면, 아래에서 보듯이 영어권의 중급 그룹 학습자들은 Logical Test에 대해서 한국인 학습자들보다 훨씬 높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4) 영어권 학습자들의 Logical Test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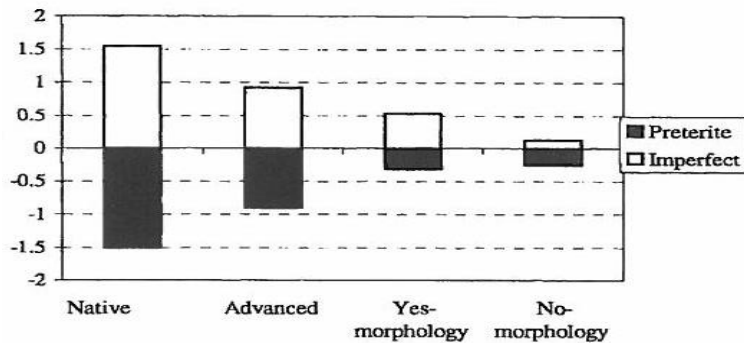


이번에는 Semantic Test의 결과에 대해 분석해보겠다. 먼저, 상태동사 문항에 대한 한국인 학습자들과 영어권 학습자들의 정답률 역시 아래와 같이 학습 단계에 정비례하는 결과를 보인다.

(85) 한국인 학습자들의 상태동사 Semantic Test 결과



(86) 영어권 학습자들의 상태동사 Semantic Test 결과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인 중급 학습자 그룹은, 어휘적 상과 형태적 상이 일치하는 경우에 대해 높은 정답률을 보였던 유형태 그룹조차도 상태동사로 표현된 비문법적인 문항들을 모두 정문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제시된 문항의 특성 상, 각 문장의 상태동사가 완료 과거로 쓰이면 비문이 되고 불완료 과거로 쓰이면 정문이 된다. 그런데 상태동사는 완료 과거와는 비원형 조합을 이루어 이 형태로 쓰이는 경우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반면에 불완료 과거와는 원형 조합을 이루기 때문에 상태동사가 불완료 과거로 쓰일 때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진다. 따라서 설문을 설계할 때, 상태동사에 대한 정답률이 다른 동작류 동사들에 대한 정답률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에 어긋나는 결과를 보였다.

상태동사 문장에 대한 정답률이 낮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8개의 문장을 평균 점수가 낮은 순으로 나열하여 보겠다.

17. Bastaba con tener calma para solucionar la situación, pero no fue suficiente.
27. Me faltaron 3 días para terminar la tesis, pero pude terminarla antes.
28. La clase fue a las 10 pero empezó a las 10:30.
21. El BMW me costó \$80.000, pero no lo compré.
22. El yate me costaba \$1.000.000, pero no lo compré.
18. El tren tardaba 3 horas en recorrer el camino, pero lo hizo en 2.
37. El concierto duraba hasta las 7 p.m., pero terminó a las 8 p.m.
25. La reunión duró hasta las 6 p.m., pero terminó a las 6:30 p.m.¹⁸

¹⁸ 문항 번호는 설문지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며, 27번과 28번 문항은 동일한 정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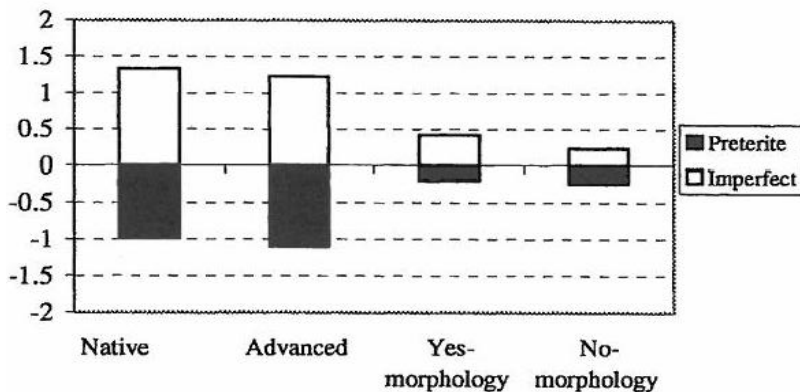
문장의 순서대로 상태동사가 쓰인 형태를 보면 ‘불완료-완료-완료-완료-불완료-불완료-불완료-완료’인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17번과 가장 정답률이 높았던 25번을 제외한 문항들을 보면, 완료 과거로 쓰인 경우의 정답률이 더 낮았다는 것이다. 즉 학습자들은 상태동사가 완료동사로 쓰인 경우를 비문이 아닌 정문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등위접속사 pero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가 완료 과거인 것을 보았을 때, 이들은 pero 앞의 완료 과거와 뒤의 완료 과거의 관계를 ‘서술(narration)’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학습자들은 완료 과거가 반복해서 쓰일 경우 상황을 서술하는 용법이 된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태동사가 완료 과거로 쓰였을지라도 정문을 형성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성취동사 역시 학습 단계에 따라 정답률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87) 한국인 학습자들의 성취동사 Semantic Test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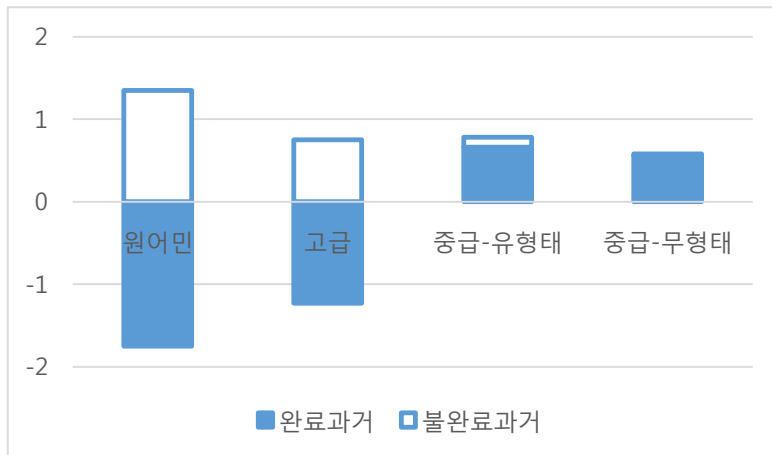
(88) 영어권 학습자들의 성취동사 Semantic Test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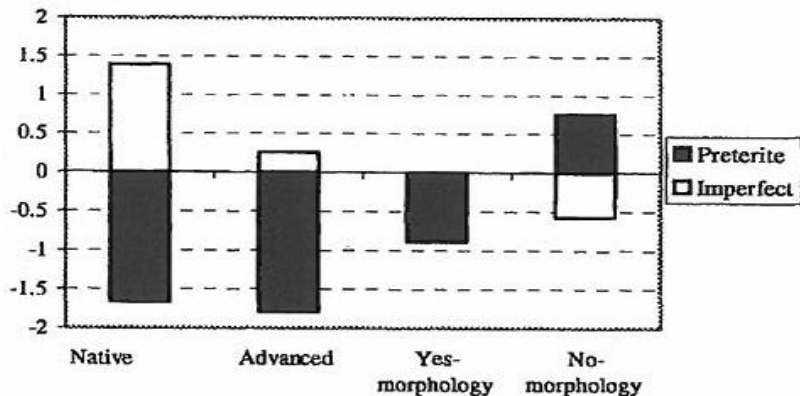
성취동사에 대한 Semantic Test에서도 상태동사와 마찬가지로 한국인 중급 학습자들은 무형태 뿐만 아니라 유형태 그룹에서도 비문을 가려내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중급 학습자들의 성취동사와 관련된 문맥에 따른 상적 의미 차이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성취동사의 원형 조합(완료 과거)은 비문이 되고 비원형 조합(불완료 과거)은 정문이 되는 문항 구성에 의해 정답률이 낮을 것이라는 예상과 부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이 Test에서는 성취동사의 어휘적 상과 형태적 상이 불일치하는 ‘불완료상’이 정문이 되는 경우를 다루었기 때문에, 정답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했었고, 설문 결과 이 예상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달성동사는 [+중결]이라는 점에서 성취동사와 비슷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정답률에 있어서도 성취동사의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89) 한국인 학습자들의 달성동사 Semantic Test 결과



(90) 영어권 학습자들의 달성동사 Semantic Test 결과



달성동사의 *Semantic Test*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인 중급 학습자들과 영어권 중급 학습자들 모두 불완료 과거로 쓰인 문장이 정문이라고 선택한 비율보다, 완료 과거로 쓰인 문장이 정문이라고 잘못 선택한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두 언어권에서 스페인어 학습이 비교적 덜 진행된 단계의 학습자들에게는 달성동사의 어휘적 상이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들은 달성동사의 [+종결]적인 성격에 영향을 받아 비록 비문이라고 할지라도, 달성동사가 완료 과거로 쓰인 경우는 모두 정문으로 잘못 판단한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Task 1*와 *Task 2*의 결과를 비교해 봄으로써 학습자들이 스페인어의 과거 형태와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상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급 무형태는 물론이고 중급 유형태의 경우 역시 특히 [+종결] 동사가 사용된 문항들에 대해 굉장히 낮은 정답률을 보이며, 아직 원형 조합을 이루는 어휘적 상에 한정된 완료/불완료 과거의 쓰임을 이해하는 수준에 그침을 보였다. 그러나 고급으로 갈수록 정답률이 상승하는 것을 보았을 때, 꾸준한 학습에 의해 문맥에 따른 상의 의미적 특성에 대한 학습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설문 결과를 통해 앞서 살펴본 완전접근가설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 *Task 2*의 결과를 형태적 상과는 관계 없는 상의 의미적인 특성 인식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유의미(Yes-semantics)’, ‘무의미(No-semantics)’로 구분하여 *Task 1*의 ‘유형태’, ‘무형태’와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다.¹⁹ 학습의 단계 별로 의미와 형태의 상관 관계를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앞서 중급 유형태, 중급 무형태를 나누었던 것처럼, 고급과 원어민 그룹도 역시 유형태/무형태와 유의미/무의미로 집단을 세분하고자 한다. 즉, 형태와 의미가 일치하지 않아도 문맥에

¹⁹ Montrul & Slabakova(2002)에서는 유의미와 무의미 그룹을 나눌 때에 원어민 그룹의 점수를 기준으로 삼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들은 상태동사, 성취동사, 달성동사에 각 14문항씩을 제시하였다. 14문항 중 7문항은 완료 과거로, 나머지 7문항은 불완료 과거로 구성되었는데 원어민 화자들은 모든 항목에 대해 7문항 중 5문항 이상의 정답을 맞추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각 항목에 5문항 이상의 정답을 맞추는 경우를 ‘유의미’로, 4문항 이하의 정답을 맞추는 경우를 ‘무의미’로 구분하였다. 이 기준은 본 설문을 분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문장의 논리성을 판단하는 *Logical Test*에서 보았듯이, 한국인 학습자들은 *Logical Test*와 *Semantic Test*에 걸쳐 전반적으로 *Task 2*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중급-유의미’에는 단 한 명의 학습자만이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의미한 분석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설문에서는 설문 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른 상적 의미를 이해하면 유의미 그룹에 속하게 되며, 반대로 이러한 상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 하면 무의미 그룹에 속하게 된다. 제시된 37 문항 중 함정 문장으로 구성된 14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23문항에 각 2점씩 부여하여 46점을 만점으로 설정하여 파악한 전체 실험 참가자 150명의 평균 점수는 11.94였고, 이에 따라 12점 이하의 점수를 획득한 학습자들을 ‘무의미’ 그룹으로 나누고 13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학습자들을 ‘유의미’ 그룹으로 나누어 분포를 파악하면 아래와 같다.²⁰

(91) 학습자의 수준에 따른 의미와 형태의 상관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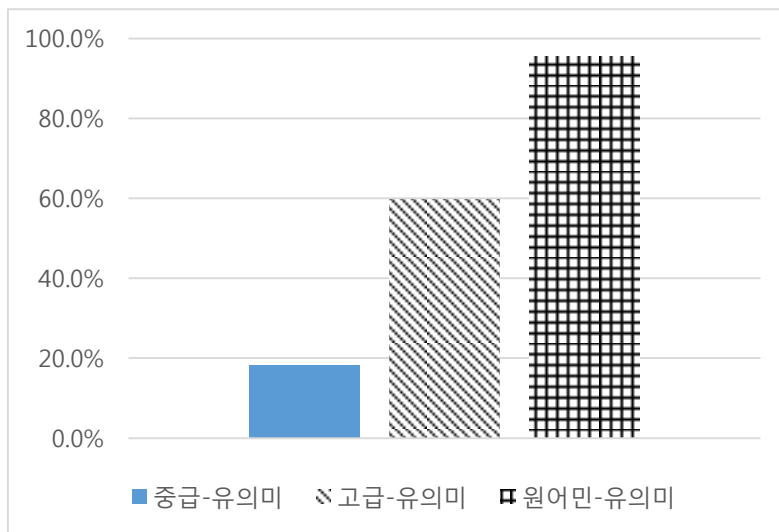
		무형태	유형태
중급	무의미	20명	34명
	유의미	6명	6명
고급	무의미	4명	21명
	유의미	3명	34명
원어민	무의미	1명	0명
	유의미	7명	14명

위의 표를 보면, 중급의 경우 ‘유형태-무의미’가 가장 높은 인원수를 보이고 있으며, 무형태와 유형태 모두의 경우에서 유의미로 분류되는 학습자의 수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급의 경우 ‘유형태-유의미’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무형태-유의미’인 경우가 가장 적게 나타나 있다. 원어민의 경우, 역시 ‘유형태-유의미’의 비중이 높으며 ‘유형태-무의미’인 화자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특징적이다. 또한 ‘무형태-유의미’인 원어민의 경우도 7명으로 꽤 많은 인원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Task 1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무형태로 분류되었던 화자들이 Task 2에서는 높은 정답률을 회복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²⁰ 11.94라는 전체 평균 점수는 46점을 만점으로 보았을 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점수이다. 이는 한국 학습자들의 Logical Test 결과에서부터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한 양상이었다. Logical Test를 통해 한국 학습자들은 영어권 학습자들에 비해 스페인어 문장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발견되었고, 이는 Semantic Test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보였다. 또한 한국 학생들의 특성 상 극단적인 답안인 ‘매우 어색’과 ‘매우 적합’을 선택하기 보다는 ‘조금 어색’과 ‘조금 적합’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2점을 획득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던 것도 낮은 평균 점수의 원인이 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Montrul & Slabakova(2002)의 유의미-무의미 구분 기준을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었기에 본 설문조사 자체의 기준을 설정하여, 비록 낮은 점수라고 하더라도 중급에서 고급으로 갈수록 유의미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였다.

또한 아래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모든 학습 단계에서 ‘유형태-유의미’에 속하는 인원 수를 파악하여 이들이 그룹 내에서 어느 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중급의 경우, 총 66명의 학습자 중 유의미 그룹에 속하는 비율이 채 20%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학습 단계가 심화된 고급의 경우, 총 62명 중 60%에 달하는 학습자들이 유의미 그룹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원어민의 경우 총 22명 중 1명을 제외한 모든 화자가 유의미 그룹에 속하여 9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92) ‘유형태-유의미’ 그룹의 학습 단계별 분포도



종합하여 보면, Task 1의 Morphology Test를 통하여 스페인어의 완료/불완료 과거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습득되는 것은 의미와 형태가 일치하는 경우임을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은 스페인어의 과거에는 완료 과거와 불완료 과거라는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각 형태는 동사의 어휘적 상과 관련하여 사용됨을 먼저 인지한다. 또한 Task 2의 Semantic Test를 통하여 상의 형태가 의미와 일치하는 형태적 상을 학습한 후, 형태적 상과 어휘적 상이 충돌하는 비원형 조합 역시 정문을 이를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되며, 문맥에 따라 이러한 원형 조합과 비원형 조합이 각각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분명히 학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급 유형태 그룹은 Semantic Test의 결과, 무의미에 속하는 학습자가 다수였지만, 고급 과정으로 갈수록 유의미 그룹의 학습자 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고급 단계에 이르게 되면 절반 이상의 학습자들이 원어민 화자들과 유사한 패턴으로 스페인어의 과거 시제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3.2에서 보았던 완전접근가설과 부분접근가설의 입장 중에서 완전접근가설이 더욱 타당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즉, 유형태 그룹을 보았을 때 중급에서 고급으로 그리고 원어민으로 스페인어 구사 수준이 올라갈수록 유의미의 비율 역시 상승했다는 사실은, 의미와 형태가 충돌하더라도 문맥에 따른 스페인어 동사의 상적 의미 차이를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잘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역으로, 무형태가 있는 중급의 경우, 무의미 역시 많다는 사실은 형태와 의미가 일치하는 상적 형태를 습득하지 못한 학습자들은 형태와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상적 의미 차이 역시 습득하지 못함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통해,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완전접근가설을 지지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4.3.3. Task 3 결과 분석

Task 3를 통해서는 한국인 학습자들의 스페인어 완료/불완료 과거 특수 용법 관련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 제시된 문제들은 4 가지 유형의 특수 용법을 검증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각 용법에 따른 설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4.3.3.1. 의미 변화 용법의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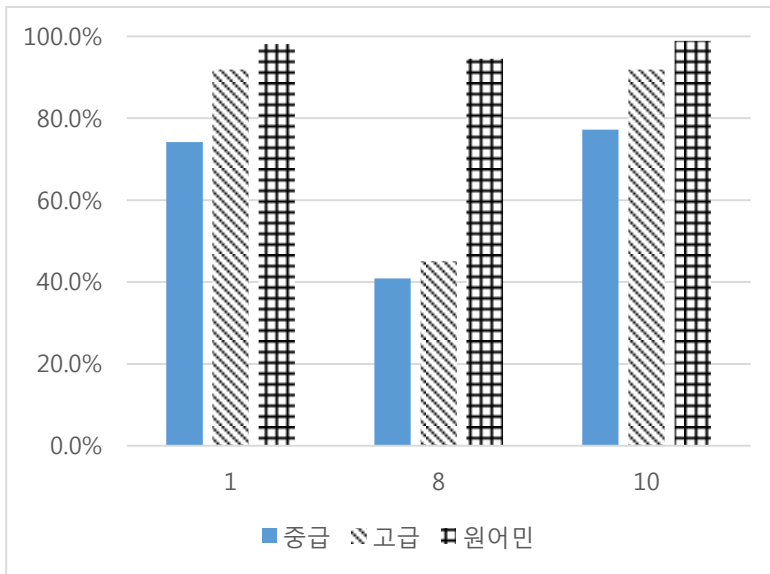
의미 변화 용법은 상태동사의 어휘적 상과 형태적 상의 상호 관계, 즉 Task 2의 Semantic Test와 관련되어 있다. 이 용법에 대한 설문 문항과 등급별 정답률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93) 의미 변화 용법 문제 및 정답률

	문제	정답	정답률		
			중급	고급	원어민
1	En Navidad, Carmen hace una fiesta e invita a todos sus viejos amigos. Entre todos los invitados están Susana y Marcos, que no se ven muy seguido. Cuando Marcos conversa con Susana le pregunta por su familia. Susana le cuenta a Marcos que su familia está viviendo en Barcelona ahora. : Marcos conoció a Susana.	FALSO	74.2%	91.9%	98.1%
8	Ana va a la boda de sus amigos Carlos y Carolina. Ana no tiene novio. Carolina le presenta a Roberto. Ana y Roberto bailan toda la noche.	FALSO	40.9%	45.1%	94.5%

	: Ana conocía a Roberto.				
10	Desde chico, Rodolfo ha sabido que él no es hijo legítimo de don Camilo y la verdad sobre sus padres. Hoy, don Camilo conversa con él sobre esto, pero para Rodolfo ya no es una sorpresa. : Rodolfo sabía la verdad.	VERDADERO	77.2%	91.9%	98.9%

(94) 의미 변화 용법 정답률



도표와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번과 10번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모두 70%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높았던 반면 8번 문항은 고급 그룹에서조차도 45.1%의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이는 각 문항에서 동사가 제시된 형태와 관련되어 있다. 1번 문항을 보면 *conocer*라는 상태동사가 완료 과거로 쓰여 있다. 학습자들은 기본적으로 ‘상태동사-완료 과거’의 비원형 조합을 어색하다고 느끼며, 이에 따라 주어진 문장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saber*라는 상태동사가 불완료 과거로 쓰인 10번 문항은 ‘참’이라고 판단되며 문맥 상으로도 불완료 과거로 쓰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8번 문항의 경우, *conocer*라는 상태 동사가 불완료 과거로 쓰여 원형 조합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이 문장이 ‘참’일 것이라고 판단하기 쉽지만, 문맥을 고려하면 정답은 ‘거짓’이다. 이를 통해 중급은 물론이고 고급 수준의 학습자들까지도 아직 상태동사는 항상 불완료 과거와 쓰일 것이라는 판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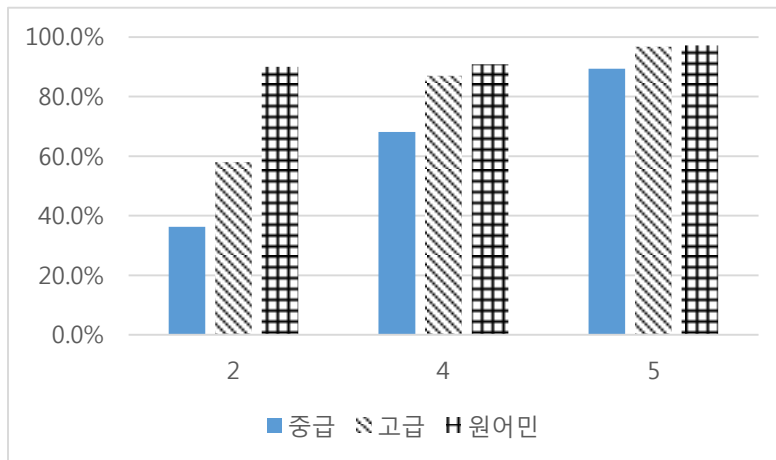
4.3.3.2. 습관 해석 용법의 검증

습관 해석 용법은 동사의 어휘적 상과는 관계 없이 상황의 일시성/반복성에 따라 완료/불완료 과거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학습자들의 설문 결과는 아래와 같다.

(95) 습관 해석 용법 문제 및 정답률

	문제	정답	정답률		
			중급	고급	원어민
2	Lisa va al teatro cada semana. Ella tiene un coche de marca alemana, pero hoy no quiere conducir porque no encuentra su carné. : Lisa caminó al teatro.	VERDADERO	36.3%	58.0%	90.0%
4	Panchito era muy tímido y no tenía muchos amigos con quien jugar. Pasaba todo el tiempo en su casa con su mamá. Ayer, Panchito se reunió por primera vez con sus vecinitos para jugar y pasaron un rato muy agradable. Hoy, se quedó nuevamente con su mamá. : Panchito jugaba con sus vecinos.	FALSO	68.1%	87.0%	90.9%
5	Laurita tenía muchos amigos y después de la escuela pasaba el tiempo en la casa de sus vecinos. Ayer, se quedó en casa con su mamá y pasó un rato muy agradable. : Laurita jugaba con sus vecinos.	VERDADERO	89.3%	96.7%	97.2%

(96) 습관 해석 용법 정답률



학습자들은 2번 문항에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으며 5번 문항에서는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2번 문항의 경우, 상황을 설명할 때는 conducir라는 동사를 사용했지만 문장에서는 caminar라는 동사가 제시되었다. 따라서 중급 학습자들의 경우 주어진 상황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Lisa caminó al teatro.’가 맥락과 관계 없는 문장으로 받아들여져, ‘거짓’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반면, jugar라는 [-종결] 동사를 불완료 과거로 사용한 4번과 5번 문항에 대해서는, 주어진 동사가 원형 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참’이 정답이 되는 5번 문항의 정답률이 더욱 높게 나타나 학습자들이 기본적으로 어휘적 상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검증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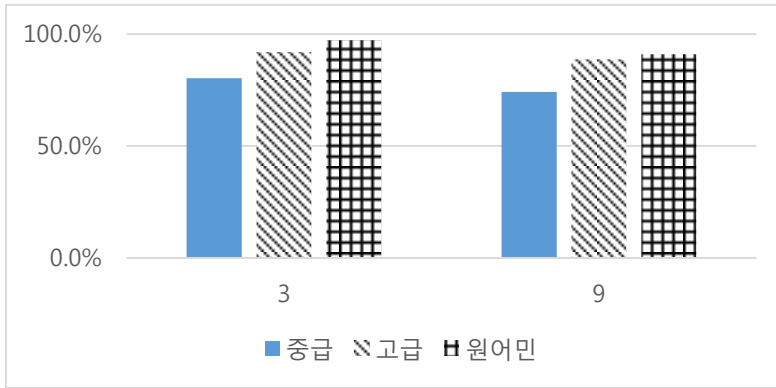
4.3.3.3. 비실제 상황 용법의 검증

비실제 상황을 표현할 때는 항상 불완료 과거가 쓰인다는 것을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설문의 결과는 아래와 같이 분석되었다.

(97) 비실제 상황 용법 문제 및 정답률

	문제	정답	정답률		
			중급	고급	원어민
3	Carmen tiene una hija pequeña, Lucía. Todos los días, Carmen le cuenta cuentos. Después del colegio, Carmen y Lucía juegan juntas y se inventan cuentos nuevos. : Lucía fue la princesa y Carmen la reina.	FALSO	80.3%	91.9%	97.2%
9	Anoche Carmen tuvo un sueño. En el sueño, ella está en la playa y pasa un tiempo maravilloso con su familia. : Carmen estaba en la playa con su familia en el sueño.	VERDADERO	74.2%	88.7%	90.9%

(98) 비실제 상황 용법 정답률



분석의 결과, 예상했던 바와는 달리, 중급 학습자들도 70% 이상의 높은 정답률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주어진 문장에서 사용된 동사의 종류가 상태동사이며 완료 과거로 쓰였을 때 ‘거짓’, 불완료 과거로 쓰였을 때 ‘참’이기 때문에 어휘적 상의 특징만으로도 정답을 맞출 수 있었다. 둘째, 비실제적인 상황에서 불완료 과거가 쓰인다는 특수한 용법을 중급 학습자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후자의 설명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지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급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교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의 장에서 교재 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해보도록 하겠다.

4.3.3.4. 총칭적 해석 용법의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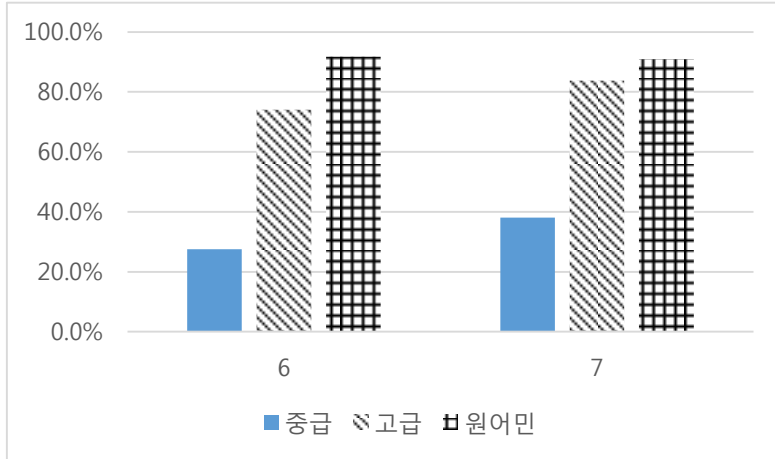
불완료 과거의 총칭성에 관련된 문항들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결과가 발견되었다.

(99) 총칭적 해석 용법 문제 및 정답률

	문제	정답	정답률		
			중급	고급	원어민
6	Según el periódico, el restaurante de la calle Jefferson era muy bueno y el servicio era excelente. Lamentablemente, el restaurante cerró el verano pasado y nunca tuvimos la oportunidad de ir. : Se comió bien en ese restaurante.	FALSO	27.5%	74.1%	91.8%
7	Según la mayoría de la gente, el restaurante de la calle Jefferson era muy bueno y el servicio era excelente. Fuimos a celebrar el cumpleaños de	VERDADERO	38.1%	83.8%	90.9%

Carlos y a todos nos gustó mucho. ¡Qué lástima que lo cerraron! : Se comió bien en ese restaurante en aquella ocasión.				
--	--	--	--	--

(100) 총칭적 해석 용법 정답률



총칭적 해석과 관련된 6번 문항은 중급 그룹만 보았을 때, Task 3에서 제시된 10개의 문항 중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불완료 과거의 총칭성과 관련된 이 용법은 미묘한 문맥의 차이를 인지해야 하므로 완료/불완료 과거의 기본적인 용법도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중급 학습자들이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4.3.4. Task 4 결과 분석

Task 4에서는 스페인어의 계사 동사인 ser, estar와 관련된 상적인 특징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해 학습자들이 이 두 동사를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에서 각각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검증해 보았다. 먼저 현재 시제로 동사를 활용해야 하는 문항을 ser가 정답인 문항과 estar가 정답인 문항으로 나누어 그룹별 정답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01) ser가 정답인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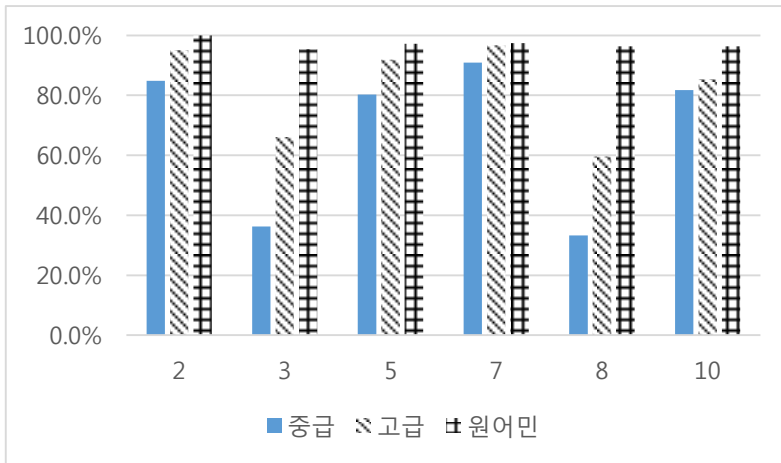
	문제	정답	정답률		
			중급	고급	원어민
2	[Es/Está] de estilo barroco.	es	84.8%	95.1%	100%
3	Esta tarde, hay un concierto en la ciudad. El concierto [es/está] en este teatro.	es	36.3%	66.1%	95.4%

5	[Es/Está] maravilloso, me gusta muchísimo.	es	80.3%	91.9%	97.2%
7	No [es/está] muy grande.	es	90.9%	96.7%	97.4%
8	Esta tarde, hay un partido de fútbol entre los dos mejores equipos de la ciudad. El partido [es/está] en este estadio.	es	33.3%	59.6%	96.3%
10	[Es/Está] muy emocionante.	es	81.8%	85.4%	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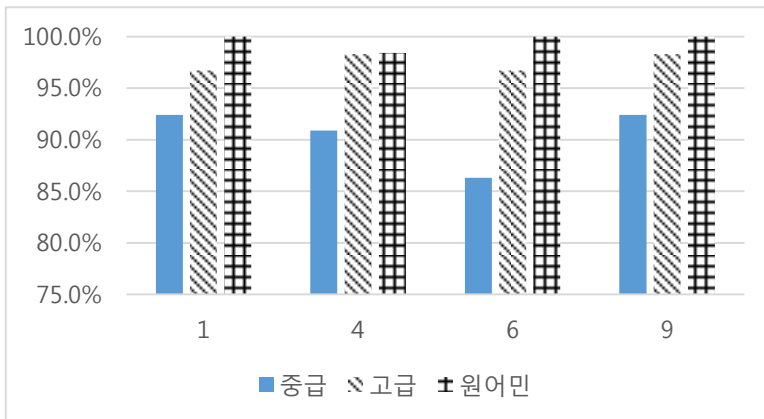
(102) estar가 정답인 문항

	문제	정답	정답률		
			중급	고급	원어민
1	En la ciudad, hay un teatro, [es/está] en la calle San José.	está	92.4%	96.7%	100%
4	Yo también [soy/estoy] aquí.	estoy	90.9%	98.3%	98.4%
6	En la ciudad, hay un estadio, [es/está] al otro lado del río.	está	86.3%	96.7%	100%
9	Nosotros también [somos/estamos] aquí.	estamos	92.4%	98.3%	100%

(103) ser가 정답인 문항



(104) estar가 정답인 문항



도표와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3번과 8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모든 그룹에서 80% 이상의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ser와 estar를 구분하는 것은 초급 단계에서 이미 학습이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중급 학습자들이 5번과 10번을 어려워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들은 3번과 8번의 두 문항에 30%대의 매우 낮은 정답률을 보이는 것이 확인된다. 바꿔 말하면, 중급 단계의 학습자들은 주어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개체 층위 술어인 ser가 쓰인다는 것을 이미 주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장소술어구문의 구분이었다. 구체적으로, 3번 문항을 예로 들어 분석해 보겠다.

(105) Esta tarde, hay un concierto en la ciudad. El concierto [es/está] en este teatro.

오늘 오후에 시내에서 콘서트가 있다. 콘서트는 이 극장에서 있다.

3번 문항에서 ‘El concierto [es/está] en este teatro’를 한국어로 해석할 때,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한국 학생들에게 영어의 be, 스페인어의 ser/estar와 같은 기사 동사는 ‘있다’로 대응되기 때문이다. 이때, 동사 뒤에 나오는 en este teatro가 장소술어로 여겨져 많은 학생들이 이 문장을 estar로 표현되는 장소술어구문으로 착각하게 되고, 따라서 정답인 es가 아닌 está를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동일한 텍스트를 과거 시제로 변형하여 ser와 estar를 각각 알맞은 과거 시제 형태로 기입하도록 한 두 번째 유형의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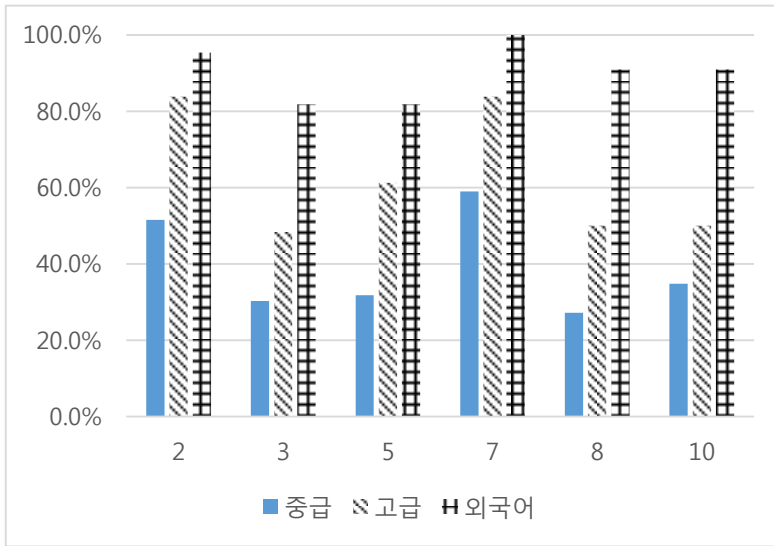
(106) ser가 정답인 문항

	문제	정답	정답률		
			중급	고급	원어민
2	_____ de estilo barroco.	era	51.5%	83.8%	95.4%
3	El lunes hubo un concierto en la ciudad. El concierto _____ en ese teatro.	fue	30.3%	48.3%	81.8%
5	_____ maravilloso, me gustó muchísimo.	fue	31.8%	61.2%	81.8%
7	No _____ muy grande.	era	59.0%	83.8%	100%
8	El miércoles hubo un partido de fútbol entre los dos mejores equipos de la ciudad. El partido _____ en este estadio.	fue	27.2%	50.0%	90.9%
10	_____ muy emocionante.	fue	34.8%	50.0%	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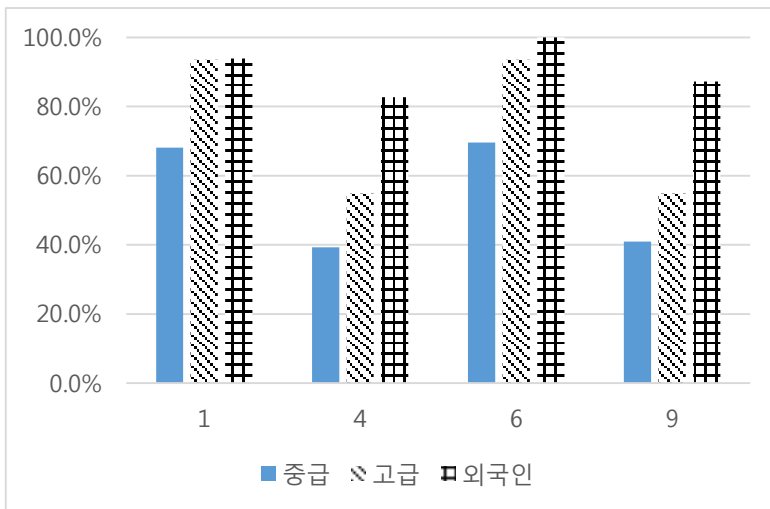
(107) estar가 정답인 문항

	문제	정답	정답률		
			중급	고급	원어민
1	En la ciudad, había un teatro, _____ en la calle San José.	estaba	68.1%	93.5%	93.9%
4	Yo también _____ allí.	estuve	39.3%	54.8%	82.7%
6	En la ciudad, había un estadio, _____ al otro lado del río.	estaba	69.6%	93.5%	100%
9	Nosotros también _____ allí.	estuvimos	40.9%	54.8%	87.2%

(108) ser가 정답인 문항



(109) estar가 정답인 문항



전체적으로, 현재시제에서보다 과거 시제에서 정답률이 더욱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er가 정답인 문항에서는 불완료 과거인 era가 정답이 되는 문항보다 완료 과거인 fue가 정답이 되는 문항에서 중급 그룹의 정답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estar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불완료 과거인 estaba가 정답이 되는 문항보다 완료 과거인 estuve/estuvimos가 정답이 되는 문항에 대한 정답률이 더욱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들이 아직 ser와 estar의 어휘적 상의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상태동사에 속하는 ser와 estar가 문맥에 따라 완료 과거와 불완료 과거로 적절히 변형된다는 것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중-고급 단계의 학습자들은 이 두 동사를 모두 불완료 과거로만 변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4.3.5. 설문 분석 결과 종합

본 설문을 통해서 검증하고자 했던 네 가지 사항과 이에 대한 중급, 고급, 원어민 그룹별 설문 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10)

문제 유형	검증 목표	검증 사항
Task 1	상 가설 vs. 시제 가설	상 가설에 가까움 (단정 불가)
Task 2	완전접근가설 vs. 부분접근가설	완전접근가설
Task 3	특수 용법 학습 여부	중급 학습 미흡
Task 4	ser/estar 구분 여부	과거 시제에서의 상적 대조 활용 미흡

우선 학습자들의 과거 시제 사용 양상을 통해 상 가설과 시제 가설 중 더욱 부합하는 가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했던 Task 1에서는 상 가설에 더 적합하였음을 알게 되었다.²¹ L2로 스페인어를 배우서 이미 스페인어에는 두 개의 과거 시제 형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정답을 맞추었다. 이는 초급 수준의 L2 학습자도 완료/불완료 형태를 동사의 어휘적 상과 관련 지어 구분하여 사용함을 보여준다.

²¹ 상 가설과 시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과거 시제를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학습자들에 한정하여 그들의 점진적인 발전 과정을 파악해야 하지만 이번 설문에서는 이미 과거 시제를 배운 학습자들에게 지필 형식의 설문(written test)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검증의 한계가 있었다.

어휘적 상과 형태적 상이 일치하지 않는 문장들로 구성된 Task 2를 통해서는 완전접근가설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거 시제와는 관계가 없이 논리성만을 판단하는 문항에서조차 어려움을 겪었던 중급 학습자들과는 달리, 고급 학습자들은 논리성 판단 문항은 물론이고 어휘적 상과 형태적 상이 불일치하는 과거 시제 문항에서도 미묘한 의미 차이를 파악하여 정문과 비문을 가려내는 언어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이는 모국어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모국어와 다른 양상으로 표현되는 L2의 기능 범주 및 형식 자질이 학습되어 학습자들이 모국어 화자들과 유사한 양상의 언어 구사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는 완전접근가설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의미 변화, 습관 해석, 비실제 상황, 총칭적 해석의 네 가지 특수 용법의 학습 여부를 검증하고자 했던 Task 3를 통해서는 중급 학습자들의 경우 각 용법에 대한 학습이 아직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학습자들은 특히 동사의 어휘적 상에 기반하여 과거 형태를 결합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학습의 단계가 낮은 학습자일수록 완료/불완료 과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용법과는 관계 없이 비원형 조합으로 쓰여진 문장을 어색하거나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받아들였다. 즉, Task 2의 Semantic Test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Task 4는 구체적으로 ser/estar와 관련된 문항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스페인어의 두 계사 동사를 어떻게 인지하고 사용하는지를 검증해 보았다. 현재 시제의 경우, 초급 단계에서 이미 두 동사의 용법을 학습했기 때문에 모든 그룹에서 비교적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그러나 과거 시제로 바꾸었을 때, 중급 학습자들은 두 동사가 모두 상태동사에 속한다고 생각하여 불완료 과거로만 변형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어진 문장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 즉 화자의 관점에 근거하여 완료/불완료 과거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학습자들은 여전히 어휘적 상에 근거하여 원형 조합만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역시 Task 2의 Semantic Test의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Task 2의 Semantic Test는 어휘적 상과 형태적 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 여부 조사였다. 그 결과, 중급에서 고급으로 갈수록 정답률이 높아지며 유의미 그룹의 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형태와 의미가 불일치하는 Task 3와 Task 4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향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파악할 수 있다.

본 설문 결과는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육 시 학습자들이 스페인어의 완료/불완료 과거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학적 고민의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스페인어에는 한국어와는 달리 두 가지 형태의 과거 시제가 있으며, 이 두 형태는 기본적으로 어휘적 상에 의존하지만, 문맥과 화자의 관점에 따라 달리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중급 이상의 스페인어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학습의 과제임에 틀림 없다. 다음 장에서는 본 설문으로부터 얻은 한국인 학습자들의 스페인어 과거 시제 학습 양상에 입각하여, 현재 스페인어 교육 시 완료/불완료 과거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연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의 교육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5. 스페인어 완료/불완료 과거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교수법

본 장에서는 스페인어 완료/불완료 과거가 한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실 수업 상황에서 활용되는 교재에는 어떻게 소개 및 설명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재학(2004)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스페인어 직설법 완료 과거와 불완료 과거의 성격을 파악하려는 많은 연구논문들이 발표되었으며 이러한 성과물을 토대로 하여 이 동사들의 효과적인 학습 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외국인이 스페인어 직설법 완료/불완료 과거를 학습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특히 한국의 스페인어 학습자들 중 상당수가 치르고 있는 DELE에서는 완료 과거와 불완료 과거의 대조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문항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형태를 구분하여 이해 및 학습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²² 하지만 위 연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에 나와 있는 스페인어 문법서들의 직설법 완료/불완료 과거에 관한 설명이 이 동사들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여 학습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스페인어 교육에 있어서 완료/불완료 과거와 관련된 상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과 이해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스페인어 교육 시에 완료/불완료 과거의 선택에 따라 발생하는 미묘한 의미적 차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새로운 교육학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한국어권, 영어권, 스페인어권에서 출판된 총 6권의 교재를 분석하여 완료/불완료 과거가 어떠한 형식으로 설명 및 소개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인 학습자의 입장에서

²² 신자영(2011)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최근 스페인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DELE 자격증에 대한 관심도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스페인어를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졸업 요건으로 DELE 등의 공인어학능력인증 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스페인어 학습자들에게 DELE의 출제 유형과 기출 문제가 학습의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2006년의 기출문제부터 가장 최근에 소개된 새로운 유형의 DELE 중급 B1과 B2 모의고사 중 총 7회 분량의 문제들을 분석해 본 결과, 완료 과거와 불완료 과거의 대조는 비교적 하위 레벨에 속하는 B1에서도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문항이며, 과거 시제에 대한 학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B2의 경우에서도 역시 가장 높은 비율로 출제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스페인어의 과거 시제를 완전히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5.1. 교재 분석 대상 및 선정 기준

본 논문에서 분석할 교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선정되었다. 우선 학습자들이 스페인어를 공부할 때에 주된 참고서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힌 “종합 기초 스페인어”를 한국어권에서 출판된 교재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또한 설문 대상자 대다수의 소속 기관인 서울대학교의 스페인어 강의에서 주 교재로 사용되는 “초급 스페인어 2”를 분석하였다.²³ 한편 전 세계 스페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교재로는 영어권의 “Dos mundos”, 그리고 스페인어권의 “Prisma”와 “Gramática de uso del español”을 분석하였다. 각 교재의 출판사항 및 성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1)

	교재명	출판사	출판국가	성격
1	종합 기초 스페인어	삼지사 (2012)	한국	문법서
2	초급 스페인어 2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3)	한국	종합서
3	Dos mundos	McGraw-Hill (2010)	미국	종합서
4	Prisma (A1+A2)	Editorial Edinumen (2014)	스페인	종합서
5	Gramática de uso del español	Equipo de Idiomas de SM (2005)	스페인	문법서

위의 교재들을 살펴봄에 있어서 주된 관심을 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완료/불완료 과거의 정의와 용법의 설명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둘째, 완료/불완료 과거를 소개할 때 제시되는 예문에서 어떤 동작류를 지니는 동사가 사용되는가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ser와 estar는 완료/불완료 과거의 두 형태로 모두 제시되는지 확인하였다.

5.2. 교재 분석

5.2.1. 종합 기초 스페인어

본 교재의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교재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²³ 설문 대상자는 중급 이상 과목을 수강한 학습자들이지만, 분석의 대상이 된 교재는 초급인 이유는 대부분의 설문 대상자들이 이 두 초급 교재를 통하여 스페인어의 과거 시제를 학습했기 때문이다.

설명한다. 첫째, 초급 문법에서 고급 문법에 이르기까지 강의 식으로 상세히 체계적으로 설명되어 있어 초보자라도 쉽게 학습이 용이하다. 둘째, 독해와 번역에 충실한 주해를 달아 문장을 쉽게 풀이할 수 있다. 셋째, 독학을 하는 학습자들을 위해 부록에서 독해, 연습문제 및 번역의 해답을 실어서 학교의 교재로서는 물론 부교재, 참고서 및 독학서로 손색이 없으며 외무고시를 비롯한 각종 시험 준비를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된다. 이처럼 저자는 독해, 연습문제, 번역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스페인어 학습을 돕고자 교재를 집필하였으나, 모든 설명과 구성이 문법에 초점을 두고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본 교재는 종합서라기 보다는 문법서에 가까운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본 교재의 12과에서는 스페인어의 직설법 과거 시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데, 완료/불완료 과거를 소개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참고’라는 부분을 통해 용어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룬다.

참고 이 책에서 완료과거 단순형이라고 이름붙인 것은 여러 스페인어 문법책에서 직설법 부정과거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을 개칭한 것이다. 그리고 이 시제의 성격상 부정(否定)의 의미는 없고 완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스페인어의 한념헌에서 pretérito perfecto simple 라고 임시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본 책에서는 우리말로 완료과거 단순형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이러한 설명은 학생들이 완료 과거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을 접할 때, ‘완료’라는 의미와 관련을 지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용어 설명에 뒤이어 본격적으로 완료 과거의 용법을 아래와 같이 예문과 함께 제시한다.

- (112) 1. 동작 혹은 상태가 과거 어느 한 순간에 끝난 것을 표현할 때: Ella salió de la oficina a las 5 de la tarde.
 2. 계속적인 동작이나 상태라 할지라도 그것이 과거 어느 한 순간에 모두 끝난 것을 표현할 때: Esta mañana estuvimos 2 horas en la casa de María.

위의 용법 설명은 다소 간략하게 제시되기는 했지만, 동작과 상태 모두의 완료를 표현할 때 사용된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예문을 보면, 1번 설명에 대한 예문에서는 상태동사가 나타나지 않아 다소 미흡하다고 여겨졌지만, 2번 설명에 대한 예문에서 estar라는 상태동사가 등장하여 상태동사도 완료 과거로 사용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는 점에 주목할 만 하다.

완료 과거에 이어서, 불완료 과거의 용법이 나타나는데 구체적인 용법을 나열하기 전에 “직설법 불완료 과거는 과거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던 행위를 표현할 때 쓰이는 것이다. 즉 ‘...을 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래로도 이어지는 행위를 표현할 때도 쓰인다.”라는 설명을 제시하여 불완료 과거에 대한 개략적인 개념을 설명한다. 이 때, 미래로 이어지는 행위를 표현할 때 불완료 과거가 쓰인다는 점을 언급하여 불완료 과거가 갖는 시제적인 특징을 지적한다. 그러나 불완료 과거의 총칭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 구체적인 용법과 예문은 아래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

- (113) 1. 과거에 어떤 행동이 습관적으로 누차 지속되었던 것을 표현할 때: *Antes yo iba siempre al teatro.*
 2. 과거에 진행 중이었던 행위를 표현할 때: *¿A quién esperaba Ud. ayer en la estación?*
 3. 과거에 동시에 발생했던 연속적인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할 때: *Cuando vivía yo en el campo, iba al río a pescar.*
 4. 과거에 발생한 행위일지라도 어느 한 쪽의 동작이 한 순간에 끝나고 다른 한 쪽의 동작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을 표현할 때: *Cuando llegué a casa, mi mamá miraba la televisión.*
 5. “...을 하겠다고 말했다.”, “...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라고 말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주동사는 직설법 완료 과거 단순형을 쓰고 접속사 *que* 이후의 종속동사는 직설법 불완료 과거형을 써야 한다: *Me dijo que venía ayer.*
 6. 과거, 현재, 미래에 뜻을 두었다가 이행하지 않은 것이나 이행하지 않을 것을 표현할 때: *El sábado pasado yo iba a ir a la escuela, pero no fui.*
 7. 다음 짧은 문장들을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
Bebo vino en las comidas.
Bebía vino en las comidas.
Bebí vino anoche.

위의 용법들은 불완료 과거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경우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왜 이러한 용법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용법을 6개로 나누어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불완료 과거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암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완료/불완료 과거의 사용이 화자의 관점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아 단문이 아닌 장문의 텍스트에서 두 과거 시제를 접했을 때,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미흡하다. 예문에 사용된 동사는 [-종결] 동사와 [+종결] 동사가 모두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문법 설명 이후 이어지는 독해 부분에서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완료/불완료 과거를 모두 학습하도록 했던 문법 부분에서와는 달리, 독해에서는 모든 문장이 완료 과거로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두 과거 형태를 모두 학습했으니 독해를 통해 두 형태가 사용되는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불완료 과거에 대한 문장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웠다.

연습 문제의 경우, 아래와 같이 원형 조합뿐 아니라 비원형 조합에 대한 연습까지도 가능하도록 문제를 구성하였다.

- (114) Fernando se casó con Linda cuando _____ (tener) 28 años.
Ella me dijo que _____ (venir) al día siguiente.
Manuel _____ (pasar) 6 meses en Bogotá, pero está aquí ahora.
El año pasado _____ (estar) tú en Europa.

위에서 보듯이 상태동사를 포함한 서로 다른 동작류의 동사들이 완료 과거로 쓰일 때와 불완료 과거로 쓰일 때로 모두 제시됨으로써, 학습자들이 어휘적 상에 한정되지 않고 완료/불완료 과거를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장 단위의 연습 문제로는 단락으로 제시되는 스페인어 텍스트에서 완료/불완료 과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5.2.2. 초급 스페인어 2

본 교재는 서울대학교에서 교재명과 동일한 이름의 ‘초급 스페인어 2’ 강의의 주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저자들의 수년 간에 걸친 스페인어 교수법 연구 및 실제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10여 종의 교재를 철저히 분석하여 그 장단점을 취합하여 개발한 본 교재는 학습자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스페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즉 교재의 초점이 ‘의사소통’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본 교재는 4~6과의 총 3개 단원에 거쳐 완료 과거와 불완료 과거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앞의 ‘종합 기초 스페인어’와는 달리, 본 교재에서는 완료 과거를 지칭할 때 ‘단순과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완료 과거를 한 마디로 정의함에 있어서 “과거에 이미 끝난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완료 과거의

구체적인 용법은 아래와 같이 예문과 함께 제시된다.

- (115) 1. 과거의 한 시점에서 보았을 때, 이미 끝난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한다.
A: ¿A qué hora saliste ayer de la oficina?
B: Salía las cinco de la tarde.
2. 과거에 지속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던 동작이나 상태라도, 시작과 끝이 분명한 구체적인 기간 또는 거리가 명시되면 단순과거를 쓴다.
Ayer llovió todo el día.

용법은 ‘종합 기초 스페인어’와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본 교재의 특징적인 점은 1번 용법을 설명할 때 제시된 예문이 대화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의사 소통에 초점을 둔 교재이니만큼 대화문을 통해 예문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이해를 도왔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또한 llover와 같은 상태동사가 ayer라는 시간부사와 함께 완료 과거로 표현되어, 비원형 조합의 예문이 제시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불완료 과거의 경우, “과거의 반복적 행위, 습관, 지속적 행위나 상태를 강조하고자 할 때에는 불완료 과거 형태를 사용한다”라는 설명이 먼저 제시되고,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용법이 예문과 함께 제시된다.

- (116) 1. 과거에서 진행 중인 행위를 표현한다. ‘~하고 있었다’의 의미를 가진다.
A: ¿Qué hacían los niños?
B: Los niños jugaban al fútbol en la calle.
2. 특정한 시간부사와 함께 과거의 습관이나 반복적인 행위를 표현한다. ‘~하곤 했다’의 의미를 가진다.
Yo iba al cine todos los domingos.
3. 과거의 사실이나 장면의 묘사 및 심리적, 신체적 상태를 표현한다. ‘~상태였다’의 의미로 쓰인다.
Juan estaba enfermo y, por eso, no vino a trabajar.
4. 의도했으나 결국 하지 못했던 것을 표현한다.
Iba a llamarte, pero no pude.

위에서 보듯이, 4개의 불완료 과거 용법 중에서 1~3번의 3개 용법에 대해서는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해석을 제시하였다. 이는 과거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학습자들에게 익숙한 언어로 제시해줌으로써 그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생각된다. 아쉬운 점은 불완료 과거의 시제성이나 총칭성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본 교재는 아래와 같이 ‘단순과거와 불완료 과거의 비교’라는

부분을 설정하여 두 과거 형태를 대조적으로 설명한다는 특징이 있다.

2. 단순과거와 불완료과거의 비교

과거의 한 시점을 기준으로, 단순과거는 이미 끝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반면에, 불완료과거는 지속되거나 진행되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Eran las cinco de la mañana, cuando me desperté. 내가 잠에서 깨었을 때 아침 5시였다.

Quando yo estaba en la habitación, Pedro apagó la luz. 내가 방에 있을 때 페드로가 불을 껐다.

완료/불완료 과거를 [±완료]를 기준으로 대조하고 이에 상응하는 예문을 제시하여 두 과거 형태의 차이점을 부각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교재의 아쉬운 점은 ser와 estar 동사가 완료 과거로 변형되어 제시된 예문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예문에서 동사들이 원형 조합을 이루는 과거 형태로 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비원형 조합으로 구성된 문장들을 접해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의사소통에 초점을 두고 있는 본 교재는 각 과의 시작 부분에 대화문을 제시하여 해당 단원에서 학습하게 될 사항을 미리 소개한다. 4과의 대화문은 완료 과거를 활용한 표현들로 구성되었으며, 6과의 대화문은 불완료 과거를 활용한 표현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6과의 경우, 해당 단원의 학습 내용이 불완료 과거라도 할지라도, 이미 4과를 통해 학습자들이 완료 과거를 학습했기 때문에 두 과거 형태를 모두 활용하는 대화문이 제시되었더라면 학습에 더욱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앞서 언급한 ‘단순과거와 불완료 과거의 비교’가 문법 사항 중 하나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화문에서 미리 두 과거 시제가 함께 쓰인 문장을 접하고 학습을 시작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연습문제의 경우, 완료 과거의 형태를 훈련하는 문제가 아래와 같이 제시되었다.

- (117) 5. _____ (yo, cruzar) la calle y _____ (yo, llegar) a la estación de metro.
6. ¿Qué libro _____ (leer) usted la semana pasada?
_____ (yo, leer) El Quijote.

위의 5번 문제의 경우, 사건의 발생을 시간 순서대로 서술(narrate)할 때 완료 과거를 사용한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6번은 대화문으로 문제가 제시되어, 인칭에 따른 동사의 형태를 알맞게 연습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한편 *ser*와 *estar*가 완료 과거로 표현되는 경우는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연습문제를 통해서도 아래와 같이 제시되었다.

- (118) 3. El año pasado tú (*ser*) _____ el mejor jugador de nuestro equipo.
8. El concierto de Luis Miguel (*ser*) _____ en el Palacio de los Deportes.

위에서 보듯이, 빈칸 채우기 문제를 통해 *ser*가 완료 과거로 사용되는 예문이 제시되었다. 특히 본 논문에서 실행했던 설문조사의 Task 4의 문항 중에서 8번과 굉장히 유사한 문항이 있었는데, 많은 학습자들이 정답을 맞추지 못했다. 초급 스페인어 수업을 통해 이용법을 학습했을 것으로 사료되는 중급 이상의 학습자들이 높은 오답률을 보였다는 것은, *ser*를 활용한 이러한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위의 연습문제가 용법이 아닌 형태에 초점을 둔 연습문제였기 때문에 동사 변화를 올바르게 맞추었는가만 확인하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연습문제로 제시된 각각의 문장들이 동사의 형태뿐 아니라 용법의 설명에도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교재를 활용하는 교수자들이 각 문항의 의미를 함께 교육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star*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완료 과거로 연습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다.

- (119) ¿Dónde estuvisteis ayer? (*estar* en un parque de atracciones)

*ayer*라는 시간 부사가 함께 등장하여 학습자들이 *estar*의 비원형 조합을 더욱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star*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문항에서 *estuvisteis*라는 형태가 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이 덧붙여진다면 [±완료]라는 대조를 학습자들이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본 교재의 장점은 아래와 같이 단락을 활용한 연습문제가 제시된다는 것이다.

연습문제 7

빈칸에 알맞은 동사의 과거형을 쓰세요.

Pablo Picasso _____ (nacer) en 1881, en Málaga. Su padre _____ (ser) profesor de dibujo y conservador del museo de Málaga. En 1895, _____ (mudarse) a Barcelona, donde _____ (ingresar) en la Facultad de Bellas Artes. Cinco años más tarde, _____ (ir) por primera vez a París, donde _____ (organizar) una exposición. Picasso _____ (vivir) en Francia durante muchos años, pero siempre _____ (mantenerse) en contacto con España. En 1937, _____ (pintar) el “Guernica”, su obra más importante. En 1973, _____ (morir) en su casa en Notre-Dame-de-Vie (Francia).

위의 연습문제는 완료 과거를 학습한 후에 제시되어서 단편적인 문장들을 통해 익힌 완료 과거를 문맥에 맞게 활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학습자들에게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후 다음 과를 통해서 불완료 과거를 학습하고, 이 두 과거 형태를 활용할 수 있는 단락 차원의 연습문제가 제시된다면 모든 경우의 과거 시제 활용 훈련이 이루어져 학습자들에게 굉장히 유용할 것이지만, 본 교재에서는 이러한 연습문제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이 남는다.

5.2.3. Dos mundos

미국에서 출판된 교재인 **Dos mundos**는 의사소통 중심의 교재이며, 학습자들이 L2를 활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교재는 **Dos mundos**의 7번째 판이고 이 교재의 특징은 독학보다는 교실 수업 상황에서 활용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는 점이다.

본 교재에서는 6~9과에 걸쳐 완료/불완료 과거를 소개하고 있다. 우선 6과에서는 “과거의 행위(action)를 표현할 때 완료 과거를 사용한다”고 간단한 용법을 설명한다. 7과에서는 완료 과거의 복잡한 불규칙 형태들에 초점을 맞추어 동사 변화형을 중점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8과에서는 완료/불완료 과거를 문법 설명에서 따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예문들을 통해 6~7과를 통해 학습한 완료 과거 형태를 복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9과에서는 “과거의 습관”을 표현하는 불완료 과거를 소개하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완료 과거와 불완료 과거를 대조하여 설명한다.

(120) 1. Some verbs express actions (run, jump, eat); others express states (want, have, be, can). In the narration of a past event, verbs describing states or ongoing conditions are usually conjugated in the imperfect tense.

- Guillermo, ¿sabías la respuesta de la cuarta pregunta?
- Sabía una parte, pero no toda.

2. When Spanish speakers use state verbs in the preterite, they usually do so to convey that the state came to an end. English speakers often use completely different verbs to express that meaning. Compare the English equivalents of the following state verbs in the imperfect and in the preterite.

IMPERFECT		PRETERITE	
sabía	I knew	supe	I found out
no sabía	I didn't know	no supe	I never knew
conocía	I was acquainted with	conocí	I met
tenía	I had	tuve	I had; I received
quería	I wanted	quise	I wanted (and tried)
podía	I was able, could	pude	I could (and did)
no podía	I wasn't able, couldn't	no pude	I (tried and) couldn't

- ¿Supiste lo que les pasó a Graciela y Amanda?
- No, no supe nada. ¿Qué pasó?

3. The verbs ser and estar are usually used in the imperfect; they are used in the preterite only when the state has explicitly come to an end within a specified amount of time.

INFINITIVE	IMPERFECT		PRETERITE	
ser	era	I was	fui	I was
estar	estaba	I was	estuve	I was

- ¿Cómo eras de niño?
- Era muy tímido.
- ¿Cuánto tiempo fuiste presidente del club?
- Fui presidente seis años.

위에서 보듯이, 다른 교재와는 달리 Dos mundos에서는 동작동사(actions)와 상태동사(states)를 구분하여 설명한다. 특히 상태동사에 초점을 두고, 상태동사는 보통 상황의 배경을 묘사하기 때문에 불완료 과거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서 상태가 완료(come to an end)된 경우에는 완료 과거로 사용한다는 것을

몇몇 동사를 통해 나타낸다. 이 때, 각 형태에 대한 영어의 대응형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미묘한 의미의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ser*와 *estar*의 과거 시제 용법을 따로 정리하여 적절한 예문과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타 교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설명 방식이 두드러진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상태동사의 완료/불완료 과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문과 함께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상태동사와 달리 [+종결]의 특징을 갖는 동작동사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설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연습문제의 경우, 아래와 같이 단락 차원의 연습문제가 없이 문장 차원으로 동사 변화를 묻는 문제들로만 구성되었다는 한계가 보였다.

(121) Ahora Guillermo tiene 12 años, pero cuando tú lo conociste

_____ solo 8 años.

Ahora sé muy bien las respuestas, pero esta mañana, cuando tomé el examen, no las _____.

5.2.4. Nuevo Prisma Fusión A1+A2

2014년에 출판된 Nuevo Prisma Fusión A1+A2는 유럽 공통 참조기준을 근거로 하여 초급 단계의 학습자들이 스페인어의 의사소통적, 언어적, 문화적인 면모를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A1와 A2의 학습 단계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중급 단계로의 빠른 발달이 가능하도록 교재가 구성되었다. 완료 과거에 대한 소개는 본 교재의 12과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며, 설명 방식은 아래와 같다.



2.1.1 Vuelve a leer el texto, fíjate en los ejemplos y elige las palabras adecuadas para completar el cuadro.

Uso del pretérito indefinido

- × Con el pretérito indefinido el hablante se refiere al **pasado** / **presente**. Estas acciones están **terminadas** / **no terminadas**.
- × Marcadores temporales que se pueden usar con pretérito indefinido:
 - Anoche/Ayer/El otro día...
 - Hace dos meses/dos días/semanas...
 - El fin de semana/mes/año/verano... pasado/La semana pasada.
 - En el año...
 - El año pasado nevó mucho todo el invierno.
 - El mes pasado fui cuatro veces a la peluquería.
 - Ayer estuve con ella y me lo contó todo.
 - Volvimos a España en el año 2000.

본 교재에서는 완료 과거의 용법을 설명함에 있어서 본격적인 용법 설명 이전에 간단한 입을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주어진 본문이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SNS의 특징을 살려 제공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Te lo perdisteeee!”와 같이 스페인어 문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인터넷 언어를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있다. 학습의 주제인 완료 과거로 표현된 동사들은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그 형태에 주목하여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 본문을 읽은 후에는 바로 완료 과거의 용법을 설명하는데, 이 때 일방적으로 용법을 소개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 지나칠 수

있는 설명 부분을 스스로 집중하여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연습문제의 경우, 아래와 같이 단락을 활용한 문제를 제시하였다.

× ser	× estar (2)	× encantar	× bañar	× alquilar	× poder
× pasar	× dar	× salir	× llegar	× poner	× ir

Una vez mis amigos y yo ^[1] *estuvimos* en una isla paradisíaca. El viaje en avión ^[2] *interminable*, ¡12 horas!, pero valió la pena. ^[3] *de* Madrid con 3 °C y lloviendo, y durante los siete días que ^[4] *estuvimos* en la isla el tiempo fue maravilloso. Nada más llegar, ^[5] *hicimos* un coche y ^[6] *hacimos* una vuelta por la isla. Nos ^[7] *gustó* tranquilidad, vegetación, mar, playa... Una vez que ^[8] *fuimos* al hotel, nos ^[9] *pusimos* el bañador y nos ^[10] *volvimos* en la piscina. Ese primer día no ^[11] *podimos* ir a la playa, era muy tarde, pero después ^[12] *volvimos* todas las mañanas. ¡ ^[13] *hicimos* unos días maravillosos! ■

위의 연습문제는 단락으로 제시되어 학습자들이 문맥을 이해하며 완료 과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주어진 동사가 ser와 estar를 포함한 상태동사부터 모든 동작류의 동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장점이 보인다.

불완료 과거는 본 교재의 14과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소개된다.

Pedir y dar información

- × El pretérito imperfecto es un tiempo **pasado** que presenta la acción como un **proceso** sin indicar su final, en contraste con el pretérito indefinido que presenta las acciones completamente terminadas.

Por esta razón, el imperfecto se usa para:

 - Expresar acciones **habituales** en el pasado:
 - Cuando (*ser, yo*) *era* adolescente, (*tener, yo*) *tenía* que estar en casa a las diez de la noche.
 - Describir personas, cosas o lugares en el pasado:
 - No (*vivir, nosotros*) *vivíamos* tan estresados.
 - Expresar dos acciones **simultáneas** en el pasado:
 - Siempre se (*tener*) *tenía* la cortesía de preguntar si (*interrumpir, tú*) *interrumpías*.
- × Las **expresiones temporales** que acompañan al pretérito imperfecto:
 - Expresan **habitualidad**: *generalmente, habitualmente, normalmente, a veces, muchas veces, siempre, casi siempre, nunca, casi nunca, a menudo, todos los días/los meses/los años, por las mañanas/las tardes/las noches...*
 - Normalmente las personas (*estar*) *estaban* menos tensas porque la gente (*aprender*) *aprendía* a tener paciencia.
 - Mis padres casi nunca (*poder*) *podían* localizarme.
 - **Evocan una época** del pasado: *antes, cuando era pequeño/a, cuando vivía en Sevilla...*
 - Antes la vida sin móviles (*ser*) *era* bastante más libre.
 - O sirven para hablar de **dos acciones simultáneas**: *mientras, cuando...*
 - No se (*hablar*) *hablaban* por teléfono mientras (*comer, nosotros*) *comíamos*.
 - Nunca (*regresar, nosotros*) *regresábamos* a casa cuando se nos (*olvidar*) *olvidaban* el móvil.

불완료 과거와 관련된 용법을 나열하여 설명한다는 점에서는 기타 교재들과 비슷한 방식을 사용했지만, 예문을 제시하는 방법에서는

뚜렷한 차별을 보인다. 다른 교재들에서는 학습자들이 예문을 읽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제시했다면 본 교재에서는 학습자들이 예문에 들어갈 동사를 직접 변형하여 기입하도록 구성함으로써 형태와 의미에 다시 한번 주목할 수 있도록 했다. 눈으로 읽고 이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 기입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이목을 집중한 것이다.

이어지는 15과에서는 완료 과거와 불완료 과거를 아래와 같이 대조하여 설명한다.

(122) 1. Para presentar las acciones y los acontecimientos se usa el pretérito _____ :

- Cuando recibió su primera descarga eléctrica, el rayo le impactó en la pierna.

2. Para describir las circunstancias, los contextos, los escenarios... se utiliza el pretérito _____:

- Sullivan se encontraba en un mirador del Parque Nacional Shenandoah.

3. Para combinar acciones con circunstancias, contextos, escenarios... se utiliza el pretérito _____ y el pretérito _____:

- Sullivan se encontraba en un mirador del Parque Nacional Shenandoah cuando recibió la descarga del rayo.

본 교재에서는 위와 같이 완료/불완료 과거를 행위와 배경으로 대조한다. 행위, 동작 등을 표현할 때는 완료 과거를 사용하고 배경, 맥락, 장면 등을 표현할 때는 불완료 과거를 사용한다는 간단한 대조를 예문과 함께 제시하면서 학습자들이 쉽게 두 형태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설명에 이어서 아래와 같은 문제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연습하도록 구성했다.

(123) En el año 1920, mientras la novelista norteamericana Anne Parrish (recorrer) _____ las librerías de Paría, (encontrarse) _____ con un ejemplar de uno de sus libros favoritos de infancia: Jack Frost y otras historias. (Coger) _____ el viejo libro de la estantería y se lo (enseñar) _____ a su marido, diciéndole que ese era el libro que con más cariño (recordar) _____ de su infancia. Su marido (abrir) _____ el ejemplar y en la primera hoja (descubrir) _____ la inscripción: “Anne Parrish, 209 n. Weber Street, Colorado”. ¡(Ser) _____ el mismo ejemplar que (leer) _____ Anne!

앞서 살펴본 교재들에서는 완료/불완료 과거를 단락 차원의 연습문제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연습문제가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본 교재는 단락 차원에서 두 과거 형태를 문맥에 맞게 기입하는 형식의 문제가 제공되어 있었다. 이는 단편적인 용법 학습에서 벗어나 실제로 완료/불완료 과거를 활용하여 글을 구성하는 훈련을 통해 학습자들이 더욱 명시적으로 두 형태를 대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습문제라고 볼 수 있겠다.

5.2.5. Gramática de uso del español

이번에는 스페인에서 출판된 문법서에서의 완료/불완료 과거를 살펴보겠다. 본 교재는 초급~중급 단계의 학습자들이 독학을 통해 스페인어의 문법을 이론적으로 학습한 후 연습문제를 통해 실증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58-59과에서는 완료 과거를, 63과에서는 불완료 과거를 소개하며 64과에서는 두 형태를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우선 완료 과거에 대한 설명과 예문은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 (124) 1. Se usa el pretérito indefinido para hablar de acciones o situaciones pasadas. Nos dice qué sucedió en un momento concreto del pasado ya terminado, anoche, ayer, el jueves (pasado), la semana pasada, hace dos meses, en 1995...

Anoche no salimos. Nos quedamos en casa a descansar.

2. Se puede usar en una secuencia de acciones, todas acabadas.

Cuando acabó la película, encendieron las luces.

3. Se usa mucho en narraciones y biografías.

Miguel Ángel Asturias nació en Ciudad de Guatemala en 1899. Estudió Derecho en su país y pronto se interesó por las antiguas religiones y culturas de América Central. Publicó su primer libro, Leyendas de Guatemala, en Madrid, en 1930. Recibió el Premio Nobel de Literatura en 1967.

본 교재에서 제시한 완료 과거의 3가지 용법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겠다. 우선, 1~2번 용법은 완료 과거의 [+완료]라는 의미적인 자질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은 완료 과거가 서술에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예문을 문장과 단락 모두를 통해 제시했다. 특히 3번에서 제시된 단락 차원의 예문에서는 *interesarse*와 같은 상태동사가 완료 과거로 사용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설명에 이어지는 연습문제 역시 문장 차원의 문제와 단락 차원의 문제가 모두 제시되었다.

불완료 과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 (125) 1. Se usa el pretérito imperfecto para hablar de acciones habituales en el pasado. Informa de lo que era normal en una época del pasado o de lo que se hacía habitualmente en determinada época de la vida: cuando era joven, en aquella época, an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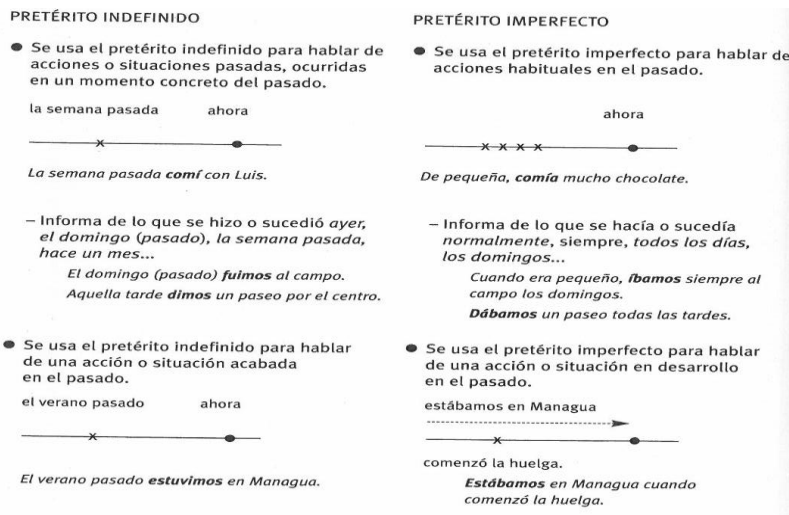
Los aztecas se alimentaban de maíz y frijol.

2. Se usa también el pretérito imperfecto para describir personas, cosas o lugares en pasado.

Yo vi al ladrón. Era alto, tenía el pelo corto y llevaba gafas de sol.

본 교재에서 소개하는 불완료 과거의 용법은 ‘습관’과 ‘묘사’로 정리할 수 있겠다. 가장 대표적인 용법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불완료 과거가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용법을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크게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연습문제의 경우, 문장 차원의 문제만 제시했던 다른 교재들과는 달리 문장 차원의 문제와 단락 차원의 문제가 모두 제공되어 있다는 장점을 보인다.

한편 본 교재에서는 완료 과거와 불완료 과거를 대조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그림을 활용한다.



완료 과거가 일시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반면에 불완료 과거는 반복적인 상황을 표현한다는 것을 간단하게 x의 연속으로 나타냈으며,

불완료 과거가 과거의 지속적이고 진행되는 상황을 표현한다는 것은 화살표를 통해 도식화하였다. 이렇게 그림을 활용한 설명은 학습자들이 추상적인 개념을 시각적으로 인식 및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도식을 통한 설명 이후에 다음과 같은 연습문제가 이어진다.

1. Ayer no (fui/iba) a trabajar. (Estuve/Estaba) enfermo.
2. ¿(Fuiste/lbas) mucho a la playa cuando (viviste/vivías) en Las Palmas?
3. El domingo pasado (estuvimos/estábamos) en la sierra. No (podimos/podíamos) esquiar porque no (hubo/había) nieve.
4. Cuando (fui/era) joven, (fui/iba) mucho al cine.
5. Carolina (estuvo/estaba) en medio del campo cuando (empezó/empezaba) a llover.
6. ¿Qué (hicisteis/hacíais) el sábado pasado?
7. ¿Dónde (estuviste/estabas) cuando (empezó/empezaba) el partido?
8. Anoche (vi/veía) a Marisa. (Llevó/Llevaba) un vestido precioso.
9. ¿Qué (hiciste/hacíais) en la calle cuando te (vio/veía) Lucas?

위의 같이 완료 과거와 불완료 과거의 형태를 제시하고 둘 중 알맞은 형태를 고르도록 하는 연습문제는 다른 교재들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학습자들이 어휘적 상에 일치하는 형태적 상을 자동적으로 기입하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완료/불완료 과거의 의미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위의 문제와 더불어 아래와 같은 유형의 문제도 제공되었다.

Una noche, cuando (tener) tenía once o doce años, mis padres (salir) _____ y me (dejar) _____ solo. (Estar) _____ feliz porque (sentirse) _____ adulto. Me (preparar) _____ algo para cenar, (ver) _____ la tele y sobre las doce (irse) _____ a mi habitación. De repente, (oír) _____ un ruido en el piso de abajo. (Cerrar) _____ con llave la puerta de mi habitación y (escuchar) _____. Al cabo de un rato (abrir) _____ la puerta y (bajar) _____ las escaleras con mucho miedo. (Haber) _____ algo que (moverse) _____ cerca de una ventana. De repente, una sombra negra (saltar) _____ sobre mí. (Ser) _____ un gato. (Desmayarse) _____ y cuando (regresar) _____ mis padres, me (encontrar) _____ tirado en el suelo.

위의 문제는 단락 차원에서 다양한 동작류의 동사를 맥락에 맞게 완료/불완료 과거로 기입하는 유형의 문제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이론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실제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연습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어진 동사가 *estar*와 *ser*는 물론 네 가지 동작류에 속하는 동사들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어, 원형 조합과 비원형 조합을 모두 연습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습문제라고 볼 수 있다.

5.3. 한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스페인어 완료/불완료 과거 교수법 제안

본 절에서는 앞서 다섯 종류의 교재들을 분석해 본 결과, 각 교재들이 지니는 장점 및 단점을 바탕으로 한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스페인어 교실 상황에서 완료/불완료 과거를 교육할 때에 필수적으로 소개 및 설명되어야 할 부분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살펴본 교재들의 특징을 설명, 예문, 연습문제를 기준으로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26) 교재 별 장·단점 비교표

교재명	특징			
		설명	예문	연습문제
종합 기초 스페인어	장점	비교적 자세한 용법 소개	다양한 동사 포함	다양한 동사 포함
	단점	용법의 나열	단락 차원의 예문 없음	단락 차원의 문제 없음
초급 스페인어 2	장점	완료/불완료 과거를 대조하여 설명	대화문 형식의 예문	단락 차원의 문제 제공
	단점	불완료 과거의 다양한 용법 소개 없음	단락 차원의 예문 없음	단락 차원의 문제가 완료 과거에 한정되어 있음
Dos mundos	장점	영어를 활용하여 완료/불완료 과거 설명	다양한 동사 포함	다양한 동사 포함
	단점	대조적인 설명이 상태동사에 한정되어 있음	단락 차원의 예문 없음	단락 차원의 문제 없음
Prisma	장점	용법의 설명까지도 문제의 형태로 제시	다양한 형식의 예문, 예문까지도 문제의 형태로 제시	다양한 동사 포함, 단락 차원의 문제 제시
	단점	용법의 나열	단락 차원의 예문 없음	
Gramática de uso del español	장점	그림을 통해 문법 설명을 시각화	다양한 동사 포함	다양한 동사 포함, 단락 차원의 문제 제시, 형태뿐 아니라 의미에 초점을 둔 문제 역시 제시
	단점	용법이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음	타 교재에 비해 예문의 수가 부족	

정리하면, 설명에 있어서는 Dos mundos와 Prisma가 장점을 보이고 있으며, 예문에 있어서는 초급 스페인어 2와 Prisma를, 그리고

연습문제에 있어서는 Prisma와 Gramática de uso del español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각 교재의 장점을 참고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교수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어휘적 상과 형태적 상이 일치하는 경우인 원형 조합에 대한 예문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때, 동사의 종류를 [+종결]을 기준으로 동작동사와 상태동사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소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각각의 상적 특징에 근거하여 종결동사는 완료 과거와, 비종결동사는 불완료 과거와 원형 조합을 이름을 밝히고 이에 해당하는 예문을 제시한다면 학습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아래와 같은 대화문 형식의 예문은 실제 언어 사용 상황에서 완료/불완료 과거의 원형 조합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간접적으로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27) 완료 과거의 원형 조합 예문: [+종결] 동사

- ¿Qué hicieron Nacho y tú ayer?
- Primero fuimos al zoológico y luego dimos un paseo por el parque. Por la noche vimos una película y después cenamos en un restaurante chino.
(*Dos mundos*, p. 264)

(128) 불완료 과거의 원형 조합 예문: [-종결] 동사

- ¿Qué querías hacer?
- Quería ir al cine.
- ¿Por qué no podías ir?
- Porque no tenía dinero.

(*Dos mundos*, p. 334)

이후 어휘적 상과 형태적 상이 불일치하는 비원형 조합에 대한 예문들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상적 의미 차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어휘적 상과 형태적 상이 일치하는 경우에 비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더욱 나중에 습득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미리 제공하면 습득의 속도를 조금 앞당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태동사에서 비원형 조합으로 상적 강압(coercion)이 일어나는 경우는 자연스러운 습득이 어렵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Dos mundos*의 설명을 활용하여 한국인 학습자들에게도 상태동사의 완료 과거 형태를 미리 주지시킬 필요가 있겠다.

(129) 완료/불완료 과거 형태에 따른 상태동사 의미 차이 비교표

불완료 과거		완료 과거	
sab ía	알고 있었다	supe	알게 되었다
no sab ía	모르고 있었다	no supe	전혀 몰랐다
conoc ía	(사람을) 알고 있었다	conoc í	(사람을) 알게 되었다
ten ía	갖고 있었다	tuve	받았다, 갖게 되었다
quer ía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	quise	(무언가를) 시도했다
pod ía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	pude	(무언가를) 했다
no pod ía	(무언가를) 할 수 없었다	no pude	(무언가를) 했지만 실패했다

- ¿Supiste lo que les pasó a Graciela y Amanda?
너 Graciela랑 Amanda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어?
- No, no supe nada. ¿Qué pasó?
아니, 전혀 몰랐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완료/불완료 과거의 사용에 따라 의미 차이가 유발되는 경우는 더욱 강조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특히 *Dos mundos*를 참고할 만한 교재로 삼은 이유는 이 교재의 대상이 L2 학습자라는 점에서 우리 한국인 학습자들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설명과 더불어 다양한 동사를 포함한 단락 차원의 예문이 필요할 것이다. 단문으로 제공되는 예문도 스페인어의 쓰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완료/불완료 과거의 사용이 문맥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문 보다는 텍스트 중심의 예문이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입력(input)이 풍부해야 습득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대화문과 텍스트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원형 조합과 비원형 조합 모두에 최대한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반복 학습 및 연습이 가능하도록 연습 문제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이 때 원형 조합과 비원형 조합의 모든 경우에 대한 연습 문제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설명과 예문을 통해 학습한 완료/불완료 과거를 다음과 같은 단락 차원의 연습 문제를 통해 스스로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해보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130) Todo (ocurrir) _____ el pasado 26 de enero a las ocho de la tarde en Granada. Cuando su hermana se (marchar) _____ de casa, Antonio, un bebé de tan solo dieciocho meses, (dormir) _____. El niño se (despertar) _____ y al escuchar los gritos de los niños en la calle (tomar) _____ una silla, la (poner) _____ al pie de la ventana y subiéndose a ella se (arrojar) _____ desde un segundo piso. Al ver asomarse por la ventana al bebé, Francisco Noguera, de

doce años, (correr) _____ hacia el lugar donde podría caer Antonio, con la gran fortuna de llegar a tiempo de recogerle en sus brazos, salvándole la vida. La madre del bebé, (declarar) _____ a la radio mientras (llorar) _____ de la emoción: “Mi hijo ha vuelto a nacer, ha vuelto a nacer.”

(*Para practicar los pasados, p. 65*)

이와 더불어, 원어민 화자들과의 회화 연습을 통해 쓰기 차원의 연습을 넘어서 말하기 차원의 연습까지 수반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반복하여 연습하면, 실제 언어 사용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완료/불완료 과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교수법을 적용한 교실 수업의 실시와 이에 따른 학습 결과의 검증은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6. 결론

본 논문의 목적은 스페인어의 완료/불완료 과거 습득에 있어서 작용하는 형태적 상과 어휘적 상의 상호 관계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인 학습자의 스페인어 과거 시제 문장에 대한 상적 이해 및 표현의 정도를 설문을 통해 파악하여 이들의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법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우선 스페인어의 어휘적 상과 형태적 상, 그리고 이 두 상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흐름을 파악하였다. 어휘적 상의 경우 [±종결]을 기준으로 상태동사와 동작동사를 비종결동사로, 성취동사와 달성동사를 종결동사로 구분하였다. 형태적 상은 [±완료]를 기준으로 완료 과거와 불완료 과거로 구분하였다. 이후 어휘적 상과 형태적 상의 의미적인 자질의 일치도에 따라서 ‘비종결동사 - 불완료 과거, 종결동사 - 완료 과거’를 원형 조합으로, ‘비종결동사 - 완료 과거, 종결동사 - 불완료 과거’를 비원형 조합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어휘적 상과 형태적 상의 문제를 상 습득으로 확장시켜, 기존의 L2 이론에서 상의 습득을 어떻게 다루어왔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상 가설과 시제 가설, 그리고 부분접근가설과 완전접근가설의 논의가 어떠한 면에서 서로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영어권 화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보이는 일련의 결과들이 한국인 화자들에게 적용되었을 때는 어떻게 차이점을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총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 설문의 결과를 가설의 검증에 목표를 두고 분석하였다.

‘상 가설 vs. 시제 가설’의 경우 한국인 스페인어 학습자들은 상 가설과 가까운 결과를 보였다. 다만, 일부 학습자들이 완료 과거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극소수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시제 가설을 지지한다고는 보기 어려웠다. ‘부분접근가설 vs. 완전접근가설’의 경우, 학습의 단계가 중급에서 고급으로 심화될수록 어휘적 상과 형태적 상이 일치하지 않는 비원형 조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여 완전접근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었다. 한편, 불완료 과거의 특수 용법과 관련한 설문에서는 특수 용법이 학습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어휘적 상의 영향을 받아 원형 조합에 한정된 표현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ser/estar* 사용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국인 학습자들은 ser/estar의 [-종결] 자질에 크게 영향을 받아 이 두 동사를 완료 과거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교재를 분석하여 한국인 학습자들의 상 습득을 돕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고찰해 보았다. 교재의 구성을 크게 설명, 예문, 연습문제로 나누어 보았을 때, 비원형 조합 중에서도 특히 상태동사의 완료 과거 표현과 관련된 명시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예문의 경우 원형 조합을 이루는 예문 이후에 비원형 조합을 이루는 예문을 소개하는 순서로, 다양한 동사를 포함한 단락 차원의 예문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연습문제도 마찬가지로 단락 차원에서의 연습문제를 통해 반복적인 연습이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스페인어의 완료/불완료 과거와 관련된 상을 습득할 때에는 어휘적 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밝혀 냈으며, 학습이 진행되면 어휘적 상의 영향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상적 습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과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참고 문헌

- 김제열(2003), “한국어교육에서 시간 표현 요소의 문법적 기술 방법 연구”, 『한국어 교육』 제14권 제1호, 51-75.
- 신자영(2011), “DELE 코퍼스 구축 및 등급별 스페인어 기본 어휘 선정: B1, B2를 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22권 제2호, 141-166.
- 신자영, 이만기, 김은경 외(2013), 『초급스페인어 2』,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우덕룡(2012), 『종합 기초 스페인어』, 파주: 삼지사.
- 이만기(2007), 『스페인어학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이재학(2004), “스페인어 직설법 완료과거 및 불완료과거의 효과적인 교수법에 대한 고찰”, 『스페인어문학』 제31권, 73-92.
- _____ (2012), “스페인어 직설법 완료/불완료 과거에 대한 의미론적 고찰”,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 제5권 제1호, 57-73.
- 양성혜(2013), “스페인어 직설법 완료 과거와 불완료 과거 용법에 대한 인지문법적 설명”,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 제6권 제1호, 63-89.
- Andersen, Roger (1986), “El desarrollo de la morfología verbal en el español como segundo idioma”, *Adquisición de lenguaje/Aquisição da linguagem*, Meisel, Jürgen (eds.). Frankfurt: Klaus-Dieter Vervuert Verlag, 115-137.
- _____ (1991), “Developmental Sequences: The Emergence of Aspect Marking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rosscurrent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Linguistic Theories*, Huebner, Thom & Ferguson, Charles (eds.). Amsterdam: Benjamins, 305-324.

Andersen, Roger & Yasuhiro Shirai (1994), "Discourse Motivations for Some Cognitive Acquisition Principle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6, 133-156.

_____ (1996), "Primacy of Aspect in First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he Pidgin/Creole Connection", *Handbook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Ritchie, William & Bhatia, Tej (eds.). San Diego: Academic Press, 527-570.

Aragónés, Luis & Ramón Palencia (2005), *Gramática de uso del español*, Madrid: Grupo SM.

Bardovi-Harlig, Kathleen (1998), "Narrative Structure and Lexical Aspect",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0(4), 471-508.

_____ (1999), "From Morpheme Studies to Temporal Semantics: Tense-Aspect Research in SLA", *Studies in Language Acquisition* 21(3), 341-382.

_____ (2000), *Tense and Aspec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Form, Meaning and Use*, Oxford: Blackwell.

Beck, Maria-Luise (1998), "L2 Acquisition and Obligatory Head Movement: English-speaking Learners of German and the Local Impairment Hypothesi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0(3), 311-348.

Bloom, Lois, Karin Lifter & Jeremie Hafitz (1980), "The Semantics of Verbs and the Development of Verb Inflections in Child Language", *Language* 56, 386-412.

Bosque, Ignacio & Javier Gutiérrez-Rexach (2008), *Fundamentos de sintaxis formal*, Madrid: Akal.

Brinton, Laurel (1988), *The Development of English Aspectual Syste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onckart, Jean-Paul & Henri Sinclair (1973), "Time, Tense and Aspect", *Cognition* 2, 107-130.
- Bybee, Joan (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eaning and Form*, Amsterdam: John Benjamins.
- Carlson, Gregory (1977), *Reference to Kinds in English*,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h.D. dissertation.
- Chomsky, Noam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IT Press.
- Comrie, Bernard (1985), *Aspect: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Verbal Aspect and Related Proble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uza-Blanco, Alejandro (2008), *The L2 Acquisition and L1 Attrition of the Interpretation and Use of Aspectual Properties in Spanish among English-speaking L2 Learner and Long-term Spanish Immigrants*, University of Toronto, Ph.D. dissertation.
- de Miguel, Elena (1992), *El aspecto en la sintaxis del español: Perfectividad e Imperfectividad*, Madrid: Universidad Autónoma de Madrid.
- Dietrich, Rainer, Wolfgang Klein & Colette Noyau (1995), *The Acquisition of Temporality in a Second Language*, Amsterdam & Philadelphia: Benjamins.
- Doiz-Bienzobas, Aintzane (2002), "The Preterite and the Imperfect as Grounding Predications", *Grounding: The Epistemic Footing of Deixis and Reference*, Brisard, Franck (eds.). Berlin: Mouton de Gruyter, 299-355.
- Equipo Nuevo Prisma (2014), *Nuevo Prisma Fusión A1 + A2: Curso de español para extranjeros*, Madrid: Editorial Edinumen.
- Etxepare, Rikardo & Kleantes Grohmann (1999), "A Subjunctive Approach to 'Root Infinitives'", *The Linguistic Symposium on Romance Languages*,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 Friedrich, Paul (1974), "On Aspect Theory and Homeric Aspect", *International Journal of American Linguistics* 40(4), S1-S44.
- Gallego, Ángel & Juan Uriagereka (2009), "Estar = Ser + P", *19th Colloquium on Generative Grammar*, Vitoria.
- García Santos, Juan Felipe (1993), *Sintaxis del español: Nivel de perfeccionamiento*, Madrid: Universidad de Salamanca & Grupo Santillana de Ediciones.
- Gili Gaya, Samuel (1961), *Curso superior de sintaxis española*, Barcelona: Spes.
- Giorgi, Alessandra & Fabio Pianesi (1997), *Tense and Aspect: From Semantics to Morphosyntax*,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onda, Jan (1962), *The Aspectual Function of the Rgvedic Present and Aorist*, Hague: Mouton.
- Guijarro-Fuentes, Pedro (2005), "Adquisición del rasgo [\pm Perfectivo] en español", *Pragmalingüística* 13, 129-145.
- Hasbún, Leyla (1995), *The Role of Lexical Aspect in the Acquisition of the Tense/Aspect System in L2 Spanish*, Indiana University, Ph.D. dissertation.
- Hawkins, Roger & Cecilia Yuet-hung Chan (1997), "The Partial Availability of Universal Grammar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he 'Failed Functional Features Hypothesis'", *Second Language Research* 13, 187-226.
- Jacobsen, Teresa (1984), "¿Aspecto antes que tiempo? Una mirada a la adquisición temprana del español", *Iberoamericana*, 1(21), 40-58.
- King, Larry (1992), *The Semantic Structure of Spanish: Meaning and Grammatical For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Kruisinga, Etsko (1931), *Handbook of Present Day English*, Groningen: P.

Noordhoff.

Kumpf, Lorraine (1984), "Temporal Systems and Universality in Interlanguage: A Case Study", *Universals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Eckman, Fred (eds.). Rowley: Newbury House, 132-143.

Langacker, Ronald (1991),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Theoretical Prerequisit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López García, Ángel (2005), *Gramática cognitiva para profesores de español L2*, Madrid: Arco Libros.

Luján, Marta (1981), "The Spanish Copulas as Aspectual Indicators", *Lingua* 54(2), 165-210.

Montrul, Silvina (2002), "Incomplete Acquisition and Attrition of Spanish Tense/Aspect Distinctions in Adult Bilinguals", *Bilingualism: Language and Cognition*, 5, 39-68.

Montrul, Silvina & Rafael Salaberry (2003), "The Development of Tense/Aspect Morphology in Spanish as a Second Language", *Spanish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tate of the Science*, Lafford, Barbara & Rafael Salaberry (eds.). Washington: Georgetown University Press, 47-73.

Montrul, Silvina & Roumyana Slabakova (2002), "The L2 Acquisition of Morphosyntactic and Semantic Properties of the Aspectual Tenses Preterite and Imperfect", *The Acquisition of Spanish Morphosyntax: The L1/L2 Connection*, Pérez-Leroux, Ana Teresa & Juana Muñoz Liceras (eds.).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115-151.

Pustejovsky, James (1988), "The Geometry of Events", *Studies in Generative Approaches to Aspect*, Tenny, Carol (eds.). Cambridge: MIT Press, 19-39.

_____ (1991), "The Syntax of Event Structure", *Cognition* 41, 47-81.

Radden, Günter & René Dirven (2007), *Cognitive English Grammar*, Philadelphia: John Benjamins.

Ramsay, Violeta (1990), *Developmental Stages in the Acquisition of the Perfective and the Imperfective Aspects by Classroom L2 Learners of Spanish*, University of Oregon, Ph.D. dissertation.

Real Academia Española (2009),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Barcelona: Espasa Libros.

_____ (2011), *Nueva gramática básica de la lengua española*, Barcelona: Espasa Libros.

Robison, Richard (1990), "The Primacy of Aspect: Aspectual Marking in English Interlanguage",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2, 315-330.

_____ (1995), "Tense and Aspect Marking in Interlanguage", *Applied Linguistics* 16, 344-370.

Roby, David (2007), *Aspect and the Categorization of States: The Case of ser and estar in Spanish*,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Ph.D. dissertation.

Salaberry, Rafael (1997), *The Development of Spanish Past Tense Aspect among Adult Academic L2 Learners*, Cornell University, Ph.D. dissertation.

_____ (2000), "The Acquisition of English Past Tense in an Instructional Setting", *System* 28(1), 135-152.

Salaberry, Rafael & Yasuhiro Shirai (2002), *The L2 Acquisition of Tense-Aspect Morphology*, Amsterdam: John Benjamins.

Sándor, László (2011), *Para practicar los pasados*, Madrid: Edelsa Grupo Didascalía.

Schmitt, Cristina (1996), *Aspect and the Syntax of Noun Phrases*, University of

Maryland, Ph.D. dissertation.

_____ (2005), "Semi-Copulas: Event and Aspectual Composition", *Syntax, Semantics and the Acquisition of Aspect*, Kempchinsky, Paula & Roumyana Slabakova (eds.).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121-145.

Schwartz, Bonnie & Rex Sprouse (1994), "Word Order and Nominative Case in Nonnative Language Acquisition: A Longitudinal Study of (L1 Turkish) German Interlanguage", *Language Acquisitio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Hoekstra, Teun & Bonnie Schwartz (eds.). Amsterdam: John Benjamins.

_____ (1996), "L2 Cognitive States and the Full Transfer/Full Access Model", *Second Language Research* 12, 40-72.

Shirai, Yasuhiro (1991), "Primacy of Aspect: Simplified Input and Prototype", *The 13th Annual Meeting of American Association for Applied Linguistics*, New York.

Slabakova, Roumyana & Silvina Montrul (2003), "Genericity and Aspect in L2 Acquisition", *Language Acquisition* 11(3), 165-196.

Smith, Carlota (1997), *The Parameter of Aspect*,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Soulé, María Victoria (2014), "La temporalidad de los verbos estativos de sentimiento en el discurso de ELE", *Revista Iberoamericana* 25(3), 31-49.

Taylor, Barry (1977), "Tense and Continuity", *Linguistics and Philosophy* 1, 199-220.

Terrell, Tracy et al. (2010), *Dos mundos: Comunicación y comunidad*, New York: McGraw-Hill.

Vanpatten, Bill (2010), "Some Verbs Are More Perfect than Others: Why Learners Have Difficulty with *ser* and *estar* and What It Means for Instruction", *Hispania* 93(1), 29-38.

Vendler, Zeno (1967), "Verbs and Times", *Philosophical Review* 56, 143-160.

Weist, Richard et al (1984), "The Defective Tense Hypothesis: On the Emergence of Tense and Aspect in Child Polish", *Journal of Child Language* 11, 347-374.

White, Lydia (1985), "The Pro-drop Parameter in Adult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anguage Learning* 35, 47-62.

부 록 [설문지 샘플]

스페인어 과거 시제 관련 설문조사

기본 인적 사항				
연령:	<input type="checkbox"/> 15-19 세	<input type="checkbox"/> 20-24 세	<input type="checkbox"/> 25-29 세	<input type="checkbox"/> 30 세 이상
모국어:	<input type="checkbox"/> 한국어	<input type="checkbox"/> 스페인어	<input type="checkbox"/> 영어	<input type="checkbox"/> 기타 ()
스페인어 학습 기간:	()			
스페인어권 국가 체류 경험:	<input type="checkbox"/> 있음 (체류국가: 체류기간:)			<input type="checkbox"/> 없음
스페인어 능력 시험 점수:	<input type="checkbox"/> DELE (등급:)	<input type="checkbox"/> SNULT (점수:)	<input type="checkbox"/> FLEX (등급:)	<input type="checkbox"/> 없음

Task 1

아래의 글은 영화 ‘싸이코(Psycho)’의 일부를 서술한 것입니다. 다음을 읽고, 주어진 동사를 알맞은 과거시제 형태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Ayer el jefe le (DAR) _____ el dinero a la empleada para que lo depositara en el banco. La empleada (TRABAJAR) _____ para la compañía pero no (ESTAR) _____ contenta con su trabajo y (QUERER) _____ otro empleo. La mujer (NECESITAR) _____ salir del pueblo. (HACER) _____ las maletas y (PONER) _____ el dinero en una bolsa. Luego (SALIR) _____ del pueblo en coche, pero (TENER) _____ miedo de las autoridades. Poco después (BUSCAR) _____ un lugar para descansar. (LLOVER) _____ mucho. De pronto (LLEGAR) _____ al Motel Bates. Por suerte (TENER) _____ habitaciones libres. En el hotel, la mujer (CONOCER) _____ a Norman, le pareció que (SER) _____ un hombre muy tímido.

Mientras (HABLAR) _____, ella (FIRMAR) _____ su registro y (TOMAR) _____ las llaves de su habitación. Hacía rato que la mujer (SENTIR) _____ hambre, pero primero (SUBIR) _____ a su habitación y (DECIDIR) _____ ducharse antes de salir a cenar. Norman (DECIR) _____ que (VIVIR) _____ solo con su madre aunque en realidad su madre (ESTAR) _____ muerta. (ESTAR) _____ un poco loco y (TENER) _____ dos personalidades. Mientras ella se (DUCHAR) _____, Norman se (DISFRAZAR) _____ de su madre, (ENTRAR) _____ al cuarto de la muchacha y (QUERER) _____ matarla a puñaladas.

Task 2

다음 문장을 읽고, 각 문장이 얼마나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합도				
		매우 어색	조금 어색	모르겠음	조금 적합	매우 적합
1	El jarrón se cayó al suelo y quedó sobre la mesa.	-2	-1	0	1	2
2	Julián estaba fumando en la oficina y el jefe lo vio.	-2	-1	0	1	2
3	Fui a la escuela en auto y llegué en bicicleta.	-2	-1	0	1	2
4	La farmacia abrió a las 8 pero ya son las 8 y no ha abierto.	-2	-1	0	1	2
5	Jorge viajaba a menudo a Europa y compraba lindos regalos.	-2	-1	0	1	2
6	Para no mojarse, los niños jugaron bajo la lluvia.	-2	-1	0	1	2
7	Marco estaba cocinando y Pilar lo ayudaba.	-2	-1	0	1	2
8	Los bomberos apagaron el incendio y rescataron al hombre.	-2	-1	0	1	2
9	María trabajaba en una panadería y trataba bien a los clientes.	-2	-1	0	1	2
10	Susana estaba manejando y se detuvo a cargar el tanque.	-2	-1	0	1	2
11	Había 5 personas en el cine, pero no había nadie.	-2	-1	0	1	2
12	Mis amigos me invitaron a una fiesta y no fui invitada.	-2	-1	0	1	2
13	Los padres de Susana salieron de viaje y no se fueron a ninguna parte.	-2	-1	0	1	2
14	Estaba jugando al tenis y llegó Pedro.	-2	-1	0	1	2
15	Lucía venía a buscar su ropa al lavadero pero nunca llegó.	-2	-1	0	1	2

16	Mis padres vendieron el auto, pero nadie lo compró.	-2	-1	0	1	2
17	Bastaba con tener calma para solucionar la situación, pero no fue suficiente.	-2	-1	0	1	2
18	El tren tardaba 3 horas en recorrer el camino, pero lo hizo en 2.	-2	-1	0	1	2
19	Los González vendían la casa, pero nadie la compró.	-2	-1	0	1	2
20	Gonzalo leía un cuento por las noches, pero nunca llegó hasta el final.	-2	-1	0	1	2
21	El BMW me costó \$80.000, pero no lo compré.	-2	-1	0	1	2
22	Adrián tomaba coca-cola y se le volcó la mitad sobre el pantalón.	-2	-1	0	1	2
23	El transatlántico arribó al puerto a las 10 a.m., pero apareció al mediodía.	-2	-1	0	1	2
24	El niño terminó toda la sopa, pero no ha comido.	-2	-1	0	1	2
25	La reunión duró hasta las 6 p.m., pero terminó a las 6.30 p.m.	-2	-1	0	1	2
26	El equipo de Brasil iba ganando el campeonato de fútbol, pero salió segundo.	-2	-1	0	1	2
27	Me faltaron 3 días para terminar la tesis, pero pude terminarla antes.	-2	-1	0	1	2
28	La clase fue a las 10 pero empezó a las 10:30.	-2	-1	0	1	2
29	Los Fernández terminaron su casa pero no pudieron construirla.	-2	-1	0	1	2
30	Julio llevó el sobre hasta la administración pero se le perdió en el camino.	-2	-1	0	1	2
31	Marcelo se tomó toda la cerveza y se le volcó la mitad al suelo.	-2	-1	0	1	2

32	Íbamos al lago, pero nos quedamos en casa a causa de la tormenta.	-2	-1	0	1	2
33	Marcos ganó el campeonato de tenis, pero salió segundo.	-2	-1	0	1	2
34	Julio y Verónica se casaron ayer, pero hoy siguen solteros.	-2	-1	0	1	2
35	El yate me costaba \$1.000.000, pero no lo compré.	-2	-1	0	1	2
36	Mi tío se moría de cáncer, pero finalmente se recuperó.	-2	-1	0	1	2
37	El concierto duraba hasta las 7 p.m., pero terminó a las 8 p.m.	-2	-1	0	1	2

Task 3

다음 상황 설명을 읽고, 해당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동사의 형태에 주목하여 주어진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	En Navidad, Carmen hace una fiesta e invita a todos sus viejos amigos. Entre todos los invitados están Susana y Marcos, que no se ven muy seguido. Cuando Marcos conversa con Susana le pregunta por su familia. Susana le cuenta a Marcos que su familia está viviendo en Barcelona ahora.		
	Marcos conoció a Susana.	VERDADERO	FALSO
2	Lisa va al teatro cada semana. Ella tiene un coche de marca alemana, pero hoy no quiere conducir porque no encuentra su carné.		
	Lisa caminó al teatro.	VERDADERO	FALSO
3	Carmen tiene una hija pequeña, Lucía. Todos los días, Carmen le cuenta cuentos. Después del colegio, Carmen y Lucía juegan juntas y se inventan cuentos nuevos.		
	Lucía fue la princesa y Carmen la reina.	VERDADERO	FALSO
4	Panchito era muy tímido y no tenía muchos amigos con quien jugar. Pasaba todo el tiempo en su casa con su mamá. Ayer, Panchito se reunió por primera vez con sus vecinitos para jugar y pasaron un rato muy agradable. Hoy, se quedó nuevamente con su mamá.		
	Panchito jugaba con sus vecinos.	VERDADERO	FALSO
5	Laurita tenía muchos amigos y después de la escuela pasaba el tiempo en la casa de sus vecinos. Ayer, se quedó en casa con su mamá y pasó un rato muy agradable.		
	Laurita jugaba con sus vecinos.	VERDADERO	FALSO

6	Según el periódico, el restaurante de la calle Jefferson era muy bueno y el servicio era excelente. Lamentablemente, el restaurante cerró el verano pasado y nunca tuvimos la oportunidad de ir.		
	Se comió bien en ese restaurante.	VERDADERO	FALSO
7	Según la mayoría de la gente, el restaurante de la calle Jefferson era muy bueno y el servicio era excelente. Fuimos a celebrar el cumpleaños de Carlos y a todos nos gustó mucho. ¡Qué lástima que lo cerraron!		
	Se comió bien en ese restaurante en aquella ocasión.	VERDADERO	FALSO
8	Ana va a la boda de sus amigos Carlos y Carolina. Ana no tiene novio. Carolina le presenta a Roberto. Ana y Roberto bailan toda la noche.		
	Ana conocía a Roberto.	VERDADERO	FALSO
9	Anoche Carmen tuvo un sueño. En el sueño, ella está en la playa y pasa un tiempo maravilloso con su familia.		
	Carmen estaba en la playa con su familia en el sueño.	VERDADERO	FALSO
10	Desde chico, Rodolfo ha sabido que él no es hijo legítimo de don Camilo y la verdad sobre sus padres. Hoy, don Camilo conversa con él sobre esto, pero para Rodolfo ya no es una sorpresa.		
	Rodolfo sabía la verdad.	VERDADERO	FALSO

Task 4

아래의 글을 읽으며, 주어진 동사가 둘 중 어느 형태로 변형되는 것이 더욱 적합한지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 번 글을 2 번처럼 과거시제로 표현할 경우 적절한 동사의 형태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En la ciudad, hay un teatro, [es/está] en la calle San José. [Es/Está] de estilo barroco. Esta tarde, hay un concierto en la ciudad. El concierto [es/está] en este teatro. Yo también [soy/estoy] aquí. [Es/Está] maravilloso, me gusta muchísimo.

En la ciudad, hay un estadio, [es/está] al otro lado del río. No [es/está] muy grande. Esta tarde, hay un partido de fútbol entre los dos mejores equipos de la ciudad. El partido [es/está] en este estadio. Nosotros también [somos/estamos] aquí. [Es/Está] muy emocionante.

2. En la ciudad, había un teatro, _____ en la calle San José. _____ de estilo barroco. El lunes hubo un concierto en la ciudad. El concierto _____ en ese teatro. Yo también _____ allí. _____ maravilloso, me gustó muchísimo.

En la ciudad, había un estadio, _____ al otro lado del río. No _____ muy grande. El miércoles hubo un partido de fútbol entre los dos mejores equipos de la ciudad. El partido _____ en ese estadio. Nosotros también _____ allí. _____ muy emocionante.

RESUMEN

Adquisición de los tiempos pretérito perfecto e imperfecto del español, en estudiantes coreanos

Jihee Hwang

Maestría en Lingüística Hispánica

Departamento de Lengua y Literatura Hispánicas

Universidad Nacional de Seúl

El propósito de esta investigación es revisar en profundidad la relación entre los aspectos léxicos y morfológicos del español, a fin de proponer un método didáctico y eficaz para ayudar a los estudiantes coreanos en la adquisición de los tiempos del pretérito perfecto e imperfecto. En la lengua coreana, a diferencia del español, el pretérito perfecto y el imperfecto se pueden usar indistintamente. Por lo tanto, cuando los estudiantes coreanos aprenden estas formas gramaticales experimentan dificultades y la selección de la forma adecuada no es fácil para ellos. El problema que representa la confusión de ambos tiempos verbales constituye la base para este estudio.

El término ‘aspecto’ tiene su origen a comienzos del siglo XIX, en la palabra rusa *vid* (punto de vista), utilizada en los estudios de gramática eslava. En la gramática tradicional, el aspecto fue considerado como equivalente a los tiempos potenciales, pero el aspecto es claramente diferente del tiempo. El aspecto depende del punto de vista de un hablante dado y tiene la intención de representar los procesos u operaciones de la

situación expresada por el verbo. De esta manera, el aspecto se caracteriza por las cualidades y la fase de la perfectividad: si el verbo tiene un punto de finalización se convierte en aspecto perfectivo, y si no, se transforma en aspecto imperfectivo. La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publicada en el 2009 por la Real Academia Española en consenso con la Asociación de Academias de la Lengua Española, divide el aspecto de la lengua española en tres tipos: morfológico, léxico y sintáctico. De estos tres aspectos, se analizarán en este estudio solamente el aspecto léxico y el morfológico, ya que el aspecto sintáctico utiliza formas complejas que no permiten el análisis según la perfectividad.

El aspecto léxico tiene una relación íntima con el término *aktionsart*. Esta palabra, que se deriva del alemán, es la suma de *aktion* (acción) y *sart* (modo o tipo), y se traduce en español como “modo de acción”. Los estudios acerca del aspecto léxico comenzaron con Aristóteles y se desarrollaron en el siglo XX, con filósofos como Gilbert Ryle, Anthony Kenny y Zeno Vendler. Vendler, en especial, dividió el aspecto léxico en cuatro tipos, según la dinamicidad, la telicidad y la puntualidad de los verbos: estados, actividades, realizaciones (o efectuaciones) y consecuciones (o logros). Aunque otros académicos usan sus propios criterios para distinguir el aspecto léxico, el propuesto por Vendler se convirtió en la estructura básica para clasificar los modos de acción en numerosos estudios posteriores.

El uso del aspecto léxico es similar en todos los idiomas. Por lo tanto, al aprender un idioma extranjero, dicho aspecto léxico se puede entender naturalmente sin ayuda o instrucción especial; pero el aspecto morfológico de los verbos requiere de un esfuerzo especial porque es diferente en cada lengua.

El aspecto morfológico se representa a través de la flexión de un morfema. En el caso del español, el aspecto morfológico se expresa por medio del pretérito perfecto e imperfecto. El pretérito perfecto tiene la

forma *canté* y el imperfecto, *cantaba*.

El aspecto perfectivo expresado por el pretérito perfecto tiene que ver con una situación fuera de su estructura interna y, en consecuencia, el énfasis está al inicio o al final de dicha situación. Por el contrario, el aspecto imperfectivo expresado por el pretérito imperfecto es interno y, por lo tanto, ni el inicio ni el final de la situación se puede determinar concretamente y solo se relaciona con la estructura interna de la situación.

Es importante tener en cuenta que el aspecto morfológico del tiempo pasado no es un concepto objetivo sino subjetivo, que incluye la intención del hablante. Las dos formas del tiempo pasado están relacionadas con el aspecto de la situación que el hablante quiere describir. Por eso, si el hablante desea poner énfasis en el aspecto durativo o medio, usará el pretérito imperfecto. Pero si quiere destacar el inicio o el final de una situación, elegirá el pretérito perfecto. En este sentido, algunos académicos lo denominan el “aspecto del punto de vista”, porque la perspectiva del hablante desempeña un papel principal en la distinción entre los dos tipos de pretérito.

Tanto el aspecto léxico como el morfológico se combinan para expresar las diferentes situaciones en el tiempo pasado. En cuanto a su relación y combinación, hay dos características que los estudiantes necesitan saber. Primera, no hay restricciones de combinación entre los dos aspectos. Los cuatro tipos de aspecto léxico y los dos tipos de aspecto morfológico pueden combinarse entre sí y, en total, el número de combinaciones es de ocho. Segunda, aunque no haya restricciones, sí existen diferencias entre las combinaciones. Por ejemplo, los verbos de estado, como *amar*, tienen aspecto [-dinámico], [-tético], y [-puntual]; es natural que estos verbos se usen en pretérito imperfecto, que es [-perfectivo]. Al contrario, los verbos de realizaciones o logros, como *acabar* y *romper* que tienen carácter [+tético], suelen usarse con pretérito perfecto. Por ende, las combinaciones de ‘verbos atéticos–pretérito imperfecto’ y ‘verbos téticos–pretérito perfecto’

pueden clasificarse como combinaciones prototípicas mientras que las de ‘verbos télicos–pretérito imperfecto’ y ‘verbos atélicos–pretérito perfecto’ pueden denominarse como combinaciones no-prototípicas.

La polémica de la adquisición del aspecto comenzó con la pregunta acerca de cuál se aprendería primero, el tiempo o el aspecto. Numerosos estudios insistían en que el aspecto se adquiriría más rápidamente que el tiempo. Sin embargo, no todos los resultados de las investigaciones que se trataban de verificarla coincidían con la hipótesis, y de esta circunstancia surgió la llamada hipótesis del tiempo.

Si se analiza en detalle, según la hipótesis del aspecto, los niños consideran primero si la situación que necesitan expresar es la situación perfectiva (que dura un instante), o la situación imperfectiva (que dura un tiempo largo). En el tiempo pasado, los que empiezan a aprender español presentan una tendencia de adquirir las combinaciones prototípicas y de usarlas preferentemente. Luego, cuando el proceso de aprendizaje se desarrolla, comprenden que las combinaciones no-prototípicas también son otra opción.

Bronckart y Sinclair explican la razón que habría detrás de este fenómeno de adquirir el aspecto antes que el tiempo. En la etapa inicial del aprendizaje, los estudiantes tienen la influencia de los caracteres relacionados con el aspecto como frecuencia y duración al expresar la situación en pasado. Similarmente, Andersen y Shirai presentaron el principio de relevancia, el cual explica que el aspecto tiene más relación con el significado de los verbos que el modo o la concordancia. Además, este principio puede explicar que ciertas formas se combinan con ciertos aspectos léxicos más prototípicamente, ya que los estudiantes usan el morfema que tiene más relación con el significado del verbo. Por último, la razón por la que los estudiantes usan solamente las combinaciones prototípicas puede explicarse mediante el principio de uno-a-uno, que significa que los estudiantes podrían pensar que un morfema solo tiene un

significado y una función.

Por otro lado, especialmente en los estudios de la adquisición de L2, numerosos teóricos insisten en la hipótesis del tiempo. A diferencia de la hipótesis del aspecto, esta señala que los estudiantes de L2 adquieren el tiempo antes del aspecto. La diferencia más destacada se sitúa en la etapa inicial de adquisición. Según la hipótesis del aspecto, la fase del uso del pasado de los principiantes tiene mucha relación con las combinaciones prototípicas. Pero la hipótesis del tiempo analiza que no existe el pretérito imperfecto en las expresiones que los principiantes utilizan, sino que aparece solamente el pretérito perfecto para todos los tipos de aspecto léxico.

Hay otra polémica sobre la adquisición del pretérito perfecto e imperfecto del español. Existen dos teorías contrarias, la hipótesis del acceso pleno y la hipótesis del acceso parcial, que se oponen en el grado de adquisición de las categorías funcionales y de sus cualidades formales. La hipótesis del acceso pleno supone que las categorías funcionales, inclusive ~~incluido~~ el SAsp (Sintagma Aspectual) y sus cualidades formales de L2, que no existen en la L1, pueden aprenderse perfectamente, mientras que la hipótesis del acceso parcial insiste en que es imposible aprender la L2 a la perfección, y que solo es posible aprender parcialmente las categorías y cualidades que son iguales o similares a la lengua materna.

Con esta base teórica, se diseñó una encuesta siguiendo el modelo de Montrul y Slabakova (en las Tareas 1 y 2) para ver la capacidad de los estudiantes coreanos en el uso del pretérito perfecto e imperfecto, según el nivel de dominio del español. El diseño de la encuesta consideró los siguientes objetivos de comprobación, para que los resultados pudieran analizarse científicamente. El objetivo de la primera parte (Tarea 1) era verificar cuál explicaba mejor la adquisición de los estudiantes, entre las hipótesis del aspecto y del tiempo, en un texto compuesto por combinaciones prototípicas. La segunda parte (Tarea 2) comprobaba cuál tenía más sentido entre las hipótesis del acceso pleno y del acceso parcial,

cuando los enunciados incluían hasta los usos de las combinaciones no-prototípicas. La tercera (Tarea 3) analizaba si los estudiantes conocían los usos específicos de los dos pretéritos. El apartado final (Tarea 4) intentaba comprobar cuál era el criterio de elección para los estudiantes, el aspecto léxico o el morfológico, al utilizar los verbos copulativos del español, *ser* y *estar*.

Se analizaron un total de 150 encuestas, de tres diferentes grupos: 66 estudiantes de nivel intermedio, 62 avanzados y 22 nativos como grupo de control. La división consideró el período de estudio del español. Los de nivel intermedio han estudiado español menos de 2 años y los avanzados, más de 7 años en promedio. A través de los resultados, se pudo averiguar qué tendencia tienen los estudiantes coreanos al seleccionar entre el pretérito perfecto e imperfecto.

En la Tarea 1, los estudiantes ya habían aprendido que existen dos tipos de tiempo pasado, y, por lo tanto, la mayoría alcanzó un alto porcentaje de respuestas correctas porque las oraciones usadas en el texto eran de combinaciones prototípicas. A través de este resultado, podemos concluir que la adquisición de aspectos en estudiantes coreanos concuerda con la opinión de la hipótesis del aspecto.

Pero en la Tarea 2, el porcentaje de las respuestas correctas del grupo intermedio bajó en gran número. A diferencia de los estudiantes intermedios, los avanzados parecían tener la habilidad de distinguir entre las oraciones gramaticales y agramaticales, teniendo en cuenta las diferencias del significado expresadas por combinaciones prototípicas y no-prototípicas. Con este resultado, se pudo inferir que la etapa de aprendizaje concuerda con lo que opina la hipótesis del acceso pleno, porque los estudiantes conseguirían las categorías funcionales y las cualidades formales de L2, que no existen en L1.

El resultado de la Tarea 3 demostró que los estudiantes, especialmente los intermedios, no tienen la capacidad de entender el cambio de significado,

ni la interpretación habitual, ni la situación irreal, ni la interpretación genérica que se describen mediante los dos pretéritos. Los encuestados relacionaron la forma del pretérito con base en el aspecto léxico y no pudieron distinguir que las oraciones con combinaciones no-prototípicas siempre son agramaticales.

A través de la Tarea 4 con los verbos *ser* y *estar*, se pudo comprobar de nuevo que los estudiantes tienen gran influencia del aspecto léxico. Los de nivel intermedio conjugaron ambos verbos en pretérito imperfecto, considerando que el verbo estativo tiene que usarse en aspecto imperfectivo, aunque el contexto requería el pretérito perfecto.

En resumen, a través de la encuesta de este estudio, hemos comprobado que los estudiantes coreanos muestran una tendencia en dirección de la hipótesis del aspecto y de acceso pleno en cuanto a la adquisición del aspecto del español. Por lo tanto, se puede concluir que dichos estudiantes necesitan cierto grado de enseñanza y aprendizaje para comprender las combinaciones no-prototípicas de los pretéritos del español, a diferencia de las combinaciones prototípicas que se adquieren con más naturalidad. Además, sería posible deducir que uno de los elementos necesarios para poseer una competencia lingüística de español avanzado es entender que el uso del pretérito perfecto e imperfecto depende principalmente de su aspecto léxico, pero que pueden utilizarse no prototípicamente basándose en el contexto y en el punto de vista del hablante correspondiente.

Con base en los resultados de la encuesta, se propone que, en la enseñanza del español para los coreanos, es importante enfatizar las características aspectuales relacionadas con los pretéritos perfecto e imperfecto. Para encontrar el método didáctico más adecuado a este contexto, se analizaron cinco manuales. El material didáctico diseñado para los coreanos requiere que se incorpore información precisa sobre las combinaciones prototípicas y no-prototípicas. Los manuales enumeran y simplifican demasiado los usos de las formas del pretérito. Además, no

tratan las diferentes interpretaciones aspectuales entre los pretéritos, según los tipos de predicados: télico o atélico. En la parte de los ejemplos, la mayoría de los manuales solamente ofrecen oraciones simples. Como el uso del pretérito perfecto o del imperfecto normalmente depende del contexto, sería mejor presentar los enunciados dentro de algún contexto, para que los estudiantes perciban la diferencia de las posibles combinaciones. En el mismo sentido, los ejercicios también convendría que se ofrecieran en un párrafo que sirva de contexto. Con la repetición de ejercicios y prácticas tanto orales como escritas, según nuestra propuesta, los estudiantes podrán acostumbrarse a los diversos usos del pretérito perfecto e imperfecto y serán capaces de utilizarlos en sus expresiones con mayor fluidez.

A través de este estudio, se ha comprobado que los estudiantes coreanos reciben gran influencia del aspecto léxico y que su comprensión de las combinaciones prototípicas son limitadas, cuando empiezan a adquirir los aspectos relacionados con el pretérito perfecto e imperfecto. Sin embargo, con el desarrollo del aprendizaje, los estudiantes pueden conocer las combinaciones no-prototípicas y comenzar a usarlas. Con este análisis del proceso de adquisición, se propone que es necesario enseñar con explicaciones explícitas y ejercicios repetitivos con un enfoque en las combinaciones no-prototípicas, que son difíciles de adquirir de manera natural.

Palabras claves: aspecto verbal, adquisición, hipótesis del aspecto, hipótesis del tiempo, estrategia didáctica.

Número de estudiante: 2013-20029